정답과 해설

최우선순

고전 산문

문제편

Ⅰ 소설

01강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본문 013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6.** 인연이 될 사람을 하루빨리 만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여인의 바람이 자신의 소원과 같았기 때문에 여인의 글을 읽고 기쁨을 느낀 것이다. **07.** ③ **08.** (1) 이승 사람인 양생과 저승 사람인 여인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한다는 점에서 애정 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2) 양생이나 여인이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교적 발원 사상을, 여인이 양생에게 내세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것에서 불교적 윤회 사상을 엿볼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양생과 여인은 홀로 지내는 외로움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두 인물의 만남은 두 인물이 지닌 내적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인 양생과 여인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② 양생과 여인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가 인연을 맺게 되는 인물로, 두 인물은 대립 구도에 놓여 있다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바탕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서술자가 사건의 변화를 주도하는 개입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여인이 겪은 과거 사건이 부처에게 바친 글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서술자가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 **Q 서술자의 개입이 뭔가요?**
>
> **A** 고전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서술상의 특징이 자주 나타나요. 이때 서술자의 개입은 주로 사건에 대한 논평적 진술, 즉 인물의 태도나 사건의 흐름에 대해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를 통해 독자가 가질 법한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공감의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지요. 단,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질 때도 인물을 평하는 것인지, 사건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해요.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양생은 여인에게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라고 묻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생의 말에 대해 여인은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이지요?"와 같이 양생이 바라는 바를 짐작하고 있을 뿐,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거나 이를 일부러 모른 척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다는 서술을 통해 양생이 객회로 인해 나무 밑을 거니는 행동을 반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객회', 즉 만복사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느라 외로움이 깊어진 모습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양생은 부처와의 '저포 놀이', 즉 저포를 던져서 미래를 결정하는 우연적인 사건에 기대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주사위 놀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양생의 운명관을 보여 준다.

④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간 거처에서 사흘을 보낸 후 양생에게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인은 '너무 서운하긴 하나'라며 양생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며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직접 밝히고 있다.

⑤ 양생은 여인이 이별을 고하자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라며 이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인의 친척, 이웃 동무들을 만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는 여인의 말에 "그렇게 합시다."라며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에서는 감정이 투영된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으나, ⓐ에서는 '짝 못 지은 비취새', '짝 잃은 원앙' 등에 감정을 투영하여 양생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짝을 얻고 싶은 소망만 드러나 있을 뿐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에는 양생의 현재 처지와 소망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양생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양생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암시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는 짝을 구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둘 다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배필에 대한 욕망을 환상 세계의 존재인 부처님의 힘을 빌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만복사는 현실 세계의 존재인 양생과 환상 세계의 존재인 여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③ 양생이 속한 현실 세계의 시간('사흘')과 여인이 속한 환상 세계의 시간('삼 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것은 두 세계가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양생은 환상 세계의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성취하나, 여인과 이별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에서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보여 준다.

⑤ 양생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나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양생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A]에서 양생은 저포 놀이에서 이기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 달라며 부처님께 말하고 있고, [B]에서 여인은 자기 삶의 운수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아아, 인생이 박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와 같이 한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B]에서는 '얼마 안 되어'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여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곱고 얌전하였다'와 같이 직접 제시의 방법으로 인물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그 이튿날'과 같이 시간 표현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은 없으며, 양생의 인물됨도 간접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② [B]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박명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탄식하는 모습을 보일 뿐, 상대가 소원을 들어줄 존재라고 여기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A]에서 부처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존재로 여기고 있다.

③ [A]에서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와 같이 마을의 전통적 풍습을 밝히면서 양생이 불전에서 소원을 비는 행동 역시 당대 마을의 풍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전통적 풍습과 관련된 여인의 행동이 나타나나, 공동체의 전통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 양생은 "자비로운 부처님"과 같이 대상을 직접 호명하면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B]에서 여인은 부처님을 완곡하게 비판하거나 부처님이 할 일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Q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뭔가요?**
>
> **A** 소설에서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들 수 있어요. 직접 제시는 '말하기(telling)', '분석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서술자가 직접 알려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요.
> 한편, 간접 제시는 '보여 주기(showing)', '극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인물의 행동과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서술자가 직접 나서서 알려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0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양생은 배필을 빨리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여인 역시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라며 인연이 될 사람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함을 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여인의 바람이 자신의 소원과 같음을 알고 양생이 기뻐한 것이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여인이 데리고 간 수간 초당에서 양생은 좌우에 진열된 그릇을 보고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양생의 반응은 여인이 데리고 간 곳이 현실의 세계와 달라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는 모습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정으로 이내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의아한 생각을 되풀이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양생이 지은 두 수의 시는 양생의 처지를 드러내는 장치에 해당한다. 이 시에서 '고운 님'은 양생의 외로운 처지를 해소해 줄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양생이 인연을 맺게 되는 여인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여인이 품속에서 꺼내어 놓았던 '글'은 여인이 겪었던 과거의 처지를 드러내는 장치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여인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넋은 녹아 없어'지게 되고 '애간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외로운 처지의 현실과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한 내적 갈등이 깊어져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배경 묘사와 그에 따른 인물의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는 두 인물이 맞이한 '봄'이라는 배경과 관련된다. 양생이 맞이하고 있는 '봄'은 배나무 한 그루만이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양생의 불우한 처지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여인의 글에 언급된 '봄' 역시 임시로 매장되어 외로운 세월을 보내는 여인이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는 불우한 처지가 심화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승과 저승을 둘러싼 만남과 이별이 제시되는 서사적 구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여인이 양생과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못 다 이룬 소원'을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다고 밝히는 모습은 비록 이별을 하지만 두 인물 사이의 연정은 여전히 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8 [표현론적 관점에서의 작품의 특징 파악]

이 글에서는 이승의 인물과 저승의 인물이 인연을 맺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애정 지상주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생이 부처님께 어여쁜 아가씨를 배필로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나 여인이 자신의 기구한 삶을 한탄하면서도 인연을 맺고자 하는 바람을 부처님께 기원하고 있고, 두 사람의 소원이 둘의 만남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불교적 발원 사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인이 양생에게 내세에 다시 만나 못 다 이룬 소원을 이룰 것이라고 한 점에서 불교적 윤회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강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본문 018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여인은 죽음의 처지에 있는 자신이 환생하여 하생과의 인연을 유지하고자 금척을 저잣거리 노둣돌 위에 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탁에 응한 하생은 금척을 매개로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07.** ② **08.** 여인의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부창부수(/여필종부)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중요한 결정에 아녀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여인과 하생의 대화에서 여인은 죽은 후 옥황상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과 옥황상제가 자신을 환생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여인의 말 속에 사후 세계와 옥황상제라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이 사건 전개상 비현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여인의 무덤 묘사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이 암시되지는 않는다.

③ 하생, 여인, 여인 부모의 발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지닌 양면성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며 이때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 사건의 반복 교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Q 입체감이 뭔가요?

A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 중에는 입체감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입체감'이라는 말은 '다양한 측면'이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돼요. 즉, 특정 인물이나 사건 전개에 대해 한 면만 다루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을 때 '입체감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인물을 구분할 때, '입체적 인물'이라는 용어 역시 한 작품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며 새롭게 발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 해당해요. 참고로, 이와 대비되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대로 작품 속에서 단일하고 일관된 성격을 지닌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도 같이 알아 두세요.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다시 살아난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꿈인 줄만 알았다고 하면서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을 보이고, 부모가 재차 캐묻자 어쩔 수 없이 하생이 했던 말에 들어맞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잊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모의 말을 듣고 하생과의 인연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차 캐묻자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여인은 하생과 함께 머무는 곳이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생은 여인의 말을 믿고 있으므로 하생은 여인에 의해 자신이 있는 곳이 인간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② 여인의 말을 통해 시중은 옥사를 처결하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선행으로 인해 옥황상제가 여인을 현세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중이 옥사를 처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선행은 여인을 살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여인은 하생에게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둣돌 위에 금척을 올려 두면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것이라며, 하생이 여인의 부탁으로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잊지 말라고 한다. 여기서 여인은 하생이 자신의 부탁으로 인해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④ 시중은 하생의 말을 듣고 딸의 무덤으로 향하면서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한다. 이는 하생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으므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여인이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여인이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하생의 마음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생의 심정은 시의 내용 중 '꿈속에서나 그대를 보겠구나'와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하생의 시에서 '옥'에 '흙탕물'이 묻었다는 것은 하생과 여인 간 만남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표현에서 하생은 자신을 낮추어 '흙탕물'로 표현하며,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하생으로 인해 여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② 하생의 시에서는 '봉황은 자기 둥지를 찾았으니 잡새를 돌아보려 하겠는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봉황'은 시중이 아니라 자기 둥지를 찾은 존재, 즉 집으로 돌아온 여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표현을 통해 시중이 자신을 대했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하생의 시에서 '팔 위의 눈물 자국'은 과거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하생이 이에 공감했던 사건을 가리키므로, '팔 위의 눈물 자국'을 여인이 알 리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여인은 하생의 시를 접하고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둥지'를 찾지 못한 하생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생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하생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Q 우회적이 뭔가요?

A 시적 화자나 등장인물의 태도를 나타낼 때 종종 '우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인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이라는 뜻부터 이해하면 돼요. 우회적 태도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나 심리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시중이 자기 집에서 하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은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하지만 잔치 이후에 시중은 집안 차이의 문제 등을 들어 하생과 여인의 혼인을 반대한다. 이는 두 번째 시련의 발생을 의미하므로, 두 번째 시련을 극복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여인의 집이 사실은 인간 세상이 아니고 장례 지낸 지 사흘이 된 여인의 무덤이었다는 점, 죽은 사람인 여인과 살아 있는 사람인 하생이 인연을 맺었다는 점은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② 하생이 혼인을 약속한 대상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죽은 여인이라는 점에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혼인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첫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③ 하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생사를 걸고 여인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 존재인 여인의 환생을 돕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은 자신의 집안과 하생의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집안의 차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두 사람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05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①**

여인은 '오늘 아침'이 옥황상제가 자신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한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여인의 환생을 위한 기한이 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오늘 아침'은 여인이 환생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중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의 시간인 '해 질 녘'에 죽었던 여인이 깨어났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여인의 환생이 실현되었음이 확인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오늘 아침'은 여인의 환생 여부가 결정되는 시간이고, 하생이 여인을 돕기로 한다는 점에서 여인과 하생의 인연이 한시적이었음을 '오늘 아침'이 알려 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 질 녘'은 여인이 환생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여인의 환생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③ '오늘 아침'이 여인의 환생을 위해 주어진 기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해 질 녘'은 시중으로서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딸이 살아난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시중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오늘 아침'이 다가올수록 여인이 환생할 기한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인의 환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해는 가능하지만, 환생할 가능성이 없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해 질 녘'은 사라진 가능성이 반전된 것이 아니라, 하생의 도움으로 여인이 환생하게 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오늘 아침'이라는 시간은 여인이 환생하게 되면 하생과 함께하고자 했던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인은 하생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인물이므로, 그러한 여인이 환생하게 된 '해 질 녘'은 여인의 소망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여인은 "그런데 옥황상제께서~허락해 주시겠어요?"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생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베갯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준다. 그리고 이 금척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둣돌 위에 올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에서 시중과 하생과의 대화를 통해 볼 때 금척이 여인의 부모와 하생의 만남을 이어 주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보기〉의 ㉮에 따르면, 하생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점쟁이의 예언에 따름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에서 하생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점쟁이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쟁이의 예언'을 극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 따르면, 하생은 불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와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하생은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와 같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에서 하생이 점쟁이를 찾아가기 전의 불우한 삶은 ㉯에서 여인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와 이 글의 내용에서 하생과 여인의 결혼을 반대했던 핵심 인물은 시중임을 알 수 있다. 시중은 두 인물의 결혼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을 걱정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하는 시중의 태도를 알게 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시중이 하생과 여인의 혼인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④ ㉰와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은 부모의 결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생과 인연을 맺은 후 백년해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생과의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와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은 불우한 처지인 하생과 죽은 여인이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지만 결국 부부가 되어 즐거운 여생을 보낸다는 서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서사 구조를 띤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와 이 글의 내용에서 여인의 어머니는 하생과 여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남편의 말에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라고 말한다. 이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모습이므로 부창부수(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나 여필종부(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의 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물의 태도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아녀자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보여 준다.

03강

주생전(周生傳)

본문 02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7.** ③
08. '주생은 선화를~송도에 머물렀다.' / 주생과 선화의 만남에 대한 결말을 미완성으로 처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09.** ㉮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는 '구름'과 '바다'이다. 이들은 임진왜란으로 고향과 선화를 떠나 외로운 처지에 놓인 주생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시적 의미를 지닌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만력 20년 임진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이여송 장군'이라는 실존 인물을 작품에 제시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화가 주생을 원망하는 심경을 드러내는 부분이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두 인물이 대립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글에서 대립적인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화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작품 속의 「답사행」은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외로운 심정과 처지, 선화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등을 담고 있다.

③ 주생의 처지를 알고 이를 돕는 장 씨가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조력자로 등장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Q 사건의 진행 속도와 서술 방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 소설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한 직접 제시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한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는 작중 상황이나 대상을 요약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이와 달리 간접 제시는 작중 상황이나 대상의 구체적 면모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전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일반적으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건 진행의 완급을 조절해요. 특히, 인물의 독백은 사건을 더욱 지연시킨다고 보면 되지요. 이러한 특징들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의 선지에 종종 등장하니 잘 알아 두세요.

0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②**

이 글은 주생의 지난날에 대한 술회나 고백을 서술자인 '나'가 듣고 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액자 소설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장 노인의 집 → 선화의 집 → 주생이 있는 곳 → 황궁 → 송도' 등으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장면이 빈번히 바뀌는데, 후반부에서는 송도의 어느 객사에서 일어난 일이 전개되면서 전반부보다 장면 전환이 적게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전반부의 중심인물이었던 주생은 후반부에도 중심인물이고 '나'는 중심인물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변 인물이다.

③ 전반부의 사건이 미완결 결말로 처리되어 주생이 후일 선화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후반부에서 갈등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글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기이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전반부는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인물에 대한 논평은 없다.

Q 기이한 사건이 뭔가요?

A 고전 소설에서 흔히 '기이한 사건'은 '전기적(傳奇的) 요소'와 관련된다고 보면 돼요. 이때 '전기적'이라는 말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기한 것, 일상적·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허구적으로 짜 놓은 것을 말해요. 보통 도술을 부리거나 이승 밖의 존재가 등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이한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의 '전기(傳 전할 전, 記 기록할 기)'라는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선지에 '전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땐 문맥을 통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해야 해요.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선화는 주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지 위에 앉은 꾀꼬리 소리를 들을 때면~내 방에 찾아와서 깊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며, 주생과 인연을 맺었던 일을 다양한 자연물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기억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선화의 어머니는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고 싶어 하므로 선화와 주생의 혼인을 못마땅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주생은 선화의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하인으로부터 정혼한 뜻을 전해 듣게 된다. 이는 주생이 바라는 바에 해당한다.

④ '나'가 주생에게 병이 난 까닭을 물은 것은 주생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⑤ 주생과 선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나'는 기이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으로 여겨 이야기를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일의 진위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보기〉에 따르면, 「주생전」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우한 삶을 사는 인물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작가의 삶에 대한 우울한 인식이 우회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생의 떠남을 통해 작가가 삶에 대한 우울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해소하려 했다는 것은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주생이 병이 들어 송도에 머무르게 된 것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

한 인물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주생과 선화는 끝내 혼인 약속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불우하게 살다 간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주생은 선화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그 바람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불우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주생의 노력이 사회적 사건 때문에 허사가 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비극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주생과 '나'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비가 내리는 상황은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 중 배경이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에서 주생은 '군데군데 떨어진 눈물 자국이 배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에서 선화가 주생이 날로 수척해져 가는 모습을 확인했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은 주생의 얼굴이 수척해져 감을 이상하게 생각한 장 씨가 그 까닭을 물어 주생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아내에게 작성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선화 집안에서는 놀라며 기뻐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 선화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여인은 '봄은 다시 찾아왔지만~배꽃을 때렸습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주생과의 이별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으로 인해 봄의 풍경마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었던 일을 밝히고 있다.

③ ㉠은 주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장 씨의 처가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은 '선화가 손수 쓴 편지'로 선화가 직접 자신의 마음을 담아 작성한 것이다.

④ ㉠이 전달된 후 '마침내 두 집안은 그 해 9월에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에서 주생과 선화는 혼인 약속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받은 주생은 '편지지만으로도 선화의 슬픔과 원망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에서 선화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이 글에서 '이튿날 아침' 이후의 '나'는 주생의 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생의 시에 대해 아름다웠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튿날' 이전과 이후에서 장 씨는 주생의 혼사를 추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변함없이 주생을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② '이튿날' 이전에 장 씨는 자신이 마땅히 주생을 위해 혼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이후에 장 씨는 아내 노 씨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전당에 하인을 보내는 등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③ '이듬해' 이전에 주생은 전쟁에 참가하여 서기의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선화와 이별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에 주생은 선화를 잊지 못해 병이 들어서 군대를 따라 남하하지 못하고 송도에 머물렀으므로, '이듬해' 이전의 전쟁 참여가 '이듬해'에 주생이 송도에 머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듬해' 이전에 주생은 유격장군에게 선발되어 서기의 임무를 맡아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이는 선화와의 이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격장군은 주생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듬해'에 '나'는 주생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한다는 점에서 주생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인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07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③**

'날이 저물면 문을 닫고 온갖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었으니, 제 몸이 이렇듯 수척하게 된 것도 모두 낭군 때문입니다.'에서 주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지냈던 선화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알맞은 한자 성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이다.

[오답 풀이]

① '고군분투'는 '외로이 떨어져 있는 군사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운다는 의미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사고무친'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

④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하는 말이다.

⑤ '진퇴양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말이다.

08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이 글은 내화와 외화의 액자식 구성을 보이는데, 주생과 선화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내화의 마지막 내용은 주생이 군대를 따라 남하하지 못하고 송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말 처리 방식은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미완성으로 남겨 둠으로써 작품의 여운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한다.

Q 액자식으로 소설을 구성하는 까닭은 뭔가요?

A 액자식 구성은 외화 안에 내화가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핵심적 의미나 주제는 내화에 있다고 보면 돼요. 내화만으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음에도 외화라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내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원래 허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외화는 내화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화가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처럼 느껴지게 하여,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요. 이러한 특징과 효과를 잘 알아 두면 작품의 전체 구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09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보기〉에서 '약수'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로 화자에게 인식되고 있다. [A]에서 '낭원'과 '영주'는 '구름'과 '바다'로 막혀 있지만, 화자가 닿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구름'과 '바다'는 고향과 선화에게 가고자 하는 주생의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04강 숙향전(淑香傳)

본문 028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⑤ **05.** ③ **06.** ⓐ와 ⓑ는 모두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에서는 숙향이 성숙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라는 특징을, ⓑ에서는 숙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07.** ③ **08.** 숙향은 상서의 지시로 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여기에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겪는 혼사 장애 설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A]는 숙향이 혼사 장애로 인한 고난을 겪을 것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숙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방 원통의 말을 통해 상서의 명을 받은 원님이 숙향을 죽이고자 했다는 내용과 전날 죽이지 못하고 오늘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사건 발생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초현실적 인물인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을 뿐, 인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③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반은 죽은 사람이라.'와 같이 외양 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 전개의 사실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숙향이 후토 부인을 만나는 사건과 그 이후 숙향의 소식을 들은 이선이 숙부인에게 전하는 장면, 숙향이 문초를 당하는 장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나란히 제시하여 사건 간 연관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 **Q 사실성의 부여가 뭔가요?**
>
> **A** 고전 소설에서 사실성의 부여는 허구적 속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의 본질로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예요. 흔히 실존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나 실제의 연도와 같은 시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장치들을 활용하면 독자들은 작가가 창작한 이야기일지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잘 알아 두면 선지와 지문의 요소를 대응시켜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0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③**

㉰에서 숙향은 부모가 난중에 죽었다면 시왕전에 올 것이고, 그렇다면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후토 부인에게 묻고 있다. 이는 숙향이 자신의 부모가 피난 과정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후 세계에서 재회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함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숙향은 명사계의 선녀에게 안겨 전각 앞에 이른 후에도 영문을 몰라 어찌할 줄 모르고 울고 있었을 뿐,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예상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서 후토 부인은 은혜를 갚겠다는 숙향에 대해 이를 정중히 사양하면서 잔치를 열어 주고 있다.

④ ㉱에서 숙향의 소식을 들은 숙부인은, 크게 놀라 통곡하는 이선과 달리 성급히 굴지 말라고 말하며 일의 자초지종을 차분히 살피려는 모습을 보인다.

⑤ ㉲에서 숙향은 김전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한 채 김전의 문초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밝히고 있을 뿐, 김전에게 자신이 딸임을 눈치채게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숙부인은 "선이 비록~아시게 하리라."라고 말한 후 즉시 행장을 차려서 황후가 있는 장안으로 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한 것이 아니라, 숙부인 본인이 직접 황후에게 아뢰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땅은~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를 통해 후토 부인은 파랑새를 보내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후토 부인은 숙향에게 경액을 먹게 하여 숙향이 자신의 전생을 깨닫게 하고, "저는 한낱~어찌 하시나이까?"를 통해 숙향이 월궁의 선녀였으나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존재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한편 이선은~죽으리라고 하더라.'를 통해 이선은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서 숙향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부인의 말을~이 상서에게 회보하니라.'를 통해 김전은 아내 장 씨의 말을 옳다고 여겨 수용하면서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 여자의~처치하게 하오소서."를 통해 김전의 아내인 장 씨는 숙향이 자신의 죽은 딸과 얼굴과 이름, 나이가 같음을 알고 죽은 자식이 살아서 온 것 같은 마음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

04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에서 후토 부인은 숙향이 궁금해하는 부모의 생사에 대해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다며 틀림없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숙향의 부모도 천상계의 인물로 인간 세상에 귀양 간 것이므로 기한이 차도 봉래로 가지 명사계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후토 부인은 '선녀께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숙향을 자신보다 고귀한 존재로 높여 부르고 있다. 또한, 숙향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전생의 일을 모르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숙향의 과거 일화를 언급하거나 이를 현재의 모습과 대비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에서 숙향은 자신을 알아보겠냐는 후토 부인의 물음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다는 자신의 상황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문을 갖는다거나 이를 감추고 있지는 않다.

③ ㉢에서 후토 부인은 자신이 이전에 잔나비와 황새 등을 통해 숙향을 도와주었다는 일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에서 숙향은 후토 부인의 시비라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으나, 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발화일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이 없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숙향이 "첩이 전일~하더니 그러하오이까?"라고 후토 부인에게 묻는 내용 중 명사계는 천상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명사계는 〈보기〉에 따르면 천상계와 지상계 간 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향의 물음은 천상계라는 공간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난 극복 후의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고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숙향이 '첩은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라고 말하는 모습은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숙향이 '월궁의 으뜸 선녀'임에도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은 높은 신분의 인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다는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숙향의 부모가 봉래산의 선관 선녀였으나 인간 세상에 귀양을 왔다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보기〉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토대로 인물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숙향의 부모가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러한 〈보기〉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Q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의 순환 구조가 뭔가요?

A 고전 소설에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등장하는 이원적 구성은 일반적으로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존재가 그에 따른 형벌로 지상계로 내려가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순환 구조란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에서 머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천상계로 복귀하는 것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용어예요. 지상계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죄를 씻게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숙향전」을 비롯한 천상계와 지상계 사이의 순환 구조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은 위와 같은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간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해요.

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와 ⓑ는 모두 전지적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숙향이 성숙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고, ⓑ에서는 숙향이 처한 극심한 위기 상황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0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경액'을 먹은 후에 숙향은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를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된다. 이는 '경액'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한 숙향이 자신의 지난 일을 자각하게 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지만, '경액'을 통해 숙향이 후토 부인과의 과거 인연을 자각하게 되는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랑새'는 피난을 하던 중에 부모와 헤어진 숙향에게 우연히 날아들어 꽃봉오리를 전해 주며 숙향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파랑새'는 숙향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우연히 등장하여 고난 해소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꽃봉오리'를 먹은 숙향은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의 변화는 〈보기〉에 따르면, '꽃봉오리'가 전기적 사건의 장치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혈서'를 통해 숙향의 사연을 알게 된 숙부인은 상서가 자신에게 묻지 않고 자신을 과부라 업신여김을 문제 삼으며 상서와 갈등을 빚게 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혈서'가 인물 간 갈등 구도를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회보'는 아내 장 씨의 말을 반영한 '이 사연'을 담은 것에 해당한다. 아내 장 씨는 '그 여자'(숙향)로 인해 자신의 딸이 생각나 슬픔을 느끼게 되면서 숙향을 죽이는 것을 미루고 상서에게 기별할 것을 김전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김전은 부인의 말을 옳게 여기고 회보를 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회보는 숙향의 고난 극복 과정에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08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A]에서 후토 부인은 숙향이 앞으로도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략' 이후의 내용에서 숙향이 상서에 의해 옥에 갇혀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선과 숙향이 사랑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상서에게 방해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겪는 혼사 장애 설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후토 부인의 말은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강

운영전(雲英傳)

본문 033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① **06.** 시에는 시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07.** ③ **08.** 운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만 운영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내화와 외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화는 작중 인물인 운영이나 김 진사가 경험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내화의 일부로, 운영이 서술자로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배경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운영이 서술자로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운영은 대군이 일찍이 자신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보인 적이 없으나 궁중 사람들은 모두 대군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궁중 사람들은 대군이 운영 앞에서 운영을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군은 진사의 재주를 매우 칭찬하며 진사가 지은 시 두 편을 사람들에게 내보였다.

③ 운영은 김 진사에게 시와 금비녀를 전달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 벽에 구멍을 뚫어 편지를 전달했다.

④ 운영은 자란에게 김 진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것이 줄어 옷과 허리띠가 헐렁해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⑤ 운영이 김 진사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 못하겠느냐고 묻자 자란은 어슴푸레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고 말하였다.

03 [삽입 시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얼굴 씻으매' 흐르는 '눈물'은 운영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란은 운영이 속마음을 털어놓은 궁녀로, '눈물'이 자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운영의 시에서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는 김 진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는 김 진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김 진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김 진사에 대한 운영의 호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주렴 사이로만 바라보나니'는 운영이 김 진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나타낸다. 즉, 김 진사를 어렵게 볼 수밖에 없는 운영의 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월하노인의 인연 어디 없는지?'는 김 진사와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즉,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소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처지에 대한 운영의 한탄이 드러나고 있다.

⑤ 토론 중에도 답답함을 느끼며 병풍에 기대어 말이 없던 운영의 속마음은 시에서 거문고를 타며 드러내는 한스러움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Q 삽입 시의 기능이 뭔가요?

A 고전 소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시를 '삽입 시'라고 불러요. 이러한 삽입 시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거나, 등장인물이 놓여 있는 상황과 사건의 정황을 요약해 제시해 주지요. 또한,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와 예언이 되기도 해요.
「운영전」에서도 운영이 진사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에는 진사를 향한 연모의 정과 만날 수 없는 진사와의 인연을 한탄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어요.

04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A]에서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군께 의심을 받으니 첩은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는 운영이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B]에서 '너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 마음을 안단 말이니? 지금 막 시 한 편을 지으려는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고심하느라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야.'도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운영이 [A]와 [B] 모두에서 자신의 진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대군은 자란의 시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궁녀들의 시도 맑고 좋은데 유독 운영의 시만은 서글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A]에서 대군은 '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서 가리고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대군이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운영의 대답이 진실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나타낸다.

③ [B]에서 토론 중에 혼자 병풍에 기대어 흙으로 빚어 놓은 인형처럼 근심스레 말이 없는 운영의 모습을 보고 소옥은 '주군에게 의심을 받더니 그 때문에 근심스러워 말이 없는'지를 묻고 있다.

⑤ [B]에서 은섬은 '어딘가 뜻이 향하는 곳이 있어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니'라고 물으며 운영이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어디 내가 한번 맞혀 볼까?'라고 하며 운영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 아닌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05 [서술 시점의 변화 효과] 정답 ①

[C]는 1인칭으로 작중 인물인 운영의 입장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3인칭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술하여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는 진사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진사의 내면과 관련해 '연거푸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다'는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③ [C]에서는 편지를 본 진사의 심리를 자세히 서술하였지만, 〈보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행동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④ [C]와 〈보기〉 모두 운영의 행동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운영과 진사의 심리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06 [문맥적 의미 이해]

㉠은 시는 시를 지은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 준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다. 이는 시에는 시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궁녀들은 궁녀들의 원망을 담은 옛사람들의 시 중 어떤 작품이 훌륭한지 토론을 벌였다. 이는 자신들이 억압된 삶 속에서 느낀 심정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옛사람들의 시 중에서 찾아 논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녀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원망, 한 등의 정서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문학 작품에서 억압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찾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운영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대군은 '준엄히 캐물을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운영이 대군 외의 다른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② 운영 스스로 궁녀가 다른 남자를 사모하는 것을 죄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④ 운영이 김 진사를 '문틈으로 엿보고 했'던 것은 궁녀로서 김 진사를 떳떳하게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애 때문에 운영은 김 진사와의 사랑을 힘들게 이어 갔다.

⑤ 김 진사는 운영에게 답장을 보낼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이는 그만큼 궁녀와 궁 밖의 사람이 소통하는 일이 어려웠음을 나타낸다.

08 [인물의 심리 파악]

㉡을 통해 진사의 얼굴이 수척해지고 예전의 기상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사가 운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운영과 연락해 만날 수가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 식음을 전폐해 ㉡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다.

06강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본문 038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 허 판서의 첩, ㉯ 장필성에 대한 지조 **07.** ⑤ **08.** 장필성을 향한 지조를 끝까지 지켜 나가려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허 판서와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김 진사가 옥에 갇히게 되자 이 부인은 평양으로 채봉을 찾아와 김 진사를 구출하기 위해 함께 서울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채봉은 그것을 거절하고 김 진사를 구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자 고심한다. 이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묘사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을 현재의 사건과 교차해 제시함으로써 서사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

③ 인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을 과장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김 진사가 옥에 갇히는 사건에 대응하는 여러 인물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인물들의 공통된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과 재회한 후,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했다. 이는 도망 온 대강의 사연을 이 부인에게 말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부인은 '우리 집이 오늘날같이 불시에 망할 줄을 꿈에나 생각하였을까?'라고 말하였으므로, 재물을 잃은 것을 채봉의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②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 온 후 취향의 집에서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③ 김 진사는 채봉을 찾아 데려오겠다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 판서는 김 진사를 옥에 가두었다.

⑤ 김 진사는 칙지를 받고 싶어 했으나, 허 판서에게 돈을 주지 못했고 채봉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칙지를 받을 수 없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허 판서는 ㉠을 이용해 자신의 세도를 드러내며 욕심을 채우고 있다. 이는 자기 마음대로 현감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은 허 판서가 김 진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허 판서는 김 진사가 돈을 가져오고 채봉도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 내어 주려 한 것이다. 김 진사를 향한 허 판서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은 김 진사에게 벼슬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딸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을 인식하는 김 진사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은 허 판서와 김 진사가 벼슬을 팔고 살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까닭은 김 진사가 재산을 잃어 허 판서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채봉마저 사라져 첩으로 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허 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인물로 다른 사람의 고초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응, 그게 무슨 소리냐? 풍파를 겪다니?"라는 말을 했지만, 김 진사의 전후 사정을 듣고 조금도 가엾은 생각을 갖지 않고 김 진사를 나무라고 오히려 옥에 가두었다.

[오답 풀이]

① 허 판서는 김 진사를 보고 반기며 노독 걱정까지 하고 있다. 이는 김 진사가 자신이 원하는 돈, 첩(채봉)과 함께 왔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김 진사에게 호의를 보인 것이다.

② 김 진사는 허 판서가 내준 현감 칙지를 보고 가슴이 주저앉았다. 이는 채봉이 사라지고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겨 현감 칙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절망감을 나타낸 것이다.

④ 김 진사는 "대감 위력이나 빌어 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딸을 찾는 데 허 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음을 나타낸다.

⑤ 허 판서는 하인에게 김 진사를 구류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라고 말했다.

05 [구절의 의미, 효과 이해] **정답 ⑤**

ⓔ는 채봉의 내적 독백으로, 채봉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는 이 부인의 내적 독백으로, 이 부인은 채봉이 취향의 집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에서는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자연의 모습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초췌해진 이 부인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는 의문의 진술로, 재산도 잃고 김 진사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부인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는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붙잡혀 있는 절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0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B]에서 채봉은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여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자신이 상경을 해서 허 판서의 첩이 되면 부모를 구할 수 있지만 장필성에게는 지조를 지키지 못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양에 남으면 부모가 환란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채봉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모를 구할 수 있는 돈을 주면 종노릇이든 기생 노릇이든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채봉은 상경하던 중에 몰래 도망을 쳐 평양으로 왔다. 채봉은 평양으로 온 이 부인을 다시 만나 부모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김 진사가 옥에 갇힌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채봉이 도적이 만날 것을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채봉이 상경하던 중에 평양으로 돌아온 것은 허 판서의 첩이 되지 않고 장필성과의 혼약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채봉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② 채봉은 종노릇이나 기생 노릇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허 판서는 현감 자리를 돈을 받고 팔고 있다. 그리고 김 진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김 진사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러한 횡포로 채봉의 집안이 고통을 겪고 있다. 즉, 허 판서의 매관매직과 횡포는 조선 후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김 진사는 딸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에서 채봉은 서울로 올라가자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이는 장필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07강

매화전(梅花傳)

본문 043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① **06.** ⑤ **07.** 장단골 연화동은 조 병사에게는 매화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곳이자 최씨 부인의 간계에 속는 곳이며, 최씨 부인에게는 매화의 근본을 왜곡할 수 있는 곳이다. **08.** ③ **09.** ㉮ 양유와 매화의 혼인, 근본, ㉯ 매화, 계략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중략〉 이전에는 '조 병사와 최씨 부인의 대화 → 조 병사와 연화동 사람들의 대화 → 조 병사와 최씨 부인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양유와 동자의 대화 → 매화와 매화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상을 빗댄 우의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대화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양유가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동자는 양유에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양유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유가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최씨 부인이 자기 동생에게 장단골에 먼저 가서 근처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조 병사가 매화의 근본을 잘못 알게 만들라고 말하자, 동생은 조 병사보다 먼저 장단골에 갔다.

②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매화는 방 안에 양유가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④ 주모는 조 병사 앞에서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⑤ 조 병사는 양유에게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매화가 양유와 함께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양유는 방 밖에 있는 낭자가 매화인 줄을 모르고 살기 위해 낭자에게 사배를 한다. 그러던 중 양유는 갑자기 방 안으로 날아 들어온 ㉠(봉서)을 보고는 낭자를 유심히 보며 상대가 매화와 흡사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양유는 매화가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매화라 쉽게 단정 짓지 못한 것이다. 양유의 말을 들은 매화는 얼굴을 들어 양유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으로 인해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② ㉠은 양유와 매화가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양유와 매화는 ㉠을 통해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⑤ 양유와 매화는 ㉠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을 통해 두 사람이 해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매화는 어머니에게 방에 죽어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방 안에 양유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는 양유를 향한 매화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화가 양유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오답 풀이]

① 조 병사가 매화의 근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신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② 최씨 부인은 매화를 자기 동생과 혼인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는 최씨 부인이 간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조 병사가 '매화는 천인 자식이라 내쫓으라.'라고 말한 것은 매화를 천인의 자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⑤ 양유는 매화에게 '네가 죽은 혼이냐.'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유는 매화가 죽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0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A]의 '정신 산란한지라', '범이 오는가 하고', '귀신인가 의심할 제' 등은 양유의 내면 심리 상태를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B]의 '실로 꿈만 같은지라', '귀신이냐, 호랑이냐', '행여 살려 줄까' 등도 양유의 내면 심리 상태를 진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A]의 '창천에 월색은 명랑한데'는 배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물에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B]에서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A]와 [B]는 모두 인물이 겪은 과거의 일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에는 서술자의 논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에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에만 문득 광풍이 일어나며 방문이 열려 '봉서'가 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06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⑤**

양유는 범에게 잡혀 어떤 방에 갇히게 된다. 양유는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알지 못하며, 방 밖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매화와 만나 재결합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조 병사는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진행하기 전에 최씨 부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② 최씨 부인은 자기 동생의 혼처로 매화를 탐내고 있다. 이에 간계를 내어 양유와 매화의 혼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다.

③ 조 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가 천인의 자식임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매화와 만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④ 매화는 양유와 헤어진 상태에서 양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지냈다.

07 [배경의 기능 파악]

조 병사는 매화의 근본을 알기 위해 장단골에 가서 매화의 아버지에 대해 수소문을 하다가 최씨 부인의 간계에 속고 있다. 최씨 부인은 조 병사가 장단골에 갈 것을 알고 자기 동생을 먼저 보내 사람들을 매수함으로써 매화의 근본을 왜곡하고 있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조 병사는 최씨 부인의 간계에 속아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믿게 된다. 이는 '속이고 속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는 말을 조 병사가 믿음으로써 양유와 매화의 혼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통해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는 주모의 말을 믿는 조 병사의 모습이 서사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자는 양유에게 여자 혼신이 들어와 절하거든 맞절하라고 알려 주고 있다. 이는 동자가 양유의 방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조 병사는 관상쟁이로부터 여러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조 병사가 '앞으로 닥칠 길흉'을 모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매화가 양유의 방에 들어갔는데, 이는 매화의 어머니가 매화를 속여

서가 아니다.

⑤ 최씨 부인은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시켜 장단골에 가서 매화의 근본을 천인의 자식으로 바꾸라고 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최씨 부인이 매화의 근본을 몰랐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대화의 특징 파악]

최씨 부인은 매화를 자기 동생의 혼처로 탐내고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막기 위해 ㉮에서 매화의 근본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자 조 병사는 매화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 장단골로 가고, 장단골에서 조 병사가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알고 오자 최씨 부인은 천인의 자식이라면 양유와 혼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에서 다시금 은연 중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화를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계략을 감추고 있는 말로 양유와 매화의 혼인을 막기 위해 한 말이다.

08강

춘향전(春香傳)

본문 048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09.** ㉯ 아니꼬워, ㉰ 절망적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펄펄, 부글부글, 담쏙, 벌렁벌렁, 뽀드득, 탕탕' 등의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위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몽룡이 서울로 떠나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춘향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배경 묘사를 통해 감정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춘향과 몽룡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건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④ 사또나 춘향 어미의 말에서 몽룡과 춘향의 긍정적 면모를 부각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현재의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지 않다.

Q 음성 상징어가 뭔가요?

A 음성 상징어는 '멍멍'처럼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와 '아장아장'과 같이 모양을 흉내 내는 의태어를 말해요. '음성'이라는 말 때문에 소리만을 흉내 낸 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말을 통틀어서 가리킨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따라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인물의 행위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도련님은 어머니께 심하게 꾸중을 들은 후 춘향의 집에 와서 '너를 버리고 갈 터이니 내 아니 답답하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도련님이 남원에서 더 이상 춘향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고 서울로 떠나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춘향 어미는 춘향이 도련님과 이별하게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③ 모친은 도련님에게 '양반 자식이 부형 따라 지방에 왔다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한다.'고 말했다.

④ 사또는 자신의 승진 소식을 들은 아들이 슬퍼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짐을 꾸려 서울로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

⑤ 춘향은 도련님이 서울로 떠나더라도 자신이 서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0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은 춘향이 당대의 사회 현실 및 그로 인한 신분의 차이를 자각하고 보인 반응이다. 그러므로 ㉠을 현실을 비판하려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에서 춘향은 도련님의 첩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춘향의 욕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에서 도련님은 춘향이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춘향의 욕망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를 나타낸다.

④ ㉣에서 춘향이 보이는 격한 반응은 욕망의 좌절에 따른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춘향이 존비귀천이 원수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신분상의 문제가 춘향의 욕망을 좌절시킨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04 [서술상의 특징 비교] **정답 ④**

도련님은 아버지의 승진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로 바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를 보면, 이 상황에서 도련님은 춘향에 대한 생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B]에서 춘향은 도련님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안절부절못하고 붉으락푸르락 눈을 가늘게 뜨고 눈썹이 꼿꼿해지면서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며 매가 꿩을 차듯 앉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표정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A]와 [B] 모두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인물의 공격적인 행동을 매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A]에서는 인물의 처지를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는 한편으로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진술을 통해 아버지의 승진을 대하는 인물의 이중적인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인물의 이중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A]와 [B] 모두에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물의 불합리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5 [인물의 발화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사랑에 병이 들어 애통해하다가 죽게 되면 가련한 내 영혼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될 것이니, 존귀하신 도련님께 그것은 어찌 재앙 아니리오?'와 같은 말을 통해 미래의 상황에 대한 춘향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도련님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웬 핑계요', '가실 때는 톡 떼어 버리시니', '모질도다', '독하도다' 등과 같이 말하는 데서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도련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춘향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② 춘향은 도련님이 과거에 굳은 언약을 어기지 않겠노라고 만 번이나 맹세를 했는데, 현재는 자신을 버리고 간다면서 원망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춘향은 '낭군 없이 어찌 살꼬. 가을 길고도 깊은 밤 외로운 방에 홀로 님 생각 어찌할꼬.'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춘향이 도련님이 떠나고 난 뒤 자신의 외로운 처지에 대해 한탄한 것이다.

④ 춘향은 '존비귀천 원수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와 관련해 사회의 신분 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춘향이 '거울이며 빗이며 두루 치'며 '자탄가'로 우는 것은 도련님과 이별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을 표출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분 상승 욕구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도련님과 아버지, 춘향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는 장면적 제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면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도련님과 춘향이 이별하는 사건의 요인으로 도련님의 아버지가 승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부승지로 승진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도련님과 춘향의 이별을 있을 법한 사건으로 만들고 있다.

④ 도련님이 춘향에게 이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양반가의 도련님과 기생의 딸인 춘향의 사랑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⑤ 모친은 '기생집에서 첩을 만나 데려가면 앞날에도 좋지 않고 조정에 들어 벼슬도 못 한다'고 도련님을 꾸짖었다. 이는 입신양명을 할 때 기생과의 교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던 당대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관련된 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 ③**

ⓐ에서 춘향은 도련님이 굳게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자신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련님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한자 성어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의미의 '일구이언'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④ '정저지와'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뜻으로,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천생연분'은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을 이르는 말'이다.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공연의 현장성이 묻어나는 문체를 사용한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는 것이다. ㉮에서 '들어간다', '간다' 등은 현재형 시제로 서술되어 사건의 현재성을 나타냄으로써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09 [인물의 심리 파악]

㉯는 '분한 일을 당하여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독기가 서린다'는 뜻의 속담으로, 춘향 어미의 앞말로 보았을 때 둘이 사랑싸움을 하는 줄 알고 그 모습이 아니꼽다는 의도로 한 말이다. 그리고 ㉰는 춘향 어미가 춘향이 도련님과 이별하게 된 것을 알고 춘향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죽는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심정이 절망적임을 나타낸다.

09강 최고운전(崔孤雲傳)

본문 053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③
08. 소저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일부러 상대의 청을 거절하여 상황을 협상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09.** 시를 짓지 않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할 것을 제안하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중국 황제가 신라 왕에게 석함 안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고 신라 왕은 이를 다시 나업에게 해결하라고 명한다. 나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근심하는데, 이를 알게 된 파경노는 소저를 찾아가 자신이 소저의 근심을 없애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뒤 소저는 나업에게 파경노의 재주를 언급하며 파경노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파경노와 소저의 대화, 나업과 소저의 대화를 통해 나업에게 주어진 과제, 즉 신라 왕이 나업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령한 사건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가 뒤바뀌어 제시되는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으나,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물을 희화화하여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만 다루고 있으며, 꿈과 현실의 교차는 확인할 수 없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으면 후한 상을 줄 것이라고 한 승상 나업의 제안에 대해 파경노는 시 짓기를 못 하겠다며 거절하였다. 그런데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점, 파경노가 소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경노의 거절은 파경노가 진심으로 시를 짓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저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이는 나업의 딸인 소저의 재예에 대해 듣고 거울 고치는 장사로 꾸며 승상의 집에 찾아갔다. 이때 아이는 헌 옷으로 갈아입으며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면모를 보인다.

② 천상의 선관들은 천상계 인물들이므로, 그들이 말 먹일 꼴을 파경노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파경노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③ 파경노가 화초를 기른 뒤 화초가 무성하고 조금도 시들지 않으며 상서로운 새인 봉황까지 날아들었다는 것은 파경노가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④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 하나 부끄러움을 느껴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파경노는 승상에게 노모를 뵙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향하지 않고 동산에서 소저를 기다렸다가 만남을 가졌으므로,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은 것은 소저와의 만남을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아이가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린 것은, 이 사건을 핑계 삼아 승상 집의 종이 되어 앞으로 소저와 인연을 맺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승상 나업의 집에 들어가고자 한 행동으로, 승상의 눈에 띄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③ 나중에 승상 나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이를 위해 거울을 깬 것은 아니다.

④ 소저와의 만남을 위한 것이지 소저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소저와의 인연을 맺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일 뿐, 소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 행동은 아니다.

0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이 글의 내용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인물인 주인공(최고운)이 소저와의 인연을 맺고자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하여 승상 집에 들어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을 신분이 낮은 인물로 위장하였으나, 주인공이 신분 상승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주인공이 부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현실 세계로 쫓겨난 인물이라는 내용이나 이러한 사실을 주인공이 확인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주인공은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인물로 평범한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0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비범한 용모와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 사실을 승상에게 말하여 험한 일을 시키지 않도록 청하였다. 따라서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경노'라는 이름은 주인공이 일부러 거울을 깨뜨려 승상 집의 노비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② 천상의 선관들은 스스로 찾아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파경노에게 줌으로써 파경노에게 맡겨진 일을 도왔다.

④ 소저는 파경노가 노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나 동산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꽃을 보기 위해 동산을 찾았다.

⑤ 소저는 파경노가 승상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승상에게 시를 짓는 일을 파경노에게 맡기도록 청했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는 아이가 소저의 집에 들어가 소저와 인연을 맺기 위해 일부러 깨뜨린 것으로, 결국 아이는 승상 집의 노비가 되어 소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는 꽃을 들고 소저를 찾아온 파경노의 모습을 비춰 주는 소재로, 소저가 이를 통해 자신을 찾아온 파경노를 발견한다. 따라서 ⓑ는 파경노가 자신의 존재감을 소저에게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와 ⓑ 모두 소저의 환심을 얻기 위해 활용한 도구는 아니다.

② ⓐ와 ⓑ 모두 파경노가 소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③ 아이가 소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가 활용된 것은 맞다. 그렇지만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 ⓑ가 계기를 만든 것은 아니다.

⑤ ⓐ와 ⓑ는 모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거나 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0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지어야 하는 '시'는 승상 나업에게 주어진 과업으로 승상의 내적 고뇌를 유발하는 어려운 문제이다(ㄱ). 그렇지만 소저는 이 과제를 파경노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ㄷ). 또한 파경노도 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소저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ㄹ). 그렇지만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이 시를 읊은 것은 아니다.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파경노는 승상에게 시를 짓는 조건으로 자신과 소저가 부부의 연을 맺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파경노가 바로 시를 짓지 않고 승상을 애타게 만든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즉 소저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일부러 승상의 청을 거절하여 상황을 협상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 [대화의 특징 파악]

소저는 옛날 사형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승상에게 시를 짓지 않을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하면 파경노가 시를 지으라는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10강 유충렬전(劉忠烈傳)

본문 058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⑤
08. (1) 서술자의 개입 (2) 반가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 승상이 살아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이 크지만, 천자가 역적의 말만 믿고 충신을 귀양 보낸 과거의 일에 대한 미안함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09.** 정한담, 최일귀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⑤**

천자가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인 유심을 귀양 보낸 일에 대한 유충렬의 한탄에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천자는 자신의 과오를 알고 후회하고 있다. 다만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천자가 적장의 머리를 베어 들고 오는 장수를 보고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말하는 것에서 장수, 즉 충렬에 대한 천자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데, 결말 부분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천자를 구했을 당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군사들이 유충렬의 슬픔에 공감했음을 의미한다.

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에서 유충렬이 태자의 말과 모습에 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마음을 천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02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③**

[B]에서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는데,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라며 천자의 이전 행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유충렬은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원통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태자는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라고 보답의 의지를 보이며 유충렬에게 원망을 풀고 천자를 위해 싸워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⑤ 태자는 유충렬에게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유충렬이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유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모친을 만나서 함께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남적의 소멸)가 가족 위기의 해소(모친과의 상봉)로 이어지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유충렬이 천자에게 말한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친 유심의 유배가 유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된다.

② 〈보기〉에서 두 번째 시련은 강희주와 간신의 갈등이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유충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③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 위기의 해소로,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 위기의 해소에 해당한다.

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독자 반응의 추리] **정답 ②**

정한담은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을 모함하고 남적의 선봉장이 되어 명나라를 공격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유충렬에게 패한다. 따라서 천자의 신임을 두고 정한담과 유충렬이 벌이는 지략 대결이 치열하다는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을 갔던 충신 유심과 강희주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독자 반응은 적절하다.

③ 유충렬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천자는 두 번씩이나 위기를 모면하게 되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④ 유충렬의 드높은 기개와 변치 않는 충성심이 사건을 이끌고 있으므로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려 본받게 하겠다는 독자 반응은 적절하다.

⑤ 유충렬의 활약으로 연왕이 된 유심은 십 년 전에 헤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장 부인과 반갑게 해후하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0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는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어찌 폐하를 돕지 않겠습니까?"이다. 여기에는 천자를 돕겠다는 유충렬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기도 하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는 천자를 도와주면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다는 태자의 말을 듣고 나서 유충렬이 하게 된 말이다.
② ⓐ는 앞으로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유충렬의 다짐을 담고 있다.
③ ⓐ는 천자의 마음에 큰 감명을 줌으로써 천자가 직접 계단 아래로 내려와 유충렬에게 투구를 씌워 주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④ ⓐ에는 앞서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천자에게 원망을 표출했던 것을 죄스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C]는 인물 간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십 년 만에 해후하게 된 인물의 벅찬 심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특성이 아닌 인물의 반가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③ 시대적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는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심리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⑤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건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역사적 관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영웅으로 성장한 인물인 유충렬이 천자를 구한 후에 과거에 정한담 일행의 모함으로 자신의 부친과 장인이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천자의 과오로 인한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밝혀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속담과 옛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나 이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강조한 '서술자의 개입'이다. 문맥상 태후는 강 승상이 반가우면서도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귀양을 보낸 강 승상이 살아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된 반가움도 크지만, 천자가 역적의 말만 믿고 충신을 귀양 보낸 일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09 [인물의 성격 파악]

유충렬이 천자에게 과거 유심과 강희주에 관한 일에 대해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이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라고 한 말을 통해, 충신 유심과 강 승상을 모함하고 천자를 몰아낼 음모를 꾸민 간신이 정한담과 최일귀임을 알 수 있다.

Q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 구조가 뭔가요?

A 영웅 소설은 일반적으로 '고귀한 혈통–비정상적 출생–탁월한 재능–위기–조력자에 의한 구출 및 양육–성장 후 위기–고난 극복 및 승리'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유충렬전」도 이와 같은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죠. 현직 고관 유심의 아들로 태어난 충렬은 천상에서 하강한 인물로 탁월한 재능을 타고 나지만, 간신 정한담의 박해로 부모와 헤어져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때 조력자인 장인 강희주를 만나 양육되며 도승을 만나 도술을 배워요. 정한담이 호국과 함께 난을 일으켜 재차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영웅적 능력을 발휘해 고난을 물리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게 되지요.

11강 최척전(崔陟傳)

본문 063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② **07.** ② **08.** ㉮ 순행적, ㉯ 개연성, ㉰ 전지적 **09.** ⓐ 피리 소리를 듣고 시를 읊음. ⓑ 다음 날 일본인 배를 찾아가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었냐고 물어봄.

01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②

안남의 강어귀에서 최척이 피리로 조선의 곡조를 연주하자, 귀에 익은 피리 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이 그리워서 자신이 남편과 있을 때 창작했던 시를 조선말로 읊는다. 이 소리를 들은 최척은 아내가 손수 지은 시였음을 떠올리며 일본인의 배를 찾게 되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봉에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가 매개가 된다. 즉, 피리 소리와 옥영의 시라는,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두 인물을 상봉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외한 조선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두 사람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성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돈우의 오해가 아닌 전란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두 사람의 상봉을 환영한다. 한편 돈우는 두 사람의 상봉

으로 인해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 이별함을 슬퍼하지만,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두홍이 최척의 딱한 사연을 듣고 자진하여 일본인 배에 가서 시를 읊은 이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최척이 간청한 것이 아니다. 다만 주우의 만류로 두홍은 결국 자기 뜻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최척은 일본인 배에서 들리는 염불 소리를 듣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 피리를 불게 된다.

② 최척은 조선말로 된 시를 읊는 소리가 일본인 배에서 들리자 고향에서 옥영이 읊었던 시였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옥영을 떠올렸다.

③ 최척은 전쟁으로 자신의 가족이 모두 왜군에게 잡혀가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음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⑤ 최척은 옥영을 만난 후에 헤어진 아버님과 장모님의 소식을 물었으나, 옥영은 그들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0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①**

[A]에 제시된 달밤의 풍경 묘사와 적막한 분위기는 애상감을 자아내어 인물의 슬픈 심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② [A]에 자연의 모습이 묘사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주인공의 초라한 모습이 부각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③ [A]에서 조용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의 쓸쓸함이 강화될 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A]에 속세를 벗어난 듯한 분위기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인공의 회의감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⑤ [A]가 초월적인 존재를 환기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배경의 의미, 기능 파악] **정답 ⑤**

밤에 최척은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 아내 옥영이 창작한 시구를 읊는 것을 듣고, 시를 읊는 이가 혹시 아내가 아닌지 궁금하게 여긴다. 그리고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아침이 되어 최척은 시를 읊은 이가 아내였음을 확인하고 아내와 상봉한다. 따라서 밤에는 최척이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에는 두 사람의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된다.

[오답 풀이]

① 밤에 오고 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과는 상관없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운명과의 대결에서의 위기 조성과 해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 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은 아니다.

05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③**

'전대미문'은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이라는 뜻으로,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신출귀몰'은 '귀신같이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의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② '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의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 '천재일우'는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이므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⑤ '혈혈단신'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의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6 [발화의 의미 파악] **정답 ②**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로 미루어 볼 때, 돈우가 ㉡과 같이 말한 것은 그가 그동안 옥영을 특별히 생각해 왔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돈우는 갈 곳 없는 옥영을 보살펴 준 인물로, 그가 옥영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돈우는 옥영을 아껴 주었으나 옥영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돈우는 옥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그의 착한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아 ㉡처럼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돈우는 옥영에게 도움을 준 인물로, 옥영으로 인해 자신이 바라던 바를 얻은 것은 아니다.

0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밤에 옥영이 읊은 시는 최척과 옥영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 옥영이 짓고 읊었던 시이다.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쉰 것은 피리 소리를 듣고 떠올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이산과 유랑 이전에 지어진 것이므로,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고,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이므로, 이 글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와서이고,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조선이 아닌 타국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고 공감한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 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연한 만남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여러 공간에 걸쳐 펼쳐지는 사건을 작품 외부에 있는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다.

Q 실제 사건과 서사화한 이야기의 차이점은 뭔가요?

A 일상 세계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사건은 좀 밋밋할 수도 있고 우연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며, 불필요한 사건들이 수시로 개입하기도 해요. 그러나 소설에서 서사화된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아야 해요.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한 사건들만 배치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그 비중에도 차이를 두지요. 그러면서 앞뒤 사건의 개연성이 드러나도록 사건을 구성하고 시간적 순서도 재배치해요. 특히 역사 소설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지만 필요에 따라 사건의 순서를 조정하고 허구적인 사건을 삽입하기도 하며, 장면의 확장과 축소 또는 생략을 통해 흥미롭게 이야기를 재조직해 가요.

09 [사건 전개 양상 파악]

일본인 배 안에서 옥영은 최척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에 젖어 시를 읊게 된다. 그 소리를 들은 최척은 일본인 배에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본인 배를 찾아가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었냐고 직접 물어봄으로써 최척과 옥영은 드디어 재회하게 된다.

12강 임장군전(林將軍傳)

본문 06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주인공이 주어진 역경을 이겨 내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됨으로써 영웅성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된다. **08.** ④ **09.** 상에게 경업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사실을 알려 주어, 상이 경업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자점의 잘못을 바로잡게 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임경업과 김자점 사이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인물 간 갈등이 형성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주제 의식을 드러낼 만한 상징적 소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난 부분도 없다.

④ 서술자가 전옥 관원을 평가한 부분('전옥 관원은 강직한지라')에서 서술자 개입의 한 유형인 편집자적 논평이 활용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지적 시점이 유지되고 있어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경업은 자점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고 상의 꿈에 나타나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다고 알려 준다. 이에 상은 놀라 깨닫고 자점을 국문하여 자점이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자복하게 한다. 이로 보아 상이 꿈에 나타난 경업의 말을 듣고 자점을 국문하여 자복을 받아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점이 꾸며 낸 거짓 조서 때문에 경업이 옥에 갇히는데 강직한 전옥 관원이 경업을 불쌍히 여겨 이 사실을 경업에게 말한다. 이때 경업이 자점의 흉계를 알게 되므로 옥에 갇히기 전부터 자점이 거짓 조서를 꾸민 흉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옥졸은 옥에 갇힌 경업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도 자점의 부탁으로 물도 주지 않을 뿐이며, 자점의 부탁으로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대군은 경업이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자에게 경업의 거처를 묻는다. 이에 시자가 모른다고 하자 의심하여 바삐 입궐을 하는데, 이를 통해 대군이 자점의 흉계를 의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군이 경업을 만난 것은 아니므로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절도에 안치된 자점이 반심을 품는 등 불측지심이 나타나자 우의정 이시백은 이를 상에게 아뢰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우의정 이시백이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⑤**

'오늘을 당하와 천안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를 통해 볼 때, 임금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업이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는 현 상황을 상에게 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므로, 현 상황에 대한 수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간 일부터 의주에서 잡히게 된 일까지 자신의 행적을 순서대로 언급하여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②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무석이오나'와 같이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며 말문을 열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에 미리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북경에서 도망하여 명국을 도운 행위가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 오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자신의 행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④ '의주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와 같이 자신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잡혀 오게 되었음을 언급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제시하였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에 앞서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상이 두려웠다는 뜻이지 경업에게 받게 될 문책이 두려웠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자점은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을 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경업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경업이 감옥에 갇혀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은 전옥 관원의 말로, 경업이 자점의 흉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은 그동안 경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어 왔음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상이 경업을 반갑게 맞으며 청죄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⑤ ㉤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업을 걱정하는 대군의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다.

05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 ①**

주인공인 경업은 적대자인 자점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갈등 구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오답 풀이]

② 적대자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지만 지략 대결을 벌이는 것은 아니며,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는다.

③ 경업이 적대자를 직접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통해 벌하도록 하고 있다.

④ 경업의 신이한 성장 과정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⑤ 치열한 수련 과정을 통해 심신이 성장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④**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말을 듣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것이므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뜻하는 '선견지명'은 결말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결국 상이 악인을 벌함으로써 모든 일이 바로잡히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의 뜻을 가진 '사필귀정'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상은 자점 일당에게 죄를 물어 삼족을 멸하도록 하는 엄한 벌을 내렸다. 따라서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를 엄하게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함.'의 뜻을 가진 '일벌백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 자점 일당은 결국 자신들이 과거에 지은 죗값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선악에 따라서 뒷날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의 뜻을 가진 '인과응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죄를 지은 자들이 응징되는 것으로 작품의 결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의 뜻을 가진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07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일반적인 영웅 서사는 주인공이 탁월한 영웅성을 발휘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조력을 받아 주어진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이 글은 주인공이 주어진 역경을 이겨 내지 못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어 자신이 지닌 영웅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B]는 경업이 자점의 흉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가는 내용이다. ㉱는 자점의 흉계로 문외의 무사, 즉 심복들에 의해 경업이 박살 나서 죽임을 당한 일을 안타까워하는 평민층의 마음을 나타낸 필사기이다. [B]를 읽은 평민층은, ㉱를 통해 경업을 습격한 자점의 행동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점의 행위에 연민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와 ㉱를 고려할 때, 평민층이 연민을 드러내는 대상은 자점으로 인해 시련을 겪는 경업이다.

[오답 풀이]

① [C]는 경업이 자점으로 인해 결국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와 같이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럽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② [B]는 경업이 자점의 흉계로 심복들에게 난타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혀 금부로 가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식자층은 ㉯와 같이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다며 경업의 시련을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③ [C]는 경업이 자점 때문에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와 같이 '임 장군'이 '남의 손에 죽'는 것이 '천운'이라며 숙명론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경업이 자점의 손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경업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C]는 경업이 자점 때문에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를 읽은 평민층은 ㉲와 같이 '동국충신의 말임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하는 것이라며 경업과 같은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09 [서사적 장치의 기능 파악]

이 글에서 '꿈'은 주인공 경업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사실을 상에게 알려 주어 경업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자점의 잘못을 바로잡아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이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13강

조웅전(趙雄傳)

본문 07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조웅이 겪게 될 위기를 예고하여 조웅이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영웅적 활약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09.** (1)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2)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A]에서 원수는 나비를 따라 꿈속의 별세계로 들어간다.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등에서 보듯, 꿈속 공간은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곳으로 그려져 있다. [B]는 원수가 자신의 죽음에 관한 꿈을 꾼 후, 슬프고 상한 마음으로 행군을 하여 도달한 함곡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해가 지고 잔나비와 두견이 울고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함곡의 밤 풍경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에 들어가니 광활하였다며 공간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B]에서는 함곡의 어두운 분위기가 강조될 뿐, 시간의 흐름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A]에서 조웅이 날개를 얻어 공중에 나는 것은 비현실적 사건으로, 환상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B]에서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A]에서 조웅이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에서 깊이 들어가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은 곳에 가는 것을 공간적 변화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긴장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B]에는 계절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며, 쓸쓸함이 아닌 불안감이 강조된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는 제왕의 분부에 따라 각각 자신의 공적을 밝히는 글을 올린다. 그러나 각자의 공적을 밝히고만 있을 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②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웅이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다며 염려하기도 하고, 송 문제의 말에 조웅의 대운이 막히지 않았다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한다.

③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라며 나라를 걱정하고, 또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라며 희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④ '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각 소회를 다하고 칼을 빼들기도 하고 땅에 서거나 뛰거나 노래하고 또 춤추기도 하는 등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큰 잔치'에는 좌석에 사람이 가득 앉았으며 술과 음식이 가득하였다는 것에서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조웅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꿈속에서 '정해진 나이를 못 미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다,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다,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깨어난 후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조웅이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꿈속의 말대로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조웅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조웅의 꿈속에서 송 문제는 서번의 간계로 조웅이 위기에 처할까 하여 도사를 찾아가 조웅을 구하라고 부탁한다. 이는 조웅이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받게 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③ 조웅은 꿈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중 한 사람이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다고 말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조웅이 꿈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되는 것에 해당한다.

④ 조웅은 자신의 꿈속에서 서번이 간계를 꾸미고 있으며 송 문제가 도사에게 자신을 구하라고 부탁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꿈에서 깨어난 조웅은 노옹이 전해 준 천명 도사의 편지의 지시를 따른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조웅이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꿈속에서 알게 된 바가 현실에서 일어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꿈속에서 송 문제는 도사에게 조웅을 구하라고 부탁하였고, 이것은 현실에서 천명 도사가 노옹에게 자신의 편지를 조웅에게 전해 주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옹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4 [인물의 대화 이해] **정답 ⑤**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라고 하였으므로 조웅의 시운일수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고난 시운으로 인해 조웅이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를 통해 송나라 문제가 조웅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는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라는 좌중의 물음에 대해 답한 것이다.

③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를 통해 송나라 왕실의 운명과 관련해 조웅에게 거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④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을 통해 송나라 문제가 서번이 조웅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은 조웅과 노옹이 만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

데 노옹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나 이는 일상적인 옷차림이라고 볼 수 있고, 조웅과 노옹의 만남도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황금관을 쓰고 용포(임금이 입던 정복)를 입고 있는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왕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좌중들이 자신의 공적에 대해 나눈 대화가 더 많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은 새로 등장한 인물에게 예를 갖추는 인물들의 행동 묘사를 통해 새로 등장한 인물이 앞서 모여 있던 인물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에서는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복잡한 내면을 제시하여 조웅이 꿈속 일로 인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0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노옹은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조웅을 못 만날까 염려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웅과의 만남이 계획된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어 노옹이 마음을 졸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위홍창은 조웅의 명을 받아 선봉을 되돌려 함곡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였다.

② 위홍창의 말에 따르면 조웅의 명을 받기 전에 병사들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다고 했다. 따라서 조웅이 함곡에 들기 전에 군마를 쉬도록 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웅은 노옹이 건넨 편지를 보고 노옹의 말을 사실로 쉽게 받아들였다.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각각 자신의 공을 올리라고 하였지, 조웅의 탁월한 업적을 말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07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⑤**

ⓑ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상황이므로,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을 뜻하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②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 '점입가경'은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8 [소재의 기능 파악]

문맥상 노옹이 천명 도사에게 받았다며 조웅에게 건네준 '한 통 편지'는 조웅이 앞으로 겪게 될 위기를 예고함으로써, 조웅이 스스로 함곡에서의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영웅적 활약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한다.

09 [서사 구조의 이해]

주인공인 조웅은 자신이 앞으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꿈을 통해 암시받는다. 여기서 환몽 구조의 서사적 장치가 나타난다. 환몽 구조는 '입몽 – 꿈속 세계 – 각몽 – 현실 세계'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를 통해 조웅이 꿈속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고,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를 통해 조웅이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Q 환몽 구조가 뭔가요?

A 환몽 구조란 주인공이 입몽하여 꿈속에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체험한 뒤, 각몽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서사적 구조를 말해요. 여기서 '꿈'은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주인공이 꿈속에서 다수의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품도 그런 경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14강 소대성전(蘇大成傳)

본문 078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5.** ② **06.** (1) 호왕은 겸한이 장안을 공격하면 대성이 장안으로 향하게 될 것이므로 대성을 따돌리고 명제를 사로잡은 후에 대성을 없앨 것을 의도한 것이다. (2) 대성이 장안으로 향한 이후에 호왕이 명진을 공격하고, 이에 놀란 천자는 황강 강가로 피신하나 호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07.** ⓐ 공중(하늘)에서 황강에 천자가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였음 ⓑ 황강으로 가는 길에 놓인 큰 강을 건너뛰는 **08.** ④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대성이 호왕의 계책에 속은 것을 알고 대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홀연 공중에서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갈 것을 알려 준다. 또한 황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강이 가로막혀 있지만 청총마가 이 물을 건너뛴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 비현실적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할 뿐,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④ 인물의 행적을 묘사하고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는 전지적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인물이 영웅성을 발휘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꿈속 장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Q 희화화란 뭔가요?

A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을 말해요. 문학 작품에서는 인물을 풍자적으로 그려 낼 때에 희화화를 해요. 다음 예에서 허세를 부리는 주인공의 가식적인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 인물을 희화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 배 비장이 알몸으로 썩 나서며 그래도 소경 될까 염려하여 두 눈을 잔뜩 감으며 이를 악물고 왈칵 냅다 짚으면서 두 손을 허위적허위적 헤어 갈 제 – 작자 미상, 「배비장전」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대성이 대군을 합세하여 호나라를 짓밟고자 한다고 하자, 천자는 대성에게 기다리라고 한다. 이는 천자가 호왕이 비밀스러운 계책을 꾸미고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호왕이 겸한을 불러 명제를 사로잡고 대성을 없애고자 하는 계책을 말하자 겸한이 군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갔다. 따라서 겸한이 군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간 것은 대성을 장안으로 유인해서 대성이 없는 틈에 명제를 사로잡으려는 호왕의 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호왕은 대성을 따돌리고 명제를 사로잡을 계책을 세웠으므로 대성이 장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한 것이다. 호왕이 대성을 장안으로 보내고자 한 것은 무공이 뛰어난 대성이 없어야 명제를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호왕이 명제에게 항서를 쓰라고 하자 명제는 지필이 없어서 쓸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호왕이 손가락을 깨물어 쓰라고 하자 명제는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명제가 호왕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것은 항복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대성은 장안으로 가 호왕을 찾았으나 호왕은 없고 겸한이 삼군을 거느려 온 것을 보았다. 이때 비로소 대성은 '호왕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하였다고 말하며 분노한다. 대성은 호왕의 계책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판단을 작품의 표면에 노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대성의 손을 잡고 꿈인가 생신가 분별치 못할네라.'는 서술자의 주관이 드러난 구절이 아니라, 대성을 본 천자의 심정을 서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네라 뉘 능히 당하리요?'는 예상치 못한 호의 침입에 명의 군졸이 대처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② '명제는 함정에 든 범이라 어찌 망극지 아니하리요?'는 명제가 호왕에게 붙잡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서술자의 주관적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③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는 항서를 써야 하는 위기에 처한 호왕의 원통한 마음을 제시하면서 하늘도 무심하다는 서술자의 판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이는 대성의 충심과 청총마 그 임자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사 건너게 함이라.'는 청총마가 대성의 뜻을 알아듣고 강을 건너뛰는 비현실적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보기〉에서 소대성은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영웅이라고 하였는데, 공중의 소리는 천자가 있는 황강으로 소대성을 이끄는 천상계의 조력에 해당한다. 소대성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분기충천하는 모습을 통해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명진이 불의의 난을 만나매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네라'에서 군사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강촌 백성이 난을 피할 길이 없는지라.'에서 난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하여 호나라의 침략으로 인한 명나라의 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② 호왕의 급습을 받은 명제가 놀라서 도망을 치고 황강 강가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어찌하지 못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탄식하는 천자의 나약한 모습에는 명나라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배층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항서를 쓰라는 호왕의 요구에 천자가 '차마 아파 못할네라.'라고 통곡하며 기절한 천자의 모습과, '칠성검'으로 호왕을 단칼에 죽이고 천자를 구원하는 소대성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 주어 대상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⑤ '청총마가 호왕의 탄 말을~떨어지느니라.'에서 보듯, 탁월한 능력으로 호왕을 제압하고 천자를 구해 내는 소대성의 모습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이다.

05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②

㉠에서 천자는 호왕에게 '비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호왕이 소장의~짓밟고자 하나이다.'라는 대성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에서 대성은 '천하를 반분하'여 대성에게 주고자 하는 천자의 제안을 '일천지하에 두 천자 없'다는 군신 간의 도리를 근거로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실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에서 대성은 천자의 제안을 거부하였지만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③ ㉠에서는 자신의 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에서 대성은 '천하를 평정함'이 가능했던 것이 '폐하의 넓으신 덕' 때문이라며 상대에게 공을 돌리고 있지만 천자의 제안은 거부하고 있다.

④ ㉠에서는 단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에서 대성은 '폐하의 덕'이라

는 천자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천자의 제안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에서 천자는 '잠깐 기다리라'라며 유보적 태도를 드러내며 대성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대성은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에 역명을 면케 하옵소서.'라며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있다.

06 [인물과 배경에 대한 이해]

(1) 호왕은 명제를 사로잡아 대성을 해치려는 계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장안을 공격하여 대성이 명제를 떠나 장안으로 향하게 한 뒤에 명제를 사로잡고 대성도 없애자는 계책이 그것이다. 호왕은 이 계책을 수행하기 위해 겸한에게 장안을 공격하게 하였다.

(2) 호왕의 계책은 예상한 대로 진행되어 대성은 장안으로 향하고 호왕은 천자를 사로잡기 위해 명진으로 쳐들어간다. 이후에 천자는 황강 강가로 피신하나 호왕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소대성이 천상계와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은 소대성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된다. 소대성이 장안에서 겸한을 죽이고 돌아갈 때 하늘에서 천자가 황강에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였음을 알려주는 것과 청총마가 황강으로 가는 길에 놓인 큰 강을 건너뛰는 것은 비현실적 사건으로, 소대성이 천상계의 조력을 받는 인물임을 말해 준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요전법'은 이야기가 한참 흥겨울 대목에 쓰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흥겨울 대목은 즐겁고 흥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다음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 위기의 장면, 극적 장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성이 천자를 구하러 달려오는 극적 장면에서 요전법을 활용했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대성이 천자에게 호왕을 당할 장수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대성의 호기로움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궁금증이나 위기감을 유발하는 장면은 아니다.

② 천자가 삼장에게 힘을 다하여 자신의 뒤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부분은 천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극적 장면이라기보다는 천자의 절망적 처지를 부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호왕이 천자에게 용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라고 명령하는 부분은 비극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수많은 장졸들이 죽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은 위기 상황이 종료된 뒤이므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 즉 극적 장면은 아니다.

15강 김영철전(金英哲傳)

본문 083쪽

01. ① **02.** ④ **03.** ① **04.** ④ **05.** ④ **06.** ③ **07.** (1) 유림은 영철을 죽이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 좋은 일(상대에게 덕이 되는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2) 유림은 영철이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해 복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08.** ⓐ 영철이 돈을 갚지 못하자 일가친척까지 감옥에 가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영철이 세 번 전쟁에 나가 수고하고 공적을 세웠음에도 조정에서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영철을 꾸짖으며 죽이겠다고 하는 아라나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영철의 말을 통해 영철과 아라나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영철에게 세남초값을 갚으라고 하는 유림의 말과, 자신의 공적을 생각해 갚은 것으로 해 달라는 영철의 말을 통해 유림과 영철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아라나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있지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며,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세남초 이백 근은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이 소재가 인물이 앞으로 겪을 사건을 예고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아라나가 영철에게 '어찌 말 한 마리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은 영철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실제로 영철은 몇 년 전에 이미 아라나의 조카에게 말을 돌려주었으므로, 영철이 지금 말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라나는 영철에게 '내 이제 너를 자세히 보니 누군지 알겠거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다. 이는 영철이 일부러 자신을 모른 척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② 아라나는 영철에게 세 번의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하며 건주의 살림을 맡던 일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아라나가 자기의 살림을 맡길 만큼 영철을 신뢰하였음을 보여 준다.

③ 아라나가 화를 내며 영철을 포박하게 하자 영철은 '제가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한족 아홉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영철은 자신의 행동이 목숨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⑤ 유림은 자신이 아라나에게 준 세남초 이백 근 값을 영철에게 값으라고 하면서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은 너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나랏돈이므로 반드시 세남초값을 갚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0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①**

[A]에서 아라나는 과거에 자신이 영철에게 베푼 은혜 세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영철이 저지른 죄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베푼 은혜를 영철이 배신했다며 영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에서 적대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B]에서 영철은 과거 자신의 잘못이 한족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영철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라나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아라나는 영철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영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B]에서 영철은 아라나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⑤ [B]에서 영철은 자신의 원통함을 표출하고 있을 뿐, 자신이 아라나에게 베푼 호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아라나는 영철을 구해 주는 인물로 보였으나 결국 영철을 죽이고자 하였고, 유림은 영철의 몸값을 내주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영철을 위기에 빠뜨렸다. 아라나와 유림을 반전을 주는 인물로 파악한 것은 작품 안에서 인물의 특징을 분석한 것으로, 내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신사년에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현실 등에 주목하여 외재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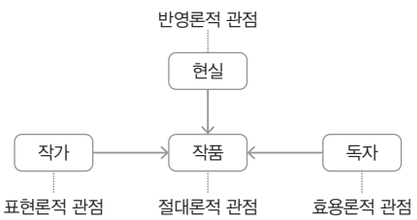
② 작품을 읽고 조선 후기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들을 더 찾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용과 의미에 주목한 것으로, 작품을 외재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③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비판 의식에 대해 파악한 것은 작품을 작가와 연관 지어 파악한 외재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다.

⑤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한 것도 내재적 관점이 아닌 외재적 관점에 따라 이해한 것이다.

Q 작품의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란 뭔가요?

A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구분돼요. 내재적 관점은 작품의 구조나 구성 요소 등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지요. 외재적 관점은 작품 외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으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으로 나뉘어요.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에,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05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④**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면 ③→⑤→②→①→④가 된다. 영철은 금주에 있을 때 청나라 황제에게 청노새를 하사받았다. 유림이 이를 팔라고 하였으나 팔지 않고 있다가, 일가친척이 감옥에 갇히고 호조에 갚아야 할 돈도 충당할 방법이 없게 되자 청노새를 팔았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③**

〈보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참전한 백성들을 외면했던 조선의 위정자들이다. 그런데 '아라나'는 청의 장수로 〈보기〉의 비판 대상인 조선의 위정자, 즉 '사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라나가 '천리마' 세 필을 잃게 된 것에 분노하여 영철을 죽이려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명분이 아닌 자신의 실리에 따른 감정적인 행동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김영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이 아니라, 전란에 참여하여 갖은 고초를 겪는 일반 백성이다. 이 작품은 일반 백성인 김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백성이 겪는 비극에 주목하였다.

② 영철은 조선의 군사로서 청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청나라의 말을 통역하는 일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참전한다. 세남초값을 갚으라고 하는 유림에게 영철은 '제가 일찍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출입하여 재산을 모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부탁하지만 유림은 영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로 볼 때, 유림은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라고 할 수 있다.

④ 세남초값을 갚기 위해 영철은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는다. 이는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도 전쟁과 관련된 일로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여러 차례 전쟁에 참가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는 참전한 백성들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1) ㉠에서 유림은 영철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덕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라나를 설득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해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2) 유림이 영철의 간청을 거절하고 영철에게 세남초 이백 근 값을 갚으라고 한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에서 유림은 이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는 의도로 영철에게 세남초값을 갚으라고 한 것이다.

08 [작품의 창작 동기 및 배경 이해]

ⓐ: 영철이 돈을 갚지 못하자 영철의 일가친척까지 감옥에 갇힌다. 이를 통해 어떤 일에 대해 친인척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영철이 세 번 전쟁에 나가 수고하고 공적을 세웠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군역을 다하고 공적을 세운 백성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강

홍계월전(洪桂月傳)

본문 08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③ **05.** ① **06.** ③ **07.** 당시에 문호를 빛내는 일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이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나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8.** 이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새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소년 급제하여~만조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하매,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와 같이 홍무가 벼슬에 올랐다가 고향에 내려와 살게 된 내력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시랑을 청하여 몽사를 이야기하고~아이를 탄생하매 여자라.'와 같이 부인 양 씨가 태몽을 꾼 이후에 계월을 잉태하는 과정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얼굴이 도화 같고 향내 진동하니'에서 아기 계월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계월의 뛰어난 외모를 나타낸 것으로 희화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홍 시랑 부부가 있는 지상계와 선녀가 있던 천상계라는 대립적 공간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들 공간을 통해 천상 인물의 지상으로의 하강을 보여 줄 뿐, 인물 간의 갈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④ 계월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선녀는 초월적인 존재라 할 수 있으나 선녀와 양 씨의 대화에서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⑤ 계월의 영웅적 일대기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며,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지 않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홍무의 부인 양 씨는 추구월 보름이 되어 달을 구경하고자 망월루에 올랐다가 홀연히 피곤을 느껴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에 선녀가 내려와 부인께 절을 하고 자신이 홍무 부부의 집으로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오답 풀이]

① '천자 사랑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니, 만조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하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만조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하매,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 가세는 부유하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홍무는 "나이 사십에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뵈오리오."라고 하고, 양 씨는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 지 이십여 년이라. 한낱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뵈오리까."라고 하였다.

④ 양 씨는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악을 면할까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03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 ⑤**

ⓐ는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는 "이 아이 상을 보니 다섯 살이 되는 해에 부모를 이별하고 십팔 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공후작록을 올릴 것이오,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길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계월이 후에 고난을 극복하고 크게 성공할 인물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는 아이가 생기기 바라는 부인의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존재이다.

② ⓑ는 계월의 상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고 있으나, 천기를 누설하지 못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시랑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③ ⓐ와 ⓑ 모두 계월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④ ⓐ와 ⓑ 모두 계월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계월이 태어났을 때 시랑은 "네가 만일 남자 되었다면 우리 문호를 더욱 빛낼 것을 애닯도다."라며 계월이 남자가 아니었음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시랑은 계월을 장중보옥같이 사랑하였으며,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보듯, 장사랑의 난으로 계월이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랑이 계월이 남아가 아닌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 계월이 부모와 이별하거나 죽을 고비와 같은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계월의 아버지인 홍무는 '세대 명문거족으로 소년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에 이르렀다.

② 선녀가 득죄하여 부인 댁으로 와서 아이로 탄생한다는 꿈의 내용을 볼 때, 계월의 잉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부모와 헤어져 위기에 처한 어린 계월을 구해 주는 것은 여공이다. 따라서 조력자인 여공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계월이 적장 오십여 명과 적병 천여 명을 베고 보국을 구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0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A]에는 보국과 적과의 싸움, 계월의 활약 등 전쟁을 소재로 한 군담적 요소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독자의 흥미를 유도한다.

[오답 풀이]

② 전쟁 장면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허구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인물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비유적 표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적장을 향한 보국의 외침과 그에 대응한 적군의 움직임이 제시되어 있을 뿐,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공간적 배경이 전쟁터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Q 군담 소설이 뭔가요?

A '군담(軍談)'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군담 소설은 전쟁을 배경과 제재로 삼아 창작된 소설을 말하지요. 비범한 인물이 시련을 이기고 성장해, 전쟁에 나가 용맹을 떨쳐 나라를 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이 군담 소설의 큰 틀을 이루고 있어요.

군담 소설 중 「임경업전」, 「박씨전」, 「사명당전」 등과 같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소설화한 작품을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역사 군담 소설은 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여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당하여 무능을 드러낸 집권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인물과 사건을 허구적으로 꾸며 낸 「소대성전」, 「유충렬전」, 「홍계월전」 등은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대개 작품의 배경은 중국이고 외적의 침입과 간신의 반란을 평정하는 전쟁이 등장하지요.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시랑이 계월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하여 강호 땅에 곽 도사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계월의 상을 보인대'라는 대목은 계월에 대한 시랑의 염려와 사랑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당시 여성들이 해소할 수 없었던 불만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는 관련이 없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여성들의 불만은 사회에 대한 불만에 해당하지, 수명과 같은 신체적 한계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악을 면할까 하나이다.'라는 대목에서 당시 자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모두 여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부인이 시랑을 청하여 아이를 보인대', '기쁨이 측량 없으나 남자 아님을 한탄하더라.'라는 대목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④ 원수가 중군장에게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라고 분부하는 대목에서 중군장인 보국에게 원수인 계월이 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우월한 지위인 여주인공이 남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라는 대목에서 보국을 조롱하는 계월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남녀 불평등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여성 독자층에게 통쾌함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작품에 반영된 가치 파악]

계월에게 남복을 입혀 글을 가르쳤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글공부라는 사회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문화적 가치가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8 [갈래적 특징과 성격]

여성 영웅의 활약이 드러나는 장면 중 남성보다 우월함이 드러난 장면은, 계월이 위기에 빠진 보국을 구해 내는 장면이다. 보국은 전장에 나가 적장의 목을 베지만 곤경에 빠져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계월이 단숨에 달려나가 보국을 구한다. 이는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7강

박씨전(朴氏傳)

본문 093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③ **05.** ① **06.** ⑤ **07.** 박 씨는 천기를 보고 호적이 의주가 아닌 황해수를 건너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일가친척들을 피화당에 피난시켜 장안을 약탈하는 호적으로부터 보호하였다. **08.** ③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양장이 수명하고 군사를 거느려,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바로 장안을 향하였더라.',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뢴대, 상이 놀라사 만조백관이 다 경황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더라.', '우상이 이 말을 듣고 강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와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사건의 양상과 인물의 심리를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박 씨가 호적의 침입을 예견하는 내용이 비현실적 사건일 수 있으나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서술자의 시각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어 다양한 서술자의 시각으로 사건이 제시되지 않는다.

④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아닌 박 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예견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박 씨가 황해수를 건너 침입하려는 호병의 계략을 예견하고, 일가친척을 피화당으로 불러들여 화를 면하게 하는 대목에서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ㄱ). 또한, "박 씨는 요망한 계집이어늘, 전하 어찌 요망한 말을 침혹하시며, 국가 대사를 아이 희롱같이 하시나니이까."라는 김자점의 말을 통해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ㄷ).

[오답 풀이]

ㄴ. 「박씨전」에서 박 씨는 이시백과 결혼을 한 후 변신을 통해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제시된 지문에서 변신 화소는 드러나지 않는다.

ㄹ. 「박씨전」에서 박 씨는 용골대 형제를 무찌르는 등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승승장구를 한다. 하지만 제시된 지문에서는 남성과의 대결을 펼치지 않는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황후가 "부디 우의정 이시백의 집 후원은 범치 말라. 만일 범하다가는 성공은 새로에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 불망하라."라며 용골대와 율대에게 특별히 이시백의 집 후원을 범하지 말라고 명을 하였다. 호왕은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율대가 우상의 후원을 침범한 것은 호왕이나 황후의 명에 따른 행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중로에서 호적의 복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죽기로 싸워 복병하였던 장수를 베고, 겨우 길을 얻어 뫼시고 남한에 들어가니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아뢴대, 상이 놀라사 만조백관이 다 경황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더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만조백관이 김자점의 말이 그른 줄 알되,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그 일로 유예 미결하'였다. 이에 결국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박씨가 일가친척을 피하당에 피난하게 하였는데, 용골대가 장안을 차지하여 죽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에 '피화당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였다고 했다. 이들이 박 씨의 말을 듣고 다시 피화당에 머물기로 한 것으로 보아, 피화당에 있던 사람들이 용골대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도망을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③**

[A]에서 좌의정 원두표는 박 씨의 말이 그럴듯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B]에서 김자점은 임경업을 패초하여 의주가 비어 있는 틈을 노려 호나라가 의주를 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제시하며, 박 씨의 말을 따르려는 이시백과 원두표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즉 김자점은 임경업이 의주를 비울 때 호적이 의주를 공격한다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임경업을 패초하라는 박 씨의 주장을 따르자는 이시백과 원두표 등의 의견대로 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을 근거로 삼아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원두표는 "박 부인 말씀대로 하여 보사이다."라고 말하며 이시백이 전하는 박 씨의 예언에 동의하고 있다.

② 김자점은 "설사 기병하여 온다 하여도 북으로밖에 없사오니"와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적의 침입 경로를 예측하고 있을 뿐, 상대방에게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④ [A]는 이시백이 전하는 박 씨의 예언에 동의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은 [B]이다.

⑤ [B]는 자신의 경험과 박 씨가 여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A]는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05 [배경의 의미와 기능 이해] **정답 ①**

㉠은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이며, ㉡은 병자호란 때 임금이 피신했던 장소이다. 따라서 ㉠과 ㉡은 병자호란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오답 풀이]

② ㉢은 사건의 전기성과 우연성이 나타나지만 ㉠은 역사적 사실인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를 가리키므로 사건의 전기성이나 우연성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은 임금이 피난을 하는 현실적인 공간인 남한산성이므로 천상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과 ㉡은 병자호란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배경으로, 치욕적 사건이 나타나는 배경이므로 당대 민중의 소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은 호적의 화를 피할 수 있는 신비한 공간으로 허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과 ㉡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시간과 현실적 공간이므로 사건의 사실성을 강화한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호적으로 인해 국가에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박 씨의 예언을 듣고 우상이 강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수심으로 지내다가 임금에게 다시 죽기로써 간언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에서 우상 이시백의 내적 갈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우상은 김자점이 조정을 좌우하는 현실과 국운이 불행하게 될 미래 상황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한 것이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등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율대가 박 씨의 피화당을 침입하는 것은 외적 갈등에 해당하여 구성상 긴장감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김자점이 박 씨의 예언을 '요망한 계집의 말'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 해당하는 외적 갈등이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의 부정적 인식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호적의 침임으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호나라와 조선, 즉 사회와 사회의 갈등에 해당하는 외적 갈등이다.

④ 김자점과 원두표는 이시백이 전하는 박 씨의 예언을 두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펼쳐 대립하고 있다.

07 [갈래적 특징과 성격]

「박씨전」은 서사 갈래 중 전쟁을 소재로 다룬 군담 소설이나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여성 영웅 소설로 분류된다. 이 글의 제시된 부분에서 주인공인 박 씨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대목은 박 씨가 호적의 침입 경로를 예측하는 대목과 피화당에 일가친척들을 모아 호적으로부터의 화를 면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08 [공간적 배경의 특성 파악] **정답 ③**

'백성들이 도적의 창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주검이 태산 같더라.'에서 보듯, 장안은 호적의 침입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공간이다. 따라서 전쟁의 참상이 드러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황해수를 건너 호적이 침입하였으므로 의주는 호적이 침입하는 공간적 배경이 아니다.

② 호적은 임경업이 수비하는 의주를 피해 황해수를 건너 침입하였다. 따라서 황해수는 임경업이 수비하는 공간적 배경이 아니다.
④ 피화당은 박 씨가 일가친척들이 호적으로부터의 화를 피하도록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율대는 피화당의 신비한 분위기를 목격하였으므로, 피화당이 율대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은 아니다.
⑤ 남한산성은 호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해 임금을 모시고 피신하는 공간이다. 우상의 충성심은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중로에서 복병을 무찌르며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8강

이대봉전(李大鳳傳)

본문 098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여러 신하들이 장애황을 충효를 겸비한 인재로 칭하며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해 여성인 장애황의 출정을 지지하고 있는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07.** ⑤ **08.** 이를 보고 장 원수가 적군을 여린 풀 베 듯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장애황과 선우 간의 전투 장면을 극적으로 제시하여 장애황의 활약으로 명나라가 승리하면서 선우와의 외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초왕과 충렬왕후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떠나고 충렬왕후가 적군과 싸우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을 뿐, 가치관이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내적 독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비극적 상황을 희극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없고, 해학적 요소도 드러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에서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도 가정사를 돌보았음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황제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한 말이다. 즉 황제가 애황을 부른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려 자신들의 탓이니 기꺼이 출정한다는 뜻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천자는 전에는 애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애황이 규중에 있어 한쪽을 누가 막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 천자는 애황이 혼인을 하여 규중에 있기 때문에 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② ㉢에서 초왕은 적병이 억만이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적병을 반드시 무찌르고 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에서 초왕은, 잉태한 몸으로 남쪽의 적군을 막기 위해 출정하는 충렬왕후에게 몸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충렬왕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⑤ ㉤에서 충렬왕후는 초왕에게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도적을 깨뜨리고 돌아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더 중시하는 충렬왕후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A]는 충렬왕후인 애황이 전장으로 떠나기 전 황제에게 한 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B]는 애황이 선우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만의 다섯 나라의 왕을 잡아들여 항서와 예단을 받고 한 말로, 항복한 적군에게 다시 한번 반역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말이다. 따라서 [A]에 드러난 애황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B]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말이다. 그러므로 [B]에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된 것은 아니다.
③ [A]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B]에서는 [A]에서 예고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A]로 인해 인물들 간의 오해가 생기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여러 신하들이 이대봉을 패초하면 장애황 또한 출정할 것임을 간언하였고 황제는 이를 수용하여 이대봉을 불러들였다. 따라서 황제가 이대봉을 불러들인 이유는 이대봉과 장애황이 능력을 발휘하여 남북 적병으로 인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대봉이 황제가 보낸 전교를 보고 전장에 나가기 위해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것에서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여성인 장애황이 규중을 벗어나 다시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해 활약하는 것에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였던 당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장애황이 잉태를 한 지 일곱 달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출전하는 모습에서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장애황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나는 것에서 이대봉과 장애황이 각각 해야 할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황제는 장애황을 대원수에 봉하고 인끈과 절월을 주며 태만한 자가 있으면 참수하라고 말하였다. 이는 황제가 장애황에게 군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황제가 보낸 '전교'를 받고 이대봉은 즉시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황성으로 향한다. 이후에 이대봉이 사자를 명하여 충렬왕후에게 사연을 전한다. 따라서 황제가 보낸 '전교'가 장애황의 출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대봉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

② 이대봉의 '청룡도'와 장애황의 '천사검'은 두 인물이 영웅성을 발휘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청룡도'와 '천사검'이 이대봉과 장애황이 천상계의 조력을 받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다섯 나라 왕들이 보낸 '황금과 비단, 채단'은 남만의 다섯 나라의 항복 의사를 보여 준다. 이는 장애황의 영웅성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⑤ 장애황은 다섯 나라의 왕을 잡아들여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힌 뒤 항서와 예단을 받았다. '항서'는 다섯 나라 왕의 항복을 나타내는 문서로, 장애황이 적군에게 완벽하게 승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장애황이 다섯 나라가 짠 계략을 모두 알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06 [작품을 통한 시대적 의식 파악]

「이대봉전」은 이대봉이라는 남성 영웅의 활약상뿐만 아니라 장애황이라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양반층조차 장애황의 공적 활동과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작품에서 조정 신하들이 장애황의 능력을 인정하여 장애황의 출정을 반대하지 않고 장애황이 있으므로 적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이대봉전」은 영웅 소설의 도식성을 따르면서도 일반적 영웅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사적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장애황이 골통과 선우의 목을 베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영웅의 일대기 가운데 국가적 위기 극복의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서도 흔히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술을 익혀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하고 초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대봉의 삶이 개인적 시련에 봉착하여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한 뒤 국가적 위기 극복의 과업을 달성한다는 영웅적 일대기에 부합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② 이대봉과 장애황은 전장에 나가 활약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초왕과 충렬왕후가 된다. 이 둘은 부부가 된 이후에도 적군의 침입에 대항하며 각각 영웅성을 인정받는다.

③ 남과 북 양쪽에서 적군이 침입하자 북쪽은 대봉이 맡고 남쪽은 애황이 맡게 된다. 이대봉이라는 남성 영웅뿐만 아니라 장애황이라는 여성 영웅도 등장시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④ 장애황은 혼인하여 잉태한 상황에서도 전장에 나가 적군을 물리치고 공적을 세운다. 이는 여성이 혼인을 한 이후에도 영웅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일반적 영웅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사적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Q 영웅의 일대기 구조란 뭔가요?

A 영웅들이 등장하는 고전 소설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며 잉태나 출생의 과정에서 비범함을 보여요. 또한 어려서부터 능력이 출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찍 부모와 이별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개인적 위기에 봉착하지요. 그러나 주인공은 양육자 혹은 조력자에 의해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후 주인공은 성장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돼요.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이 글에서는 이대봉과 장애황이 출정하는 상황을 다루고, 이후 장애황의 활약상을 보여 주고 있다. 장애황이 활약하는 부분 중에서 비유와 과장의 표현을 통해 장애황의 행동을 묘사하고,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는 문장은 '이를 보고 장 원수가 적군을 여린 풀 베 듯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이다. '적진 장졸들이 원수의 용맹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지자, 선우가 이를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다.'에도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나, 여기서는 비유를 통해 적진 장졸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19강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본문 103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④ **06.**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07.** ⑤

0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사 씨의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는 물음에 유모와 시비가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보아, 유모는 기절한 사 씨를 간호했을 뿐, 황릉묘에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꿈에서 왕비가 사 씨에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라고 한 말을 통해 사 씨가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 씨가 바다 끝인 남해를 어찌 갈 수 있겠냐고 묻자 왕비가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라고 대답한 것에서, 사 씨를 바다 끝으로 인도해 줄 조력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이 관음보살의 명에 따라 사 씨를 도우러 황릉묘로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④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라는 유 한림의 탄식을 통해, 유 한림이 동청을 꺼려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를 통해, 샘물을 먹고 병이 나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질 탓으로 생긴 병을 없애는 방도를 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에서는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왕비와 대화를 나눈 사 씨가 꿈을 깬 후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이나 유 한림이 꿈속에서 노파를 만난 후 꿈에서 깨는 모습을 통해 비현실적 사건을 경험한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사건의 전개는 나타나 있으나, 다시 비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에 따른 사건 전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병세가 심했던 유 한림이 물을 먹고 병세가 낫는, 즉 유 한림의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이야기 밖에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유 한림의 외로운 심정 등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사 씨 일행 앞에 여승 일행이 새롭게 등장하고 여승의 도움으로 남해에 있는 수월암에 가게 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교 씨의 모함을 받고 쫓겨난 사 씨와 유배 가서 병이 든 유 한림이 꿈을 통해 각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Q 이야기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뭔가요?**
>
> **A** 서술자의 위치는 작품의 시점을 설명하거나 객관식 문제의 선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1인칭 시점의 경우, 서술자가 '나'라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야기 내부에 서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3인칭 시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적(全知的) 위치에 있든, 인물 관찰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관찰자적 위치에 있든 기본적으로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1인칭의 '나'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지 여부를 통해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가(1인칭 시점) 밖에 있는가(3인칭 시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알고 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면 돼요.

03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③**

ㄴ.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를 통해 사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남해 도인과 인연을 맺고 의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ㄷ. '꿈결에 관음보살께서~구하라고 하셨습니다.'라며 여승이 관음보살의 명을 받아 사 씨를 도우러 왔음을 밝히면서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며 사 씨에게 온 방법도 함께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왕비는 앞으로 사 씨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

ㄹ. 유 한림은 어진 아내를 의심했던 과거 자신의 행적을 회상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사 씨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04 [배경의 특징과 기능 파악] **정답 ③**

㉢(황릉묘)은 꿈속에서 본 왕비의 묘로, 사당에 걸린 왕비의 초상화를 통해 사 씨가 자신이 꿈속에서 만난 왕비가 아황과 여영임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뜰)은 유 한림이 꿈속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 즉 노파가 병을 놓고 사라진 곳으로 꿈을 깬 후 뜰에서 이 물병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샘이 생겨 물이 솟아 나왔다.

[오답 풀이]

① ㉠(남해)은 사 씨가 여승의 도움으로 당도하여 잠깐 의탁하게 되는 수월암이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여승은 자신을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꿈 내용이 사 씨를 찾아온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대나무 수풀)은 사 씨가 '분명히 저 길로~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경험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사 씨가 일행을 데리고 찾아간 공간에 해당한다. 한편 ㉣(묘지기 집)은 밥을 구해 오기 위해 시비만 다녀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 씨 일행 중 일부만 찾아간 공간이다.

④ ㉦(행주)으로 유배를 가게 된 후 스스로 뉘우치며 탄식하다 병을 얻은 유 한림은 꿈속에서 노파를 만나는데 노파는 유 한림을 보자마자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와 같이 유 한림의 병세를 알아보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노파는 스스로를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뜰)에서 만난 노파는 병을 뜰 가운데에 놓고 홀연히 사라져 버림으로써 신비로운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은 병을 치유해 주는 물이 솟아나오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수질이 좋지 않은 ㉦(행주)과 상반된 일화, 즉 유 한림과 마을 사람들이 샘물을 먹고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공간이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노파는 죽을 위기에 처한 유 한림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 한림이 고행을 겪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기〉에서 작가가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는 숙종의 처사를 반대하며 숙종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숙종이 겪게 될 위기 상황에 작가 자신이 숙종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인식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악인인 교 씨는 사 씨의 권유로 유 한림의 첩이 된 후 유 한림으로 하여금 사 씨를 몰아내게 만든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교 씨에 대응되는 장 희빈이 중전 자리에 오른 것을 비판하기 위한 문학적 형상화로 볼 수 있다.

② 사 씨는 교 씨의 모함에 넘어간 유 한림에 의해 정실 자리에서 쫓겨나

게 된다. 이는 인현 왕후 폐위에 직접 관여한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 씨와 유 한림이 겪은 고초가 교 씨를 첩으로 들임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처첩 제도가 지닌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동청은 교 씨와 결탁해서 유 한림을 유배 가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이다. 〈보기〉에 따르면 교 씨는 장 희빈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 씨와 결탁한 동청은 장 희빈과 결탁한 정치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교 씨와 동청이 징벌당하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모순된 정치 현실을 만든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주렴을 내리는 소리)의 앞부분은 꿈속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의 뒷부분은 꿈이 깬 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 씨는 ㉮를 듣고 꿈에서 깨게 된다. 따라서 ㉮는 사 씨가 비현실 세계(꿈)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그것을 본 사람들이~지금까지 전해진다.'에서 알 수 있듯이 행주 사람들은 유 한림이 물을 마셔 병을 고친 일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그 물을 나누어 마시고 병이 없어지자 그 샘의 이름을 학사정이라 한다. 학사정에 얽힌 이야기는 사람의 일에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보기〉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보기〉에 제시된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닫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 씨는 꿈에서 자신을 도와줄 이를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여승 일행은 꿈에서 사 씨를 구하라는 관음보살의 명을 듣는다. 그리고 여승들은 사 씨를 찾아가고 사 씨는 실제 자신을 도우러 온 여승을 만난다. 이는 〈보기〉의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유 한림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탄식하다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나, 꿈속에서 노파를 만난 뒤 병이 낫게 된다. 이는 〈보기〉의 잘못을 깨달은 후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병을 낫게 한 샘을 학사정이라 이름 붙였는데, 이 학사정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의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내용과 관련된다.

④ 유 한림은 유배지에서 외로운 가운데 고초를 겪으면서 예전의 총명이 점점 돌아와 자신이 사 씨에게 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기〉의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Q 복선화음이 뭔가요?

A 〈보기〉에 제시된 '복선화음'이라는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음.'을 의미해요. 이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권선징악(勸善懲惡)'에 해당하지요. 고전 소설에서는 교훈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선인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악인은 자신의 행실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서사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서사 구조는 특히 '행복한 결말'이라는 고전 소설의 또 다른 전형적 특징과 깊이 관련되므로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20강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본문 108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7.** 심 씨는 화진과 화빙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심 씨가 화진과 화빙선에게 적자인 화춘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누명을 씌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성 부인은~깊이 염려했다.'에서 보듯, 성 부인은 심 씨가 화진과 화빙선을 미워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인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 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에 심 씨가 본격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성 부인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 화빙선을 미워하는 심 씨의 태도를 억누르는 역할을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욱은 화춘을 꾸짖는 과정에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해괴한 일이로구나.'와 같이 화춘이 보였던 모습이 충효·법도·예의를 중시한 가문의 전통과 어긋난다고 여기고 있다.

② 화진은 심 씨에게 '소자는 선군자의~슬하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며 자신도 심 씨의 자식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

③ '상공께서 정 씨~것일 뿐이니라.'와 '선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라는 심 씨의 말을 통해 심 씨는 화욱이 화진의 술수에 넘어가 화춘을 꾸짖고 화진만을 편애한 것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④ 임 소저는 화춘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근래~아름답지 못하십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화춘이 윤상, 즉 일상의 도덕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02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②**

화춘은 동생을 본받으라는 화욱의 명령에 대해 '하지만 천하에~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며,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일은 일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도리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대인께서는 소자로~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에서 화욱이 화춘에게 화진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본받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화진이~볼만하다고는 하나'에서 화춘이 화진의 타고난 재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화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소자가 모친의~받아야 할 것입니다.'에서 화춘은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지나친 사랑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이를 화욱이 오해한 것이라는 반응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⑤ '오늘 대인께서~말씀까지 하셨습니다.'에서 화춘이 원통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춘 자신이 가문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화욱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원통해한 것이다.

03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④

화빙선은 자신에게 흉악한 말을 하는 심 씨 앞에서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심 씨의 횡포에 따른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갈등 관계에 대한 자괴감의 심리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심 씨는 상공이 화진에게 빠져 있다고 여기며 화진을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가문 내에서 자신과 화춘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 씨가 화진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심 씨는 정 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는 점을 들어 화빙선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화빙선이 정 부인에 의해 자란 성장 과정을 빌미로 화빙선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임 소저가 '정 씨 어머님의~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화춘과 정 씨 모자가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심 씨는 화진을 마당에 무릎을 꿇게 한 후에 '성 부인의 세도를~저지르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화진이 성 부인의 권세를 믿고 자신과 화춘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화진은 '인생 천지에 오륜이~하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며 심 씨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고 있다. 이는 화진이 오륜을 바탕으로 갈등 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Q 갈등 관계가 뭔가요?

A 갈등은 앞뒤 사건에 인과성을 부여하고, 사건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갈등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 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 인물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인물, 인물–사회, 인물–운명, 인물–자연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갈등의 종류와 유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설에서 인물이라는 요소는 사건과 갈등, 배경과 소재의 의미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인물 간의 관계에 따른 갈등의 형성 요인과 해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소설 감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지요.

04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은 심 씨의 편에 있는 시녀 난향이 취선의 말을 듣고 심 씨에게 이를 고함으로써 화빙선과 화진이 고초를 겪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난향의 행동을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을 뿐 시간적 배경의 비약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화춘의 심리와 정서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화춘은 화욱이 자신을 심하게 비난한 것에 굴욕감을느끼고, 화욱의 엄중한 꾸짖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② ㉡에는 화춘에 대해 '행동거지가 패악하고 언어에 법도가 없'다는 서술자의 평가적 발언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화춘이 언행이 좋지 못한 부정적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는 '두 외로운 골육', 즉 화진과 화빙선에 대해 '주옥같은 목숨'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진과 화빙선이 심 씨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화진과 화빙선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심 씨가 화진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모습과, '쇠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를 내는 행동 묘사를 통해 심 씨가 화진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의 심리와 함께 심 씨의 극악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화진이 심 씨의 질책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은 심 씨를 원망하는 말을 한 잘못은 취선에게 있을지언정 화빙선에게는 없음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다. 화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라며 심 씨를 모부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 가부장을 대신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고 여기거나 심 씨의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심 씨는 첫 번째 부인이고, 화춘은 심 씨가 낳은 장자로, 이들은 두 번째 부인인 정 씨와 그가 낳은 차자 화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심 씨 모자는 정 씨 모자 때문에 자신들이 첫 번째 부인과 장자로서의 가문 내 지위가 흔들린다고 여겨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② 화욱은 화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부장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후 화욱이 죽고 성 부인이 집을 비우자 심 씨가 가문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모함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화욱이라는 가부장의 부재 상황에서 가부장 역할을 대신했던 성 부인까지 부재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성 부인이 화욱을 대신해 가부장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화빙선과 수선루 시녀들이 심 씨의 학대를 받는 상황에 대해 취선이 한탄하지만 화빙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는 심 씨와의 갈등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묵묵히 견뎌 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화욱은 가문의 법도를 지키고 심성이 한결같은 화진과 상반된 화춘을 꾸짖는다. 이는 화춘의 결함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결함 때문에 화춘은 화욱의 질책을 받고 화진과 갈등하게 된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ㄷ. 이 글에서 화진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스스로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에는 유배지에서 도사 곽공이라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ㄹ. 이 글에서 화진은 집안의 적장자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에 해당한다. 한편, 이후의 내용에서 화진은 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는 것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인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글에서 심 씨와 화춘은 악인으로서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 인물이지만, 그 이후 두 인물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인물은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ㄴ. 이 글에서 화진은 심 씨의 모함을 받아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후의 내용에서는 화춘의 모함까지 겪어 귀양을 가게 되는 처지에 이른다. 화진의 고난이 계속 화진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화진의 고난이 화춘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Q 평면적 인물이 뭔가요?

A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역할	주동 인물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이름.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
	반동 인물	주동 인물과 대립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성격의 특징	전형적 인물	계층, 세대 등의 보편적 특징을 지니고 대변하는 인물
	개성적 인물	개성이 뚜렷하고 독자적 성격의 면모를 지닌 인물
성격의 변화 여부	평면적 인물	작품 전체에 걸쳐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입체적 인물	작품 내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전형적 인물과 평면적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작품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성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심 씨나 화춘과 같이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창선감의록」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인물 유형과는 차이가 있는 특징적 면모를 띠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해요.

07 [사건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이해]

㉮는 화욱이 죽은 뒤, 집안을 관장하던 성 부인이 부재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를 계기로 심 씨는 집안 사람들을 극심하게 괴롭히게 되고, 특히 화진과 화빙선에 대한 평소의 미움과 분노를 모함으로 구체화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 씨는 두 인물에게 모두 자신의 아들인 화춘의 적자 지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는 심 씨가 화진과 화빙선에 대한 누명을 씌우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1강 정을선전(鄭乙善傳)

본문 113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① **07.** 〈보기〉의 '꿈'은 성진이 자신의 욕심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이 글의 '일몽'은 원수가 충렬부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미리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 **08.** '원수가 한 번 북 쳐 서융을 항복받고'와 같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원수의 활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는 충렬부인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다 읽지 못하며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금섬은 자신의 부모에게 행장만 있으면 유 부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부모는 행장을 차려 줄 것이니 충렬부인을 구하라고 한다. 또한 금섬은 월매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충렬부인을 구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 간의 대화로 죽을 위기에 처한 충렬부인을 살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충렬부인은 계속되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원수에 의해 구해지고 원수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죽게 된다. 따라서 인물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상징적 소재가 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심리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라 사건이 서술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거나 이를 통해 작중 인물의 내적 심리 양상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인물의 처지와 관련된 고사가 인용된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Q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뭔가요?

A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간다든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등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으로,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돼요. 이러한 구성을 취하게 되면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거나 독자들에게 참신한 느낌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지요. 참고로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을 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선지 판단을 할 때 좀 더 용이할 거예요.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⑤**

이 글의 끝부분에서 원수는 부원수에게 '중군 대소사'를 맡기고 '청총마를 채쳐 필마단기로 삼 일 만에 황성에 득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원수가 중군에서의 임무를 부원수에게 맡긴 채 다른 부하 없이 혼자 충렬부인을 구하려 떠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금섬의 부모는 금섬으로부터 충렬부인의 소식을 접하고 '너는 아무쪼록 계교를 베풀어 부인을 살려 내라.'라고 말하는 것에서 충렬부인이 계략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도울 것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충렬부인이 사건의 내막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충렬부인은 '네 오라비 나를 살리고자 하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와 같이 금섬의 오라비 호철에 대한 고마움을 호철이 아닌 금섬에게 전하고 있다. 또한 호철에게 편지를 직접 맡긴 것은 충렬부인이 아닌 금섬이다.

③ 금섬이 월매를 만나는 과정에서 월매가 금섬의 방문 목적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금섬은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월매에게 충렬부인을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밝히며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섬이 두려움을 보이거나 월매에게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⑤**

[A]에서 금섬은 장부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죽기를 무릅쓴다는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B]에서 충렬부인은 원수의 은덕으로 살아난 과거 상황을 겪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현재 처지를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금섬의 의지가 나타나 있지만, 이러한 의지가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B]에서는 충렬부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비현실적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충렬부인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B]에서 충렬부인은 '죄첩', '첩'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수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A]에서 금섬은 '너는 말리지 말라.~부인을 잘 보호하라.'와 같이 명령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충렬부인을 충실히 돕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청자인 월매를 위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B]에서 충렬부인은 '복원 상공은 만수무강하시다가'와 같이 편지를 읽을 원수의 안위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에서 금섬은 충렬부인을 구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충렬부인이 편지를 통해 원수에게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은 과거에 원수가 자신을 살려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원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보기〉에서 제시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적인 면모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차시 원수가~울리며 즐기더라.'와 같이 원수가 잔치를 열어 삼군과 즐기는 부분에서 서융에게 항복을 받고 승리한 전쟁 장면을 압축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전쟁 장면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나는 팔자가~죽기에 임하였으되'라는 꿈속 충렬부인의 말로 보아, 원수가 전쟁에 참여한 사이 충렬부인이 정렬부인의 모함으로 죽게 될 처지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전쟁으로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처첩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원수가 부원수에게 중군을 맡기고 떠나는 것은 자신의 아내인 충렬부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기〉에 따르면, 국가의 한 장수로서 활약하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보다 집안의 구성원을 구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⑤ 원수는 충렬부인의 편지를 받고 황성에 이르게 되고, 황성에 이른 목적대로 충렬부인을 구하게 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충렬부인을 구해 내는 해결사로서 원수의 모습이 부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에서는 죽기로 각오한 금섬이 자신이 죽더라도 동생이 여럿이니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충렬부인을 구하고자 금섬이 죽음까지 선택하려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의 이완이 아니라 그만큼 충렬부인의 위기가 심각함을 환기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금섬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로, 금섬의 죽음에 대한 선택이 미칠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행장을 마련하고 호철을 통해 충렬부인의 편지를 원수에게 전하고자 하는 금섬의 계획에 따라 금섬이 충렬부인에게 편지를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충렬부인을 구할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긴장감이 이완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는 내일 아침이 되면 충렬부인이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렬부인이 임신한 아이도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충렬부인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기한이 촉박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에서는 옥에서 탈출해 목숨을 부지한 충렬부인이 지함 속에서 다시 금 죽을 위기에 처했음이 나타나 있다. 충렬부인이 옥에서는 벗어났지만 지함 속에서의 위태로움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긴장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에서는 충렬부인이 지함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월매가 옥중에 갇혀 고초를 겪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충렬부인과 관련한 위기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충렬부인을 돕던 월매마저 위기에 빠져 있음을 보여 주므로 위기 상황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작중 상황의 이해] **정답 ①**

금섬은 충렬부인의 서간을 호철에게 전하며 '사세가 급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풍전등화'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금섬은 월매에게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충렬부인에게 일어난 일을 '참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흥진비래'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충렬부인은 자신을 위해 죽은 금섬과 고생하는 월매에 대해 '박명한 죄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으리오?'라고 말하며 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란유골'은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충렬부인은 지함 속에서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안고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함 속에 들었으니 뉘라서 살리리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으므로 '전화위복', 즉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한 원수에게 복수하기를 소망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려움을 한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원수의 질문을 받은 호철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호철이 '묵묵부답', 즉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자세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막이나 사연을 알지 못한 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소재의 기능 파악]

〈보기〉에서 성진이 꿈에 대해 '이는 필연~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꿈'은 부귀와 정욕에 대한 성진의 욕심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이 글의 원수는 '일몽'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원수를 원망하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충렬부인을 만나고 있고, '일몽' 이후에 원수는 꿈속 충렬부인의 말을 실제 편지를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일몽'은 원수가 충렬부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미리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8 [서술 방식과 인물의 반응 이해]

원수가 머물고 있는 '서평관'을 배경으로 한 내용에서는 원수가 서융을 '한 번 북 쳐' 항복을 받아 냈다고 하였다. 이는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원수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원수는 자신에게 전해 온 편지를 접하고 나서 '보기를 다 못하여 대경하여'와 같이 크게 놀란 채 차마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읽지 못하고 있다.

22강 황월선전(黃月仙傳)

본문 118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⑤ **06.** ⓐ는 자신이 친정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일임을 근거로 들어 월선이 매우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④ **08.** 월선은 박 씨의 모함으로 인한 고통과 서글픔이 '이내 눈물 강물이 되었도다.'라고 할 만큼 매우 컸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서 집에 다녀갔다는 것을 승상과 월성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의 서술자는 월선을 살리고자 월성이 노력하고 있는 작중 상황에 대해 '오누이의 화목한 거동을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며 두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박 씨의 모함에 의해 고난에 처한 월선이 이후 장위와 결혼하여 유수 부인이 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적 사건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② 대화를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월선의 발화에 의해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는 않다.

④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을 뿐,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

⑤ 유수 부인이 된 월선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고난을 겪었던 상황을 언급하는 등 공간의 성격과 인물의 특징을 관련짓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월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초점 화자를 설정하여 사건이 진행되거나 초점 화자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Q 초점 화자가 뭔가요?

A 초점 화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의 서술 방식과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이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나 다른 인물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는데, 전지적 위치에서 각 인물들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제한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화자를 활용하면, ① 초점 화자가 작품의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전개시키는 듯한 서술이 나타나고, ② 다른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초점 화자의 심리가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제시되는 특징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보다 상세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①과 ②의 특징적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초점 화자를 활용한 서술 방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서술 방식과 함께 그에 따른 효과도 잘 알아 두면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수 부인, 즉 월선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승상은 '어떤 사람의 따님이 저러한고?'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수 부인이 월선이라는 것은 알아채지 못하고 보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월성이 승상에게 '빌기를 마지아니하'는 것은 월선에게 잘못이 없음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월성은 월선의 문밖 출입이 없었고 외인의 출입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월선에 대한 승상의 오해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박 씨가 언급한 '흉악한 일'은 자신이 직접 시비 운행을 시켜 꾸민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③ '월성의 변명'에 승상은 더욱 분해하면서 '이제 속절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월선에 대한 승상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선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의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에 해당한다.

④ 월선이 박 씨의 말을 듣고 심장이 흘러내리며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 모함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함을 안 것이 아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집에서 쫓겨난 월선은 장 진사를 만나 그의 아들 장위와 혼인을 하게 된다. 또한 뒤늦게 박 씨의 소행으로 월선이 누명을 쓴 것을 안 황 승상의 명으로 월선을 찾아 떠난 월성은 장위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다. 이후 월선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장위와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장위는 월선의 결백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집에서 쫓겨난 월선은 장위와 결혼한 후, 박 씨와 신분 관계가 바뀌어 더 높은 신분의 입장에서 박 씨를 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월선은 박 씨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장위와 결혼으로 그 분노가 더 커진 것은 아니다.

③ 월성은, 자신이 월선에 대해 오해했음을 안 아버지의 명에 따라 집에서 쫓겨난 월선을 찾으러 나섰다가 병이 들어 주점에 머물게 된다. 이는 월선의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므로, 긴장감을 해소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긴장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월선은 방에 있는 비단 틀을 보고 슬퍼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박 씨에게 꺼내고 있다. 따라서 비단 틀은 월선이 애초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던 상황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월선이 자신의 슬픈 과거를 잊고 있었다가 비단 틀을 보고 떠올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다.

⑤ 월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홍주 땅에서 빌어먹는 아이의 이야기로 박 씨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대부 집 여자로서 어찌 저 모양이 되었는고? 세상사도 모를 것이로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평은 월선의 고난이 부당한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나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이는 반응에 해당할 뿐 월선의 고난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04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⑤**

이 글에서 박 씨는 유수 부인의 말에 월선이 살아 있음을 눈치채고 후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국 월선은 박 씨를 용서함으로써 박 씨는 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상의 결정이 함께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함의 피해자인 월선보다 가부장인 승상의 영향이 더 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박 씨가 운행에게 '남복'을 입게 했던 것은 월선을 모함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집안 내의 재산 분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박 씨가 월선을 모함하며 '처분대로 하소서.'라고 월선의 처벌에 대해 말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한 말도 못하고 있는 승상의 모습은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집안의 문제를 처리하려는 가부장의 무능력함을 드러낸다. 〈보기〉에 따르면, 가부장의 권위는 가족을 잘 통솔할 때 인정된다고 했으므로 승상의 모습은 가부장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월선에게 칼을 들고 분노하는 황 승상은 박 씨의 모함을 믿고 월선의 행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박 씨의 모함은 황 승상의 재산 분배를 계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황 승상의 모습은 평온했던 가문에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④ 월선은 박 씨에게 '분기탱천'하며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이후 월선은 박 씨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재산 분배로 갈등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평온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은 박 씨가 유수 부인의 말을 듣고, 죽은 줄 알았던 월선이 살아 있을 경우에 자신에게 닥칠 후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에서는 유수 부인이 전한 월선에 대한 소문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일 뿐, 유수 부인이 월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후환에 대한 박 씨의 염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박 씨가 월선과 새로운 갈등을 형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주인공의 시련이 심화되는 일반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전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은 월선을 모함하기 위해 계모 박 씨가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승상으로 하여금 월선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로 운행에게 남장을 시킨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계모가 전처소생을 학대하며 시련을 주는 일반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은 월선을 살리고자 하는 월성과 달리, 아버지인 승상이 계모의 모함을 사실로 믿고 월선을 처벌하려는 모습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전처소생과 계모 간의 갈등에서 아버지가 계모의 편에 서

서 행동함으로써 주인공의 시련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은 후처 자식인 월성이 전처소생인 월선을 위로하는 말로, 후처 자식과 전처소생이 갈등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후처 자식의 학대로 인해 전처소생이 시련을 겪는 일반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은 박 씨의 박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한 월선이 유수 부인이 되어 자신의 방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시련을 극복한 후 전처소생이 가정에 복귀한다는 서사 구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모형 가정 소설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 갈등의 양상이라는 말이 뭔가요?

A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갈등의 양상이라 함은 지문 내에서 갈등 요소가 어떠한 상태를 띠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갈등의 양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갈등이 형성되거나 해소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06 [발화의 의도 파악]

ⓐ에서 박 씨는 자신이 친정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음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만큼 월선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박 씨가 '처분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월선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07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A]에서 월성은 '소자에게 맡기시면 멀리 보내리라.'와 같이 승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B]에서 월선이 문제 해결 의지를 박 씨에게 밝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월성은 '아버님은 잠깐 분노를 참으소서.'와 같이 정중한 부탁의 말로 발화를 시작하고 있다. 한편 [B]에서 월선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A]에서 월성은 '아버님은 나를~허장하오면 무사하리다.'와 같이 상황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월선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승상을 설득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한편 [B]에서 상황 대처 방법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B]에서 월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듯이 박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한편 [A]에서 월성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바꾸어 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A]에서 월성은 '~유혈을 내리오?', '~참혹한 것을 보리오?'와 같이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월선을 살려 달라는 자신의 의도를 승상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B]에서 월선은 '이 댁이 황 승상 댁이라 하였는가?'와 같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알려진 월선의 집이 바로 이곳이 맞는지를 물으면서,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계모 박 씨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Q 행적의 요약적 제시가 뭔가요?

A '행적'은 어떤 행위를 한 자취나 내용을 의미하고 '요약적 제시'는 소설에서 인물의 경험이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때로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선지에 있는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는 말을 판단할 경우에는 서술자의 직접 제시뿐만 아니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경험이나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보기〉의 첫 번째 문단에서 월선은 '이내 눈물 강물이 되었'다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서글픈 심정을 밝히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나의 한 몸이~그냥 지나가기 어렵도다.'를 통해 자신이 살아서 집에 다녀갔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와 동생에게 알리고자 글을 남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23강 허생전(許生傳)

본문 123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7.** 허생은 상업을 무시하고 허례허식을 일삼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사농공상의 계급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 **08.**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되는 한편, 허생이 제시한 현실 대응책이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사건들이 주로 우연성이 아닌 인과 관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또한 우연한 사건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이완이라는 실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독자에게 허생에 관한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인 듯한 인상을 심어 준다.

③ 허생이 이 대장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현실 대응책을 통해 허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④ 매점매석의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이완 대장에게 현실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허생의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실띠의 술이 빠져~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에서 허생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그가 몰락한 가난한 양반임을 드러내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음에도 허생은 이 대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본 이 대장은 화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이 대장이 현실 대응책을 재차 묻자,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세 가지에 걸쳐 대응책을 제시해 주었다.

③ 변 씨는 허생이 당당하게 만 냥을 빌려 달라고 하자 아무 조건도 없이 만 냥을 내주었다.

④ 허생은 장사를 할 곳으로 안성을 택했는데, 그곳은 경기도와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자 삼남의 길목으로 많은 상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⑤ 허생은 오랫동안 집에 머물며 글만 읽어서 바깥 사정을 몰랐다. 그래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서울 성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03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③**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이라는 의미로, ㉠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교언영색'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라는 의미로, ㉡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호언장담'은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을 뜻한다.

②, ④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뜻한다.

⑤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을 뜻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허생이 잔치나 제사에 사용하는 과일이나 상투를 틀 때 두르는 망건의 재료인 말총으로 돈을 벌었다는 설정에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허생이 이것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과 상인 계급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만 냥으로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쉽게 버는데, 이는 당대 유통 경제 질서의 취약함을 보여 준다.

③ 허생이 제시한 현실 대응책은 북벌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이 대장의 모습을 통해 조정이 주장하는 북벌론이 허구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허생은 두 번째 현실 대응책에서 명나라 유족을 위해 훈척과 권귀가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북벌론이 명나라와의 의리 때문이라는 조정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⑤ 허생의 제안에 대해 이 대장이 사대부들은 변발을 하거나 호복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실리보다 법도와 명분만 중시하는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에는 조선 경제의 취약성에 대한 허생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처음 보는 허생의 만 냥을 빌려 달라는 제안에 "그러시오."라고 말하며 선뜻 빌려준 것에서, 변 씨의 대범함과 과감함을 엿볼 수 있다.

③ 허생이 이 대장의 신분을 듣고 신임받는 신하라고 한 것은, 이 대장이 자신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직책에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이 대장이 허생의 두 번째 현실 대응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훈척과 권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⑤ 허생이 이 대장에게 화를 내며 사대부들을 '것들'이라며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례허식에 얽매여 현실적인 대응책을 하나도 실현할 수 없는 사대부들의 무능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 ㉯, ㉰는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 아니다. ㉮와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이 대장이 말하자 허생은 ㉰는 쉬운 일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인재를 얻기 위하여 임금이 수행할 일이다.

② ㉯에는 명나라 유족들에게 옛 은혜를 갚기 위해 총실의 딸들을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 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에는 명나라에 은혜를 갚으려면 권귀와 훈척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에는 청나라를 치려면 국중 자제에게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히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와 ㉰는 명나라에 대한 은혜와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주장하는 사대부들의 북벌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허생이 제시한 것이다.

④ ㉰를 제시하기 전에 허생은 이 대장에게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07 [비판적 감상]

허생은 조선 사회가 상업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경제 질서가 취약하게 되었고, 사대부들이 허례허식만 중시하여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허생도 글 읽기만 중시하고 사농공상의 신분 질서 체계를 옹호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08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이 글은 주인공인 허생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결말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허생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이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또 허생이 제시한 현실 대응책이 조선 사회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것이어서 실현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24강

민옹전(閔翁傳)

본문 128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각하였고, 1인칭 관찰자인 '나'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려 하였다. **08.** ② **09.**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였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불사약'과 '두려운 것'에 관한 손님의 질문에 민옹이 답한 이야기, 민옹이 탐욕스러운 양반층을 '황충'에 빗대어 풍자한 이야기, '나'가 은어라며 언어유희로 던진 말을 민옹이 재치 있게 되받아친 이야기 등 민옹과 관련한 일화를 나열하여 민옹의 개성과 달변가로서의 면모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는 민옹과 손님, 민옹과 '나'의 대립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은 선악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립은 민옹의 비범함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설정된 것이다.

③ '두려운 것'에 관한 민옹의 일화에 이어서 서술자가 민옹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나오지만, 민옹의 성격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공간도 현실의 장소이다.

⑤ 특정 인물, 즉 민옹과 관련한 일화가 나열될 뿐,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④**

민옹은 두려운 것을 보았느냐는 손님의 질문에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는 '나 자신'이 가장 두렵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열일곱, 열여덟에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그즈음에 말을 잘한다는 민옹을 소개받았다.

② '나'는 민옹이 이야기를 잘하며 그의 재담을 들으면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그를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했다.

③ 민옹은 '나'가 '춘첩자에 방제'라고 놀렸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재치 있게 대꾸를 했다.

⑤ 민옹은 손님의 불사약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답을 했고, 두려운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화를 내며 답을 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민옹은 '불사약'을 보았느냐는 말에 과거 병에 걸렸던 경험을 예로 든다. 그 경험은 이웃집 할미는 민옹이 병에 걸린 이유가 굶주림 때문이라고 하였고, 민옹이 그 의견에 따라 밥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옹은 불사약이 곧 밥임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A]에서 '그 사람'은 황해도에 황충이 들끓어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민옹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황충이 농사에 피해를 주므로 사람들이 잡아다 땅에 파묻을 계획이라며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 황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는 '그 사람'이 '~입디다', '~이랍니다'와 같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황해도에 들끓는 황충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후 민옹의 말을 통해 작가가 탐욕스러운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언급된 황충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② [A]의 황충은 벼농사에 해를 끼치는 실제 해충을 가리키고, [B]의 황충은 탐욕스러운 관리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작가가 부정적인 인간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한 소재이다. 따라서 둘 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의 황충은 '벼농사에 피해를 주'고, [B]의 황충은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존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의 황충의 공통된 특징(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은 [B]의 황충을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를 빗댄 우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⑤ [B]의 황충을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를 빗댄 우의적 표현으로 볼 때, '큰 바가지'가 있었다면 그 황충을 '잡으려고 했'다는 민옹의 말은 지배층의 백성 수탈이라는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Q 우의란 뭔가요?

A 우의(寓意), 혹은 우의적 표현이란 어떤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넌지시 비추어 전달하는 표현 방법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민옹은 곡식을 갉아 먹는 '황충'이라는 벌레보다 더 백성을 괴롭히는 벌레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을 벌레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민옹은 뛰어난 재치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추어올리고 칭찬하는 반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하'는 달변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에 대한 민옹의 답변은 민옹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며, 그의 달변가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은 '나'의 의도와 달리 민옹을 칭찬하는 말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으로 인해 민옹이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의 앞부분인 '손님이 물을 말이 다하여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분이 올라'에서, 손님이 약이 오른 상태에서 ㉠과 같이 질문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 대해 민옹은 '용', '범', '도끼', '활' 등을 신체의 일부로 비유하여 '두려워할 것은 나 자신만 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④, ⑤ ㉡은 한자를 사용한 언어유희로,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민옹은 한자 지식을 바탕으로 ㉡에 자신을 놀리는 뜻이 담겨 있음을 밝히고, 이를 다시 재해석하여 자신을 칭찬하는 말로 바꾸어 답변하였다.

0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에서 나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특정 곤충인 '황충'을 다양하게 부르는 말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백성을 괴롭히는 다양한 곤충을 소개한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불사약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문문의 방식으로 답변하여 불사약을 본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는 인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함에 대한 성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두려운 것이 자신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에서 주변 사람들은 민옹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런 벌레가 있는 듯이 놀라는 기색을 보이는데, 이는 벌레에 빗대어 '인간(지배층)'을 비판하려는 민옹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7 [서술상 특징 파악]

'계유년, 갑술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작가가 제시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1인칭 관찰자인 '나'를 등장시켜 주인공 민옹에 대해 본 대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 주인공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8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②**

민옹은 손님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도 막힘 없이 대답을 했다. 민옹처럼 '무슨 일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한자 성어는 '무불통달'이다.

[오답 풀이]

① '극기복례'는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이란 뜻이다.

③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이란 뜻이다.

⑤ '후안무치'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이란 뜻이다.

09 [인물의 특징 파악]

민옹은 곁에 있는 손님을 귀신이라고 하면서 조롱하여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서술자는 민옹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업신여기곤 하였다.'라고 하였고, 이를 들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며 민옹의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25강

이춘풍전(李春風傳)

본문 133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② **07.** ③ **08.**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열거의 방식을 통해 춘풍 아내의 유능함을 드러낸다. **09.**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쉬웠다.(여성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재산을 탕진하는 춘풍과 이를 막는 춘풍의 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춘풍과 추월, 춘풍의 아내와 추월 사이에 일어난 외적 갈등도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춘풍이 풍자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는 그를 희화화하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공간적 배경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공간적 배경이 바뀐다고 인물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④ 이 글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만 나타날 뿐 꿈에서 발생한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에서 춘풍은 평양으로 장사를 가기 위해 그 밑천을 마련하려고 호조의 돈을 빌린다. 그런데 춘풍이 ⓐ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기는 했지만, ⓑ에서 춘풍의 아내가 다시 재산을 모아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이 ⓐ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장사 밑천이 없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와 ⓓ에서 춘풍이 가산을 탕진한 것은 주색을 즐겨하는 그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② ⓑ의 과정에서 춘풍의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해 번 돈으로 장변이나 월수를 놓아 큰 돈을 버는 수완을 발휘했다.

④ 춘풍의 아내가 ⓒ에 대해 반대한 것은 평양에 가면 어수룩한 사람이 돈을 빼앗긴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으로, 춘풍이 돈을 탕진하게 될 상황을 염려해서이다. 즉 춘풍이 평양에 가면 ⓓ가 발생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⑤ 춘풍의 아내는 서울에서 춘풍이 가산을 탕진했을 때는 개인적인 경제적 수완을 발휘해 이를 해결했고, 평양에서 춘풍이 호조의 돈을 탕진했을 때는 비장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평양에 간 춘풍이 기생 추월로 인해 가진 돈을 탕진하고 추월의 집에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춘풍의 아내가 듣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비장이 되어 춘풍을 찾아간다. 이것으로 보아, 춘풍의 아내는 평양에 오기 전에 이미 춘풍과 추월의 일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러 이를 모른 척하며 춘풍을 벌하고 돈을 잃은 이유를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춘풍은 비장에게 호조의 돈을 잃게 된 경위를 말했을 뿐, 그 돈을 갚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② 춘풍이 수기를 쓴 이후에 아내가 집을 일으키자 교만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가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춘풍의 아내는 춘풍이 수기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 맹세했기 때문에 곧바로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④ 이 글에서는 추월이 자신의 죄를 묻는 비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추월이 춘풍의 아내 얼굴을 알지 못하고, 또 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한 상태이므로 그 정체를 몰랐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춘풍이 쓴 수기에는 가중지사, 즉 집안의 중대사를 모두 아내 김 씨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보기〉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다.'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동안 춘풍이 가졌던 집안의 경제권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춘풍의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② 춘풍이 수기를 쓰게 된 것은 주색에 빠져 가세를 기울게 했기 때문으로, 집안을 일으키려던 그의 노력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③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가장의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해서이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다.

④ 아내의 말을 듣고 춘풍이 수기를 고치는 것은 춘풍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큰돈을 상속받았다는 것으로,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춘풍이 ㉡과 같이 말한 것은 자신이 과거에 한 잘못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에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당당하게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이후에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춘풍이 또 그 돈을 다 쓰게 될 것을 염려하여 한 말로, 춘풍이 주색잡기로 또 탕진하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에는 춘풍에게 수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장사하려는 뜻을 접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④ ㉣에는 남편의 죄를 추궁하고 있지만, 남편이 다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⑤ ㉤ 이전에 '네 죄를 모르느냐?'는 춘풍 아내의 질문에 추월은 '춘풍의 돈은 소녀에게 부당하다.'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춘풍의 아내는 '네 먹었는데 무슨 잔말 아뢰느냐?'라고 하며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추월에게 빨리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말로 볼 수 있다.

06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②**

ㄱ. 춘풍의 행동과 심리가 수기를 쓰기 이전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때 춘풍이 아내와 다시 갈등하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ㄷ. '이때에~구나', '~행실 절로 난다'는 판소리 사설의 어투로서 가세가 살아난 후 달라진 춘풍의 행동과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ㄴ. [B]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라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대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ㄹ. 춘풍이 마음이 교만해져 다시 돈을 탕진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과장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춘풍이 춘풍의 아내와 갈등한다고는 있지만, 방탕한 인물의 전형성을 보일 뿐 악인으로서의 전형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07 [인물의 발화 의도 파악] **정답 ③**

'~에서 물어 주랴'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춘풍이 호조의 돈을 탕진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월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춘풍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추월에게 돌리기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② '너를 쳐서 죽이리라'는 명령형 어조가 아니라 다짐이 담긴 영탄적 어조로, 추월에게 죄를 물리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④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대조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설의법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질책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었지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뜻을 밝히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가]에서는 '~푼(돈, 냥) 받고 ~기'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의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춘풍의 아내가 바느질 품을 팔아 돈을 버는 비슷한 성격의 행동을 나열하여 춘풍의 아내가 옷 짓기 능력을 통해 돈을 버는 유능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09 [배경의 기능 파악]

춘풍의 아내는 남편이 호조의 돈을 잃게 되자 남장을 한 후 비장이라는 신분으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여성이 여성 그 자체가 아닌 남성의 신분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을 드러낸 것이다. 즉 당대가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한 가부장적 사회였으며 여성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26강

배비장전(裵裨將傳)

본문 137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자신보자 신분이 낮은 사공에게 공손하게(높여) 말할 것인지 낮추어 말할 것인지 사이에서 내적 갈등하고 있다. **08.** 자신의 급박한 처지를 알려 연민을 일으키는 한편 자신을 배에 태우는 일이 상대에게도 좋은 일임을 들어 설득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은 작품 외부에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심리까지 제시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미래에 인물이 불행한 상황을 겪을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다.
③ 판소리 사설의 어투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는 율문투가 쓰이지 않았고, 비극적 분위기도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선악의 대립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⑤ 서술자는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 외부에 있으며, 객관적이 아니라 전지적 시점에서 주관을 담아 전달하고 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사공은 배 비장에게 다른 사람은 배에 태울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공이 그를 경계해서가 아니라 먼저 돈을 지불한 부인의 허락이 없이는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계집은 배 비장이 양반답지 못하게 남녀유별 예의염치를 모르는 인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② 배 비장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계집의 말에 대해 차차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③ 배 비장이 자신에게 공손하게 말하자 계집은 그에게 해남으로 가는 배편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⑤ 사공은 배 비장이 부모 병환이 급하다며 배를 태워 달라고 하자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라며 배에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배 비장이 계집에게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것은 서울로 갈 수 없는 처지에 대한 답답함과 그 방법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을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권위를 앞세우는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로 질문을 하고 계집이 화가 나 대답하지 않자 양반의 신분을 앞세워 꾸짖는 행동을 통해 배 비장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배 비장은 자신이 지방 사람을 무시하며 한 손을 놓고 하대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배 비장이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우월 의식에 젖어 제주도 사람을 무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배 비장은 서울 가는 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양반인 자신에게 화를 내는 계집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는 빨리 제주로를 떠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고 한 것은 양반의 권위를 버리지 못해서 선택한 어투로 배 비장은 이것이 '춘몽'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그가 양반으로서의 우월감을 지니고 행동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④**

ⓐ의 '여보게', ⓑ의 '이 사람'이라는 배 비장의 하대에 계집이 불만을 표하자 배 비장은 ⓒ의 '여보시오'라며 계집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여 계집의 기분을 풀어 주고 있다. 한편, ⓓ의 '어이'라는 배 비장의 하대에 사공이 불만을 표하자 배 비장은 ⓔ의 '노형'이라며 사공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여 사공의 기분을 풀어 주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와 ⓔ이다.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에 가야 한다며 배 비장이 서울로 가는 배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계집은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오늘 안으로 제주도를 떠나 내륙인 해남으로 간다고 알려 주었다. 이에 배 비장은 서둘러 배로 달려 간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주인공 배 비장이 당일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배 비장은 부모의 병환 때문에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며 배편을 알아본 것으로, 이 배에서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다.
② 배는 배 비장이 아니라 해남으로 가려는 부인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④ 배 비장은 사공에게 뱃삯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배 비장은 남이 빌린 배의 행객이 되어 제주도를 떠나려 하고 있다.

06 [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 ③**

㉢에서 계집은 배 비장을 서울 양반이라고 말하며 공손하게 대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 서울 양반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공손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계집은 권세 있는 배 비장이 아랫사람에게 망신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 양반일지라도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즉 품행이 좋지 않으면 자기 남편에게 혼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기 위해 한 말이다.
② 배 비장은 자신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망신당한 일이 소문이 나서 제주도 여기저기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에 한탄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배의 행선지를 묻는 말에 '물로 가는 배'라며 엉뚱한 말로 답한 것은 자신을 하대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⑤ 갑자기 사공이 배 비장에게 공손하게 답하는데, 이는 배 비장이 사공

을 공손하기 대했기 때문에 태도를 달리한 것이다.

07 [갈등의 원인 파악]

배 비장은 하층 계급인 사공에게 공손하게 말하자니 양반으로서 초라한 마음이 들고, 또 막말로 대하자니 자신의 말에 답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배 비장은 사공에게 공대를 할지 하대를 할지 정하지 못해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08 [말하기 방식 파악]

배 비장은 자신이 부모 병환 때문에 급히 서울에 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사공의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배에 태우는 것이 선을 쌓는 일('적선')로 상대에게도 좋은 일임을 들어 배에 태워 주기를 설득하고 있다.

27강

옹고집전(壅固執傳)

본문 142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② **07.** ⓐ는 짚옹고집이 되어 참옹고집이 집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게 하고, 참옹고집의 잘못을 언급하여 참옹고집이 개과천선을 하게 만들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참옹고집과 외양이 같은 짚옹고집이 등장하여 두 옹고집이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한 송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서사적 흥미를 고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며 각 사건마다 서술자가 바뀌지 않는다.

② 사건의 전개에 따라 시·공간적 배경이 변화하지만, 각 배경이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③ 등장인물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외양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⑤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Q 역순행적 구성이 뭔가요?

A 역순행적 구성은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제시되지 않고 뒤바뀌어 있는 구성을 말하는데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역순행적 구성 외에도 소설의 구성 방식에는 순행적 구성, 병렬적 구성 등이 있어요. 순행적 구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으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전개되는 것이고, 병렬적 구성은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이야기가 동시에 엮어지는 것을 말해요. 고전 소설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라고 하는 참옹고집의 모습에서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눈물은 두려워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흘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기가 막히고 말도 못하는 것은 당황했을 때 나오는 행동으로,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이 자기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자 당황하고 있다.

② '누가 알아보리오, 뉘 집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행인들은 두 사람이 같은 모습이라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③ 참옹고집이 말하는 '남'은 자신을 가리키므로 자신을 몰아낸 '짚옹고집'에 대해 참옹고집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짚옹고집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빈민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03 [사건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③**

[A]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으로, 마을 사람들을 먼저 아는 척하는 짚옹고집 때문에 참옹고집이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참옹고집의 심정이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로 진술되면서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송사의 원인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외양이 비슷한 옹고집이 한 명 더 나타난 것이다.

② 송사 결과에 대해 행인들은 두 옹고집이 '상동'이라는 평가만을 하고 있으며 상반된 예측을 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송사를 하러 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는 짚옹고집 때문에 참옹고집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나타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송사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송사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온 짚옹고집이 처자 권속들에게 한 말로, 여기에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문맥상 뒷부분에서 마누라가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 또 있을까.'라고 한 말이나 '뭇 아들'의 '아버지가 큰 봉재를 보았다.'라고 한 말로 미루어 볼 때,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는 말은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이 송사 이전의 일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보기〉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참옹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해 온 것을 짚옹고집이 언급한 것이므로 ②는 적절하다.

③ '전곡을 흩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 것은 짚옹고집이 한 일이다. 〈보기〉로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참옹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인데 이것이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었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다.

④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흩어' 주는 것은 참옹고집의 재산을 짚옹고집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참옹고집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짚옹고집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참옹고집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오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0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B]에서 짚옹고집은 '아무쪼록 개과하라'고 한 뒤 허수아비로 변했으며, 〈보기〉에서 도사는 '개과천선하라'고 한 뒤 부적을 써 주고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자체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B]에서는 요청이 아닌 훈계에 따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뿐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진 않았으며,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B]에서 짚옹고집은 자신의 어진 마음 때문에 참옹고집을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보기〉에서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까닭으로 놓아준다고 하였다.

② [B]에서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이 후생에 징계 사례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사회적 효용을 중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보기〉에서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까닭으로 놓아준다고 하였으므로 가족의 피해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부모 박대'와 '모친 구박'은 모두 불효로 비인륜적 행위에 해당한다.

⑤ [B]에서 짚옹고집이 허수아비로 변하거나 〈보기〉의 도사가 사라지는 것은 신이한 사건이므로 작품의 전기성과 관련이 있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②**

〈보기〉의 부자와 이 글의 참옹고집은 둘 다 승려를 박대한 인색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런 인물됨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참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나는 징벌의 결과,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한다. 그러나 부자는 집이 연못이 되는 징벌을 받아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없으므로 징벌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참옹고집은 개과천선하여 징벌을 극복하는 데 비해 부자는 징벌을 극복하지 못했다.

④ 참옹고집은 집에서 쫓겨나는 징벌을 받는 데 비해 부자는 집이 연못이 되는 징벌을 받는다.

⑤ 참옹고집과 부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존재는 승려이므로 두 작품에서 징벌을 내리는 주체의 신분은 유사하다.

Q 신이한 사건이 뭔가요?

A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을 이르는 말로, 신이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작품이 전기성을 지닌다는 의미예요. 고전 소설에서 전기성은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요소를 지녔음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도술을 부린다거나 죽은 인물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와 등장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일 등이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07 [소재의 기능 파악]

도사가 참옹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짚옹고집을 만들 때 사용한 '허수아비'는 진위를 가리는 송사에서 참옹고집을 이겨 참옹고집을 집에서 쫓아낸 뒤 그를 개과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이 글의 주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28강 장끼전

본문 147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8. '각설'의 앞부분은 장끼가 서대주에게 양식을 빌리러 간 내용이었고 '각설'의 뒷부분은 딱부리가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추심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되므로 '각설'의 기능은 화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주먹볏에 흑공단~위풍이 헌앙한'에서 딱부리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딱부리의 신분이 양반이며 위풍이 헌앙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서대주 맹랑하다'에서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지만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표현하는 진술이 아니다.

③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나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와 같이 속담이나 옛글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것이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거나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서대주의 집이 있는 협사촌과 장끼의 집이 있는 양지촌이 공간적 배경이지만 이 공간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Q 옛말을 인용하며 말하기가 뭔가요?

A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옛날부터 전해 오는 유명한 말이나 어구를 인용하여 말하는 이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인용하는 옛말은 고사, 속담 등으로 다양해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예를 들어, 어릴 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든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도 옛말을 인용하며 말하기에 해당하지요.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서대주는 장끼와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장끼가 못마땅해 콧방귀를 뀌는 장면은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장끼는 오히려 아부하는 듯 콧소리를 내며 서대주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 "속담에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사건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⑤**

장끼는 콩알 하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양식을 구하고자 서대주를 방문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방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딱부리 또한 서대주의 도적질을 빌미로 삼아 서대주를 협박하여 양식을 가져오기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이 방문의 목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도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서대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는 양식을 빌리기 위해 서대주가 어떻든 대접하기로 하기로 계획했고, 딱부리는 서대주를 하대하고 겁박하여 만석을 추심하겠다고 계획했다.
③ 장끼는 시종일관 서대주를 존대하였으나, 딱부리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애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④ 서대주의 거처에 당도하여 장끼는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냐고 하여 서대주의 환심을 샀으나, 딱부리는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고 물어 서대주의 반감을 산다.

04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이해] **정답 ④**

장끼는 서대주가 도적질을 하여 부유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양식을 얻기 위해 그를 대접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모습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티끌 모아 태산'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③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여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이라도 남의 귀에 들어가기 쉬우니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05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③**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딱부리가 장끼에게 '조정을 농권하여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라고 하였으므로 지록위마와 관련이 깊다.

[오답 풀이]

① '각주구검'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 그 자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절차탁마'는 '옥이나 돌을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갈고 닦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시비 쥐는 자신을 딱장군이라고 말하면서 서대주의 도적질을 언급하는 딱부리의 건방진 태도에 화가 나서 골을 내는 것이지 몰락한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양식을 빌리러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간 장끼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장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 드러난다.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면서 화려한 복색을 갖추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신흥 부호의 화려한 생활상이 드러난다.
③ 몰락한 양반 신분인 장끼는 신흥 부호인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다. 반면 이러한 실리를 추구하는 장끼의 태도를 비판하는 딱부리는 양반의 위신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장끼와 딱부리는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들 간의 불화를 보여 준다.
⑤ 서대주가 몰락 양반인 딱부리를 결박하는 것은 신흥 부호가 막강한 권력과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보여 준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④**

딱부리가 자신을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라고 높이고 '도적질하는 서대주'라고 상대방을 낮춘 것은 상대방을 겁박하여 만석이라도 추심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지 양반 중심의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곧은 선비 정신 때문은 아니다. 또, 작품 뒷부분에서 서대주에게 애걸하는 모습을 참고할 때 딱부리가 곧은 선비의 정신을 지닌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주린 처자'는 몰락 양반인 장끼 가족들의 굶주림이 드러난 것으로, 이를 통해 당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심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우화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①은 적절하다.
② 옥관자는 양반들의 물건이므로 장끼는 양반인데, 이러한 장끼가 양식을 빌리러 다니는 것은 사회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보기〉의 우화 소설이 '신분제 사회의 변화'와 같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

아내기도'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할 때, ②는 적절하다.

③ 큰소리치던 딱부리가 자신이 불리해지자 애걸하는 모습은 신분제가 동요되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우화 소설이 '신분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도 한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③은 적절하다.

⑤ '장끼'와 '딱부리'와 같은 의인화된 동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의 삶과 향촌 사회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우화 소설은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신분제 사회의 변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아내기도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할 때, ⑤는 적절하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각설'은 고전 소설에서 화제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글의 경우 '각설'의 앞부분에서는 장끼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만 '각설'의 뒷부분에서는 딱부리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29강 황새결송

본문 152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지닌 속물적 존재이다. **09.** 직설적으로 관리들을 비판하면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동물들을 의인화함으로써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관리(지배층)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부자가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동물들의 송사 이야기를 통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자가 관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부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아니며, 이 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삽입되지 않았다.

② 동물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전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화에 해당한다.

③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부자의 처지에서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라는 표현에서 따오기가 황새에게 미리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부자는 자신이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면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얽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해 있다.

②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는지라.'에서 관원이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있음이 드러난다.

③ '그러나 이제 제 소리를 좋다 하면~'에서 황새가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정황이 드러난다.

⑤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에서 꾀꼬리가 자신의 청아하고 맑은 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시속'은 '그 시대의 풍속'이고 '물정'은 '세상의 이러저러한 실정이나 형편'을 의미한다. 친척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 인물이며,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이기노니'라는 내용을 참고하면 시속 물정에 밝은 인물이어서 뇌물을 바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친척이 과거의 판례를 내세워 송사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③~⑤ 친척이 부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한 것으로 보아, 인간의 도리를 알거나, 유교적 관념에 따르거나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04 [인물의 의도 파악] **정답 ③**

부자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형조 관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 동물들의 송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송사와 관련된 형조 관원들의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자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므로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소송에서 진 부자는 애달픈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지혜를 뽐내려 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자는 자신이 크게 소리를 내어 전후사를 아뢰면 관원들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려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에서 부자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Q 우회적으로 비판하기가 뭔가요?

A '우회'란 멀리 돌아서 간다는 뜻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돌려 말하면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도 동물에 빗대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라서 우회적 말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05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⑤**

'설의적 물음'은 의문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발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물음을 말한다. [A]의 부자의 말 중, '뇌물을 먹은즉 잘못 판결하여 그 꾀꼬리와 뻐꾹새에게 못할 노릇을 하였으니 어찌 화가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 하오리까.'라는 부분이 설의적 물음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잘못된 판결에 대한 부자의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으며, 이제 물러간다고 하였으므로 상대를 설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잘못된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④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고서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 **Q 감정에 호소하며 말하기가 뭔가요?**
>
> **A** 상대의 동정, 연민 등의 감정을 자극하며 말하는 방식을 감정에 호소하며 말하기라고 해요. 예를 들면, 「흥부전」에서 고난에 처한 흥부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말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이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이리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감정에 호소하며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06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 **정답 ②**

친척이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자이며, 소리의 우열을 다투다가 소송을 하자고 하는 것은 꾀꼬리, 뻐꾹새, 따오기이다. 그러므로 친척이 소송 제기의 주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친척이 등장하여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여 부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③ '뻐꾹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④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라는 표현에서 따오기가 황새에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서울 법관과 황새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07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②**

(가)와 (나)에서 판결을 좌우하는 요인은 뇌물이며, (나)의 동물 송사 이야기는 우회적으로 (가)를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친척이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송사가 시작되었다.

③ (가)의 송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돈'이지만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⑤ (가)에서는 친척이 관원에게 준 뇌물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준 뇌물이 송사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08 [인물의 성격 파악]

따오기는 소리에 자신이 없었지만 황새에게 약 먹임을 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09 [표현상의 특징 파악]

부자는 자신이 크게 소리를 내어 전후사를 아뢰면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얽어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동물 이야기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들을 비판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0강 구운몽(九雲夢)

본문 157쪽

01. ①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⑤ **07.** (1) 향로에 불을 (2) 말을 떨구지

0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①**

제시된 지문에서 '연국'이나 '토번'과 같은 국명으로 시대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지만,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육관대사와 성진의 대화에서 성진이 수책하는 원인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호승이 신이한 힘을 발휘하는 장면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소유가 십오륙 세~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라는 승상의 말을 통해 승상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성진이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에서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ㄴ. 대사(호승)는 성진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초월적 힘을 발휘하며 성진이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ㄷ. 공간적 배경인 연화도량이 불도를 닦는 곳이며, 성진이 부귀영화를 경험한 후 연화도량에서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ㄹ.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글의 주제는 주인공인 성진이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양소유의 삶을 통해 인생무상을 깨닫는 것이므로 선악의 대결 구도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시된 지문에서 선인이나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 **Q 선악 대결 구도가 뭔가요?**
>
> **A** 고전 소설은 대체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선징악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권선징악이 되려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립하는 구도로 사건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때 착한 사람을 '선인(善人)' 악한 사람은 '악인(惡人)'이라고 해요.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①**

성진은 팔선녀를 만난 후 세속적인 삶을 열망하며 불가의 적막함에 갈등하지만, 팔선녀가 직접 성진에게 입신양명이나 부귀공명을 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에서 알 수 있다.

③ '미색을 권련하여~적막함을 싫이 여기니'에서 성진의 내적 갈등을 사부(육관 대사)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네 죄인을 영거하여~'에서 신장이 대사의 명에 따라 성진을 풍도로 인도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에서 소유가 자신이 꿈에서 남악 형산 불경 강론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0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는 입몽의 순간이고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는 각몽의 순간이므로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염주'는 성진이 승려의 신분임을 암시한다.

② 사부가 '등촉'을 밝힌 것은 성진의 죄를 묻기 위해서이다.

③ 성진은 포단 위에서 꿈을 꾸고 있으므로 '섬돌'이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섬돌'은 성진이 사부에게 죄를 질책받는 곳이다.

④ '막대'는 호승의 등장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05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조신은 꿈속에서 여인과 고향으로 가서 살림을 시작했으나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성진은 꿈속에서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태어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오답 풀이]

① 「조신의 꿈」에서 조신은 장원을 맡아 관리하는 승려이고, 성진은 연화도량에서 불도에 정진하는 승려이다.

② 조신은 태수의 딸을 만난 후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관음보살에게 빌었고, 성진은 팔선녀를 만난 후 세속적 욕망을 가져서 풍도에 가게 된다.

③ 조신은 여인과 떠나는 꿈을 꾸고, 성진은 양소유의 삶을 사는 꿈을 꾼다.

⑤ 조신은 꿈속 경험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성진은 양소유의 삶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만 일장춘몽임을 깨닫는다.

06 [서사 내용의 파악] **정답 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 양소유로서의 삶이 하룻밤의 꿈인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천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진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팔선녀를 만난 성진은 불가의 적막함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③ 양소유로서의 삶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④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호승이므로 호승과 만난 후 천상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7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온 성진이 내적 갈등을 겪다가 꿈을 꾸는 입몽 부분은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이고,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의 화려한 삶을 경험하고 꿈에서 깨는 각몽 부분은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이므로 입몽의 첫 2어절은 '향로에 불을'이고, 각몽의 첫 2어절은 '말을 떨구지'이다.

31강 옥루몽(玉樓夢)

본문 162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④ **06.** '옥적'은 강남홍과 양창곡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강남홍은 옥적을 연주하는 이가 문창성의 정기를 이어받은 사람이며 양창곡일지도 모른다며 기대하고 있다. **07.** ③ **08.** ㉠의 '웃음'은 강남홍의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강남홍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자신감을 나타낸다. 한편 ㉡의 '웃음'은 오랑캐 장수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인 강남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양창곡이 느끼는 기쁨을 드러낸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장자방이 퉁소를 불어서 항우의 병사들인 강동 지역 자제들을 흩어 버린 일'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여, 강남홍이 옥적을 부는 것이 심리전을 펼치기 위함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만왕의 남만 진영과 명나라 진영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로 공간이 이동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② '마치 아침 햇살에 아름다운 봉황이 날아오르며 수컷이 노래를 부르자 암컷이 화답하는 듯'하다거나, '양창곡이 창을 짚고 조각상처럼 서서'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비유가 인물 간의 대립적 관계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남만 진영과 명나라 진영 간의 대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을 뿐, 삽화식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이질적인 사건이 제시되거나 사건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강남홍은 동초와의 대결에서 상모를 쏘아 떨어뜨리겠다는 첫 번째 예고를 실행에 옮긴 후, 동초의 왼쪽 눈을 맞히겠다는 위협적인 두 번째 예고를 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성공하기도 전에 겁을 먹은 동초가 먼저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강남홍이 연속적으로 자신이 예고한 바를 성공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남홍은 창을 뽑아 들고 나온 동초에게 "너는 돌격장이니 내 적수가 아니다. 빨리 다른 장수를 보내라."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남홍은 동초가 돌격장의 역할을 맡은 장수임을 근거로 들어 그와 싸울 뜻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뇌천풍이 자기 진영의 장수인 동초의 패배에 분노하여 강남홍과 대결을 벌이지만 강남홍의 칼 솜씨에 놀라 더 이상의 싸움을 포기한다.

④ 강남홍은 양창곡을 알아보고 일부러 칼을 땅에 떨어뜨린 후 양창곡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후 삼경에 다시 만나자며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말을 마치고 채찍질을 하여 오랑캐의 본진을 향하여 훌쩍 돌아갔다. 양창곡이 창을 짚고 조각상처럼 서서 오래도록 그쪽을 바라보다가 본진으로 돌아왔다.'를 통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인 강남홍을 적군의 장수로 다시 만나게 된 양창곡의 놀라움과 기쁨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의 줄거리 파악] **정답 ④**

강남홍은 양창곡을 만나고 온 후, 만왕에게 "오늘 명나라 원수를 거의 사로잡을 뻔했는데, 몸이 불편하여 진을 퇴각시켰습니다. 내일 다시 싸워야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몸 상태를 핑계로 전투를 미루면서 전쟁에 승리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밤중에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때 만왕에게 이야기한 것은 거짓된 진술이고, 사실은 양창곡이 있는 명나라 진영으로 돌아갈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명나라의 동초와 뇌천풍이 강남홍에게 패배한 후, '명나라 진영의 여러 장수들이 서로 돌아보며 출전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를 통해 강남홍과 대적하겠다는 여러 장수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남홍과의 대결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남홍은 명나라 진영에서 화답하는 옥적 소리를 듣고 '잠시 옥적을 멈추고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있지 않다.

③ 강남홍은 동초와 대결하기 전 손삼랑에게 상대를 자극하는 말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삼랑을 전투에 참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한 선전 포고에 해당한다.

⑤ 양창곡은 강남홍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상대가 강남홍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창곡이 강남홍을 환생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모습이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강남홍이 상대 장수가 양창곡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려 했던 것은 명나라 진영에서 화답한 옥적 소리를 듣고 난 후에 해당하는 것이지 만왕을 구하라고 한 사부의 명을 수락했을 때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양창곡은 강남홍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강남홍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오랑캐 복장을 한 강남홍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는 〈보기〉의 '달라진 상황이나 처지, 변장이나 변복 등으로 인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양창곡은 강남홍이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지상계에서의 그녀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기〉에서 '지상계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고 한 점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강남홍은 만왕을 구하러 와 남만 진영의 장수로, 양창곡은 이와 대립하는 명나라 진영의 장수로 나서고 있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지상계에서의 두 인물의 만남이 '아국과 적국'이라는 대립적 위치를 바탕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강남홍이 '어찌 남과 북에서 그 짝을 잃어버리게 하였다가 서로 만나 합치게 되는 것이 이토록 늦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전투에서 양창곡과 다시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별한 상황이었다. 이는 〈보기〉에서 '양창곡과 강남홍은 지상계의 인물'이지만 천상계에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지상계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강남홍이 만왕인 나탁에게 '내일 다시 싸워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양창곡이 있는 명나라 진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짓 보고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이별했던 주인공'(강남홍과 양창곡)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사 전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가 기울어지는 급격한 형국의 전개'를 나타내거나 이를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강남홍은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를 저버릴 수 없는 만왕의 장수이고, 양창곡은 명나라의 장수이므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적장끼리의 관계상 특이성'에 해당한다. 명나라에 대한 강남홍의 우호적인 태도는 이들의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개연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만왕의 장수이자 전투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 강남홍은 '짝은 양 공자 한 분뿐'이라고 여기며 옥적 소리를 확인하려는 하는데, 이는

적장끼리의 치열한 갈등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일반적인 군담들과 구분되는 특이성이다. 이는 〈보기〉에서 '일반적인 군담은 남성을 중심으로 적장끼리의 치열한 갈등 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적장 및 적장끼리의 관계상 특이성'을 통해 '전형적인 군담과 변별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라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강남홍은 전투 과정에서 양창곡을 확인한 후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정신이 황홀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적장끼리의 관계가 '치열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연분이 있는 사이라는 특이성과 그에 따른 전투는 적장이 양창곡일 수도 있다는 강남홍의 '기대'가 '확인'되는 '과정의 서사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양창곡을 만나고 돌아온 강남홍이 내일 다시 싸워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탁은 강남홍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조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탁이 '시중을 들면서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밤에 양창곡에게 돌아가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이별했던 양창곡과 강남홍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데에 있어, 장애 요소를 통해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강남홍이 옥적을 불자 명나라 진영에서도 옥적으로 화답한다. 이에 강남홍은 옥적을 연주한 사람이 양창곡일 것이라 짐작하고, 결국 전투에 나가 양창곡과 만나게 된다. 이로 볼 때 '옥적'은 강남홍과 양창곡의 만남을 매개하는 도구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홍은 옥적을 불고 있는 사람이 문창성의 정기를 이어받은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짝인데, 자신의 짝은 양 공자뿐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7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③**

[A]에서 소유경은 '필마단기', 즉 한 필의 말을 홀로 타고 전투에 참여하려는 양창곡의 출전을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양창곡은 이러한 소유경의 말을 거절하고 다른 중심인물인 강남홍과 대결을 하러 나가며 이 과정에서 '강남홍의 무예가 절륜한 것을 알고 한번 대항해 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상대의 실력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소유경은 양창곡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삼군을 지휘하'고 '국가의 안위'가 달린 몸이라는 점을 들어 출전을 만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B]에서 양창곡은 적장의 정체가 다른 중심인물인 강남홍인지 모르고 출전하고 있다.

② [A]에서 '종묘사직의 중대함'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은 양창곡이다. [B]에서는 이러한 양창곡이 직접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A]와 같이 말한 소유경이 양창곡 대신 강남홍과 맞서야 한다든지, 이를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소유경은 '한때의 분노로 승부를 내려'한다고 말하면서 나라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당부할 뿐, 비난하지는 않는다. 또한 [B]의 과정이나 그 이후까지도 주변 인물인 소유경은 다른 중심인물인 강남홍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A]에서 '몸을 보전하고 나라를 위하는 뜻'은 대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로 소유경이 발언한 것이다. 그러나 양창곡은 출전하므로 소유경이 말한 바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몸을 보전하고 나라를 위하는 뜻'을 가지고 양창곡이 대결에 나섰다고 보더라도 [B]에서 소유경이 양창곡의 활약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 뜻을 이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Q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이 뭔가요?

A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은 인물의 유형을 서사 구조 내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이때의 중요도는 핵심적인 사건을 이끌어 가는 인물이냐를 기준으로 살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 인물'은 주인공을 제외하고 사건의 진행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주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계에 따라 인물이나 사건의 관계를 암시하거나 주제를 부각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 인물과 중심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소설에서 서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은 자극을 받아 돌진하는 적장과 달리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할 행동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후의 활약상을 고려할 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은 강남홍이 그냥 물러난 연유를 모르는 소유경과 달리, 죽은 줄 알았던 강남홍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는 양창곡의 모습을 보여 준다.

Ⅱ 가전체·판소리 사설

32강

공방전(孔方傳)

본문 169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⑤ **09.** 돈을 의인화하여 가계와 생애를 서술하는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공방은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끝인 상을 좇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쳤다고 서술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공방은) 때에 따라 그에 맞게 잘 변하더니'에서 알 수 있다.
② '공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에서 알 수 있다.
③ 황제 시절에 공방의 조상을 본 관상가가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드러난다고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름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⑤ 공방이 오나라 왕 비에게 붙어 많은 이득을 보았다고 하였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공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라는 부분에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ㄱ), 공방의 조상 시기부터 공방 사후의 일까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ㄴ). 또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공방의 장점과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게 하는 공방의 단점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ㄷ). 그러나 '돈'을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주제를 우회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자(ㄹ)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0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그때 공방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였고'에서 [C]는 공방 사후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와 [C]는 모두 과거형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④ [A]와 [C]에서는 모두 공방을 등용하고자 하므로 대상을 긍정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⑤ [A]와 [C]는 각각 '무제 때'와 '당나라'라는 역사적 시기에 돈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상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04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⑤**

공방의 외양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가 났으므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표리부동'이라는 한자 성어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견물생심'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이라는 뜻이다.
② '일취월장'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이라는 뜻이다.
③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이라는 뜻이다.
④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이라는 뜻이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공방의 말 한마디가 황금 백 근의 값어치가 있을 만큼 공방의 권세가 대단하였다는 의미이다.

0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④**

화교는 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귀어 큰 재산을 모았으나 군사 자금(군자)을 맡는 일에 공방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군사 자금과 관련된 인물은 '곡량의 학문으로 벼슬에 나아간 이'이다.

[오답 풀이]

① 완적은 성격이 활달하여 속물을 즐기지 않았는데도 공방의 무리와 술집에 이르러 때로는 취하도록 마셨다.
② 왕이보는 입에 일찍이 공방의 이름을 담지 않고 다만 '그것'이라고 일컬었다.
③ 공우는 공방이 장사치의 이익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를 다 곤궁하게 하므로 면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유안은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임금께 청하여 다시 공방의 방법을 써서 나라의 씀씀이를 편하게 하자 하였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사신은 공방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았으므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일으켜 주고 해를 덜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해를 끼치는 일을 하였다고 평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빈칸에는 공방이 끼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부민후가 되어 나라의 창고를 채웠다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일으켜 준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백성이 상을 좇게 한 것은 백성이 농업을 천시하게 만든 일이므로 백성이나 나라에 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
②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쳤다는 것은 매관매직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③ 바둑 두기와 투전하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투기를 일삼았다는 뜻이다.
④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따졌다는 것은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던 공방이 한 일이므로 부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08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보기〉의 홍보는 돈을 반기며 돈은 생살지권을 가진 것으로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B]에서 공방이 돈만 있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사귀고 통하였다는 것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

릴 수 있다.'라는 것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기〉의 홍보가 돈을 대하는 관점 및 [B]에 서술된 '돈'에 대한 관점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풀이]

① '돈이 돈을 번다.'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더 쉽다는 의미이다.
② '사람 나고 돈 났다.'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③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는 돈의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④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는 자격 없는 사람이 나선다는 의미이다.

09 [서술상의 특징 파악]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는 것은 엽전 즉 돈을 뜻하므로 공방은 돈을 의인화한 것이다. 또, 공방의 조상부터 아들까지 가계를 서술하고 공방의 생애를 언급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전기처럼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므로 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Q 전(傳)의 형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A 전의 형식이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즉,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서술 형식을 말하는데, 가전체의 경우엔 '인물 소개–인물의 주요 행적–인물 평'의 순서로 전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다 보면 조상이나 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요.

33강 국순전(麴醇傳)

본문 174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⑤ **06.** 산도의 말은 국순의 앞날을 예언하여 독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도록 한다. **07.** ⑤ **08.** 국순은 임금이 정사를 폐하였을 때 함구무언하였으므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섭법사, 산도, 관상 보는 자와의 예화 등을 열거하며 국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② 시·공간적 배경은 인물 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진 후주', '당나라', '주나라' 등의 추론이 가능하다.
④ 시간 순서대로 인물의 가계와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다.

Q 갈등의 해소가 뭔가요?

A 갈등의 해소는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갈등의 양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 걸 말해요. 하지만 갈등의 해소가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립하는 상황이나 인물 중 한쪽이 승리하거나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것도 갈등 해소라고 해요.

0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국순은 임금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자신의 나이듦을 지적하고 꺼려하자 벼슬에 연연해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물러나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만경창파'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이르는 말로 '국순의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 산도는 국순이 장차 세상에 해를 끼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③ ㉢에서 국순은 청주종사에서 평원독우로 강등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권세를 얻은 국순이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03 [인물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⑤**

'진 후주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부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의 자리를 주었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평원독우를 시켰다는 내용은 있으나 국순이 청주종사의 관직을 싫어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국순은 임금이 정사를 폐하여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고 서술되어 있다.
③ 국순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④ 임금이 순으로 하여금 군신의 회의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B]에는 국순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와 국순에 대한 산도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국순의 관직 입문, 국순에 대한 임금의 총애, 국순의 입신양명, 국순의 국정 문란, 은퇴와 죽음이 시간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국순의 조상 모와 그 후손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③ [C]에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돈을 좋아했던 국순(간신)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이를 다시 [E]에서 사관은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다.
④ [D]에서 국순의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과 그 후손의 번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⑤ [E]는 사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순을 평가하면서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임춘은 숨어 지내며 존경받는 것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과거에 연이어 응시했던 삶을 고려하면 부패한 과거 제도 자체를 거부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국순은 여러 벼슬을 하였으나 〈보기〉에서 임춘은 과거에 실패하고 숨어 지냈다고 하였으므로 국순의 삶과 임춘의 삶은 차이가 있다.

② 이 글에서 사람들이 술을 즐겼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임춘은 숨어 지내며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하였다.

③ 임금이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한 것은 술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은 국순의 모습은 간사한 벼슬아치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파악]

국순이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산도의 말은 국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므로 독자들은 예언의 참, 거짓을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

07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이 글에서 국순은 벼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고 하였으나, 〈보기〉에서 국 씨는 스스로 물러가 능히 천명으로 세상을 마쳤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국순의 90대 선조는 모, 즉 보리이므로 농업과 관련이 있고, 〈보기〉에서 국 씨는 대대로 농가 태생이라고 하였다.

② 국순의 선조 모는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국 씨는 태평을 이루어 그 공이 성대하다 하였다.

③ 국순은 임금이 그를 매양 감싸고돌았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국 씨는 임금의 총애가 극도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④ 〈보기〉에서 국 씨는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그 화가 비록 자손에게 미쳤더라도'라고 서술되어 국 씨의 잘못으로 후손이 화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8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사신의 평가에 의하면 국순이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음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던 것을 말한다. '함구무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한자 성어에 해당한다.

34강 심청가(沈淸歌)

본문 179쪽

01. ⑤ **02.** ① **03.** 심 봉사가 맹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04.** ③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 ㉠에는 심 봉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심청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진양조가 들어가야 한다. ㉡ ㉡에는 심청과 심 봉사가 서로를 알아보며 만나는 동시에 심 봉사가 극적으로 눈을 뜬다는 점에서 자진모리가 들어가야 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막상 떠날라고 허니 도화동이 섭섭하든가 보드라.'를 통해 황성길에 오르려고 하는 심 봉사의 심리에 대해 서술자에 해당하는 창자가 개입하여 논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복', '괴나리 띳빵' 등의 소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은 심 봉사가 도화동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소재일 뿐, 사건의 방향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② 뺑덕이네가 심 봉사 곁을 떠나는 모습에서는 특정한 인물이 그 사이에 등장하지 않고, 심 봉사와 심청 간의 만남의 과정에서도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심 봉사와 심청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희극적인 분위기는 연출되고 있지 않다.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교차되거나 그에 따라 감춰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Q 복선이 뭔가요?

A '복선'은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적으로 알려 주는 서사적 장치를 말하고, 여기서 '암시'는 전달하거나 뜻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복선은 현재 상황과 미래 사건 사이의 관계에 개연성이나 필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독자가 사건 간의 관계, 소재나 상황 등을 최대한 연결 지으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①

뺑덕이네는 심 봉사에게 시집온 후 가산을 탕진하며 떠날 기회를 엿보는 와중에 황성길을 빌미로 이를 실행해 옮긴다. 이 과정에서 뺑덕이네는 겉으로는 '여필종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심 봉사를 따르는 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② '심 황후께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오시지 않으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를 통해 아버지를 기다려도 쉽사리 만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맹인 잔치를 연 것을 후회하는 모습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네 여봐라.~모셔 들여라."를 통해 거주성명을 기록해 심 봉사를 찾으라고 한 것은 예부 상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심청이 먼저 명령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아이고, 아부지!" 이후의 상황을 통해 심 봉사는 심청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서야 심청을 알아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전에 심 봉사는 맹인 잔치를 연 것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뿐 황후를 자신의 딸이라고 짐작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예, 소맹이 아뢰리다.~목숨을 끊어 주오."에서 심 봉사는 '산후 탈로 상처', 즉 심청의 어머니가 심청을 낳은 후 죽었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 [구절의 서사적 기능 파악]

㉮는 황성에서 열리는 맹인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고을 수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심 봉사는 이러한 점을 뺑덕이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급히 황성에 올라가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 따라서 ㉮는 심 봉사가 맹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4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고자 '이 잔치', 즉 맹인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를 기다리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깊은 비애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심청은 아버지를 만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와의 상봉을 계속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도화동'은 심 봉사의 '고토', 즉 고향 땅으로 심 봉사가 관가에 다녀온 후 맹인 잔치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뺑덕이네에게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② '도화동'에서 심 봉사와 뺑덕이네가 함께 '이 잔치'로 향하는 도중에 뺑덕이네는 황 봉사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한다. 이는 심 봉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④ '별궁'은 맹인 잔치에 참석한 심 봉사가 심청과 만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심청은 '피골이 상접'한 심 봉사를 보게 된다. 그러나 산호 주렴에 가리어 상대가 아버지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거주와 처자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⑤ '이 잔치', 즉 맹인 잔치에 참석한 심 봉사는 점고 과정에서 심청이 찾던 심 맹인임을 확인받고 '별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심청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부녀지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인당수 제수로 죽'었던 심청이 황후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심청의 자기희생적 모습과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보기〉에서 언급한 '효 사상'의 추구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기희생적 효의 추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뺑덕이네는 심 봉사의 가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욕망으로 심 봉사 곁을 떠나 부부로서의 연을 쉽게 끊어 버린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윤리 부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눈물이 뚝뚝뚝뚝'이나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는 '눈물이 뚝뚝'이나 '버선발로 우루루'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도적으로 판소리 창자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여 늘어뜨리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판소리 창자의 자유로움에 기반을 두어 진행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예, 소맹이 아뢰리다'라고 말하며 심청을 '동냥젖을 얻어먹여' 키웠다는 심 봉사의 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공동체적 삶을 위한 상생의 가치라는 요소를 서사 흐름의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소리를 허니 일이 늦게 되었'다고 밝히는 것은 판소리 창자가 심 봉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도 심청이 심 봉사임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창을 하다 보니 늦어졌다는 판소리 창자의 설명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판소리 연행의 과정에서 작중 상황의 전개 속도가 판소리 창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심청과 심 봉사가 만나게 된 이후에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된다는 비현실적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보기〉의 지은의 이야기에서는 효심으로 인한 비현실적 사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지은이 봉양을 하는 대상은 어머니인 반면, 이 글에서 심청이 봉양하는 대상은 아버지이다.

③ 〈보기〉에서 지은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 한편 이 글의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을 인당수의 제물로 남경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지은이 스스로를 종으로 판 사실을 안 어머니가 한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심 봉사 역시 자신을 죽여 달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을 팔아먹었다고 한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보기〉에서 지은은 효성에 감동한 화랑과 왕으로부터 곡식, 옷, 집 등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로 물질적 보상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글의 심청은 자신을 인당수의 제물로 바친 후 황후에 오른다는 점에서 신분 상승으로도 효심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A]에서는 황후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된 심 봉사가 "내 딸이면 어디 보자~아이고, 답답허여라! 어디, 내 딸 좀 보자!"와 같이 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다가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B]에서는 눈을 뜨게 되는 유사한 상황이 여러 맹인들과 짐승들의 모습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는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와 같이 심 봉사가 눈을 뜬 상황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통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모든 존재들이 눈을 뜨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인물 간 갈등을 빚는 반목의 모습이나 그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는 심청이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심 봉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심 봉사가 심청을 보고 싶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답답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맹인과 짐승들이 눈을 뜨는 현재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을 뿐, 미래의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에서 맹인과 짐승이 예상치 못하게 눈을 뜨는 상황에서 인물과 자연 간의 동질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에서 심 봉사는 심청과의 만남을 미처 예상치 못한 채 만나게 되는데, 서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이질적 심리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에서 심 봉사는 "웬 말이여?"라는 말을 반복하며 딸을 만난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 심 봉사가 심청에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B]에서는 눈을 뜨게 되는 여러 맹인들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는 모습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0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에서는 '열녀(烈女)의 '열'이 '열 십(十)'의 '열'과 소리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ㄱ). 또한, "어서 올라가세.", "짊어지고 가세."와 같은 청유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황성길에 오르는 것을 재촉하고, 이를 위해 행장을 차려 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ㄴ. ⓐ에서는 발화 대상인 뺑덕이네를 칭송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동행을 기대하는 심 봉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동행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ㄹ. ⓐ에서는 '열'과 '백'이라는 수의 크기를 활용하여 남편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를 겉으로 내비치는 뺑덕이네가 '열녀'보다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인물과의 비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9 [갈래의 특징과 성격]

㉠의 장단이 포함된 장면은 심청이 '어찌 이리 못 오신고'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맹인 잔치를 열었음에도 아버지를 만나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에는 구슬픈 내용이 전개되는 대목에서 주로 쓰이는 '진양조'가 적절하다. 한편 ㉡의 장단이 포함된 장면은 심 봉사와 심청이 극적으로 상봉할 뿐만 아니라 심 봉사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에는 극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목에서 주로 쓰이는 자진모리가 적절하다.

35강 흥보가(興甫歌)

본문 184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③ **05.** 가난 때문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을 형편이 못 되는 흥보가 양반 의관을 초라하게 구색만 갖추고 팔자걸음을 걷는 모습을 통해 신분제가 붕괴되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반의 권위 의식과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06.** ⑤ **07.** ④ **08.** ⑤ **09.** ③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초월적 힘을 지닌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호방과 흥보의 대화에서 매품팔이 정보가 제공되고, 중간 부분 흥보와 흥보 마누라의 대화에서 돈의 출처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뒷부분 사령과 흥보의 대화에서 흥보의 매품팔이를 누군가가 가로챘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② 흥부의 아들들에게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이라고 하거나 병영에서 '볼기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흥보가 매품을 팔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흥보의 초라한 차림새를 통해 몰락한 양반이라는 처지가 드러나 있다.

⑤ '댕강댕강', '허유허유', '벌벌'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02 [사건 전개 과정 파악] **정답 ③**

ⓒ에서 마삯을 받은 흥부는 좋아하며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고마움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흥보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질청에 곡식을 빌리러 간다.

② 호방은 마삯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 흥보의 요청을 들어준다.

④ 흥보는 병영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 팔자 좋아~내 팔자는 왜 그런고'라며 가난의 이유가 팔자 때문이라며 한탄하고 있다.

⑤ 병영에서 매품팔이를 하지 못하게 된 흥보는 가족들의 굶주림 때문에 막막해하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환자를 얻으러 간 질청에서 호장은 흥보에게 매품팔이를 권함으로써 양식이 없다는 문제 상황의 해결책을 제공하게 되고, 병영에서는 꾀수 애비가 매품팔이를 발등걸이함으로써 흥보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흥보는 질청에 양식을 빌리러 간 것이며 공포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매품팔이를 하러 병영에 간 흥보는 병영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다가 매품팔이를 발등걸이 당함을 알게 되어 막막해 하므로 병영이 인

물이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② 질청에서 양식을 빌려야 하는 흥보는 호방에게 존대를 할지 하대를 할지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으므로 인물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병영에서도 볼기를 내놓는 흥보를 사령들이 놀리고 있으므로 신분 질서가 와해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흥보가 양식을 빌리러 가는 질청은 당대 사회의 문제인 서민들의 궁핍을 드러내는 공간이 맞지만, 병영 또한 매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당대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이 아니다.

⑤ 질청은 양식이 부족한 흥보의 상황이 드러나며 매를 대신 맞기로 했으므로 비극성을 지닌 공간이라 볼 수 있지만, 병영에서는 결론적으로 흥보의 매품팔이가 좌절되므로 병영을 인물의 고통이 해결되는 희극적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흥보 마누라는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흥보의 말에 "소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단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서 보았소."라며 깜짝 놀라고 있으므로 매품팔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흥보는 마삯으로 지정된 닷 냥을 걸어서 갈 테니 돈으로 달라고 한다. 이를 통해 흥보의 가난한 삶을 추론할 수 있다.

② 마삯을 받은 흥보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안 어른이 돌아오면 영접하는 게 도리라고 하면서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흥보 마누라의 울음소리에 아버지가 병영에 간다는 걸 알게 된 흥보의 아들들은 매품 팔러 가는 흥보에게 떡을 사 오라고 한다. 이런 모습에서 철이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⑤ 대장기와 숙정패, 군로사령들이 있는 병영의 모습을 본 흥보는 숫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이는 무시무시한 병영의 모습을 본 흥보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5 [작품의 의도 파악]

양식이 떨어져 질청에 환자를 빌리러 가는 형편이면서도 양반이라는 신분 때문에 초라하게나마 구색을 맞춰 옷을 갖춰 입고 팔자걸음으로 걷는 모습은 신분제가 붕괴되는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반의 권위 의식과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내용에 따라 창과 아니리를 교차하는 것이 드러나지만, 빠르기에 따른 창은 인물의 정서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사건의 요약적 전개는 아니리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3·4조나 4·4조의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리듬감을 지닌 문장이 길게 이어지면서 산문적 성향을 띤다.

② '-ㄴ다'는 현재형 시제에 해당하며 흥보가 지금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전달이 가능하다.

③ '천불생 무록지인'은 한자어로 양반의 언어에 해당되며 '볼기전 보는 놈'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평민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④ '야단났지'는 병영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Q 판소리에서 창(唱)이 뭔가요?

A 판소리 사설은 '창'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운문으로, 대개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하는데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모리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진양조는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어요. 자진모리는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흥분과 긴박감을 주는 장단이에요.

07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④**

흥보 마누라는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라는 고사와 속담을 활용하여 흥보를 설득하고 있다.

08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호방은 양식을 빌리러 온 흥보에게 매품팔이를 권유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권하고 있지는 않으며, 흥보에게 주는 돈도 호방의 돈이 아니므로 화폐를 유통시켜 부를 축적하려는 신흥 계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돈으로 죗값을 대신하는 것은 화폐 경제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매품팔이를 가로챌 만큼 서민들의 삶이 힘겹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양반인 흥보가 중인인 호방에게 하대와 존대를 고민하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이다.

④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돈의 위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09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파악] **정답 ③**

매품팔이를 하러 갔는데 꾀수 애비가 먼저 가로채서 낭패인 상황이므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이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와 유사한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꾀수 애비가 흥보가 믿고 있던 사람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Ⅲ 설화·수필·민속극

36강

주몽 신화(朱蒙神話)

본문 190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⑤ 05. ③ 06. ④ 07.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했고, '주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 쏘는 능력을 중시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에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부여에 내려왔다는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의 신성성을 부각할 뿐 그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유화의 말이나 주몽의 말을 직접 제시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서술자는 금와가 왕이 되어 천도하는 과정, 주몽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 주몽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가섭원, 우발수, 졸본천 등의 구체적인 지명과 해부루, 금와, 송양 등의 구체적인 인명을 통해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주몽은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양이 빛을 비추고 짐승들이 도와주는 전기적이고 우연적 사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

Q 적강 화소가 뭔가요?

A 적강 화소란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화소를 이르는 말이에요. 인간계가 현실적, 경험적 세계라면 천상계는 신성한 초월적 세계예요. 대개 설화나 고전 소설에 나오는 적강 화소는 인물의 신성성이나 비범함 등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는데, 천상계 인물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거나 교화시키기 위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유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몽 신화」에서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등장에는 적강 화소가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몽은 천상계 인물의 자식일 뿐, 그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천상계 인물이 죄를 지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의 등장에는 적강 화소가 쓰였다고 할 수 없어요.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유화는 해모수와 연을 맺고 알을 낳았는데, 금와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개와 돼지에게 주기도 하고, 들판에 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화가 자신이 알을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주몽은 모둔곡에서 만난 세 사람이 현명함을 깨닫고 그 능력을 살펴 일을 맡겼다. 이는 건국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한 것이다.

③ 비류국의 왕인 송양은 사냥을 하던 주몽을 보고는 군자라고 칭하며 만남을 반가워했다.

④ 아란불은 꿈에서 부여의 도읍에 하늘의 자손이 나라를 세우리라는 계시를 듣고, 그 말대로 이행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⑤ 금와는 후환이 될 것이라며 주몽을 제거하자는 대소의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다.

03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①**

금와는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는데, 주몽은 날랜 말은 더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더 살찌게 하였다. 따라서 말의 외양만 본 금와는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이를 통해 주몽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를 지녔음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② 주몽과 대소의 갈등은 주몽이 말을 기르기 전부터 발생하였다.

③ 주몽은 말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④ 주몽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

⑤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은 대소의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주몽이 송양과 영토를 두고 벌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활쏘기 능력에 의한 것이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다. 조력자의 도움은 대소 일행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 받았다.

[오답 풀이]

①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은 그가 출생부터 평범한 인물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다.

② 주몽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은 그가 고귀한 혈통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③ 주몽이 어려서부터 활쏘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설정은 그가 영웅으로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드러낸다.

④ 주몽이 대소 일행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그가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 했음을 드러낸다.

05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에서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을 당시의 나이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때의 주변국 상황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정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사실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구려를 세웠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만 제시할 뿐, 주몽과 주변 국가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주몽의 나이가 22세라는 것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의 나이와 고구려의 신성성과는 연관이 없다.

④, ⑤ 고구려를 건국할 때 한과 신라의 통치자에 대한 정보만 언급했을 뿐, 주변 국가의 제도와 고구려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대소가 주몽이 '후환'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가 나중에 자신과 동부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대소는 주몽이 다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금와'는 금색의 개구리라는 뜻으로, 어린아이가 금색의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금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② 해모수가 도읍으로 정한 '옛 도읍'은 부여가 가섭원으로 천도하고 이름을 동부여로 바꾸기 전의 도읍을 이른다.

③ '새'는 버려진 알, 즉 주몽의 탄생을 돕는 자연물이므로 주몽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⑤ '물고기와 자라'는 대소 일행에게 쫓기던 주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07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상 파악]

유화가 중매도 없이 해모수와 사통하다가 귀양살이를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것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여에 활을 잘 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활 쏘는 능력을 중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7강 조신(調信)의 꿈

본문 194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 ㉡ 정토사를 짓고 수행한 것. **08.** 여운을 주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은 '현실(외화) → 꿈(내화) → 현실(외화)'의 환몽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담아 전달하는 액자식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한 인물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을 뿐, 선악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되었을 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순차적으로 사건이 전개될 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병치되지 않는다.

④ 이 글은 현실과 꿈이 교차될 뿐, 천상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꿈에서 깬 조신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운 후 불도에 정진하였다. 하지만 여인이 불도에 정진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조신은 관음보살 앞에서 평소 연모하던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② 조신의 꿈에서 부부의 연을 맺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조신이 아니라 여인이었다.

③ 조신은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가난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갔다.

④ 조신은 꿈에서 깬 뒤에 세상일에 전혀 뜻을 두지 않게 되었다.

03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④**

㉯에서 조신은 오십여 년을 살았는데, ㉮에서 조신이 꿈을 꾸었다 ㉰에서 꿈을 깬 시간은 하룻밤에 불과했다. 따라서 꿈속 시간과 현실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흘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조신은 ㉮에서 여인과 인연을 맺기를 소망하였는데, 조신은 이 소망을 ㉯에서 이루게 되었다.

② ㉮에서 조신은 관음보살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에서 조신이 잠에서 깬 곳도 같은 곳이었다.

③ ㉮와 ㉰에서 조신은 승려로서 살아갔지만, ㉯에서는 탈속하여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다.

⑤ ㉯에서 꿈을 꾼 후 ㉰에서 조신은 ㉮와는 달리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꿈에서 조신이 죽은 자식을 묻은 곳이 '해현령'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구체적 지명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구체적인 시대와 공간적 배경, 인명을 제시한 것은 독자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③ 주인공 조신이 세속적 욕망을 품고 있는 평범한 승려라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⑤ 조신이 '정토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내용을 통해 이 이야기가 사찰 건립과 관련된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Q 전설은 신화, 민담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설은 영웅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신화와 달리 대개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요. 또한,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모호한 민담과 달리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증거물, 지명, 인명이 제시되는 것도 민담과 다른 점이에요. 무엇보다 큰 특징은 인물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신화, 독자의 흥미 유발이 목적인 민담과 달리, 전설의 목적은 교훈 전달에 있다는 것이에요.

05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조신은 꿈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 즉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게 된다(ㄴ). 꿈에서 조신은 오십 년을 살면서 삶

의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맛보았다. 이런 점에서 꿈은 인생을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ㄷ). 또한 꿈은 조신이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 곧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해 달라는 소망을 성취하는 통로에 해당한다(ㄹ).

[오답 풀이]

ㄱ. 꿈에서 조신은 노화, 굶주림, 자식과의 사별 등 현실의 고통을 모두 느끼게 된다. 따라서 꿈은 현실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공간이 아니다.

0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돌미륵'은 꿈에서 깬 조신이 꿈속에서 자식을 묻었던 곳에서 발견한 것이다. 돌미륵은 조신이 꾼 꿈의 내용이 현실과 관련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이후 조신이 꿈의 내용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오답 풀이]

① '돌미륵'은 조신의 가치관이 변한 후에 발견되었다.
② 조신의 간절한 소망으로 돌미륵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③ 사람과 사람의 인연의 소중함보다는 무상감을 일깨우는 소재이다.
⑤ 승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전달한다.

07 [다른 작품과의 연계를 통한 감상]

일연의 시에서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이 늙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세속적 즐거움을 누리던 젊은 날, 즉 조신에게는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 행복했던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꿈임을 깨닫고 이제는 뜻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며 '청량한 세계'에 이르고 싶어 한다. 이는 꿈에서 깬 조신이 이르려는 불도의 세계로,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달은 후 정토사를 짓고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08 [구성 방식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일반적인 '전(傳)'과는 달리 주인공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는 열린 결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여운을 주어 감동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독자가 조신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38강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地下國大賊退治說話)

본문 198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⑤ **07.** [A]에서는 공주들이 마귀를 직접 처단하는 주역을 맡지만, 〈보기〉에서는 마귀 처단의 주역이 무사이고, 공주들은 조력자에 해당하므로 [A]의 공주들이 더 능동적이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주인공 무사가 지하국의 통로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통로를 알려 준다. 또 무사가 마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수박으로 변신한다. 이처럼 이 글은 비현실적인 전기적 사건을 통해 어려움에 봉착했던 주인공이 문제 해결에 다가서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은 민담으로, 민담은 구체적인 시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③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취할 뿐,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상반된 성격의 두 공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무사가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가 고귀한 혈통을 지녔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②**

무사의 부하들은 지하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로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루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사가 내려가게 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무사는 몇 해에 걸쳐 세상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지하국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 무사는 술법으로 수박이 되었지만, 사람의 냄새를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해 마귀에게 의심을 사게 되었다.
④ 공주들은 독한 술을 준비하고 마귀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는 마귀를 취하게 하여 마귀를 죽일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였다.
⑤ 마귀는 공주들이 애교를 부리며 고분고분 대하자 자신의 목숨과 관련한 비늘 이야기를 공주들에게 털어놓았다.

03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정답 ⑤**

백발노인은 마귀의 소굴을 찾지 못한 무사 앞에 나타나 자신을 산신령이라고 소개하며 지하국으로 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 이처럼 백발노인은 문제 상황에 처한 주인공에게 그 해결 방안을 알려 주는 조력자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백발노인은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 방안을 알려 줄 뿐, 시범을 보이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니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다.
③ 백발노인은 주인공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백발노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스스로 반성하도록 이끌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왕이 공주를 구하는 자에게 공주와 혼인할 자격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맞지만, 무사는 그 약속 때문이 아니라 나라에 은혜를 갚고자 공주를 구하려 하였다. 따라서 무사를 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닌 충(忠)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지하국의 마귀가 지상국을 침범하여 어지럽히고 여자를 납치하는 설정은, 지하국이 악, 지상국이 선이라는 대립적 성격을 드러낸다.
③ 무사가 술법을 써서 수박으로 변신하여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는 설정

은, 그가 악을 처단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④ 악을 상징하는 마귀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좀처럼 죽이기 어려운 존재라는 설정은, 악을 물리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지하국의 마귀를 물리쳤음에도 무사가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설정은, 선의 공간에서도 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05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①**

ⓐ는 무사가 자신의 존재를 공주에게 알리려고 해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주가 무사를 만나게 되어 마귀의 집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극적 분위기를 이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는 무사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③ ⓒ는 마귀를 죽이려는 공주들의 시도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고 있다.

④ ⓓ는 죽은 줄 알았던 마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여 주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는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무사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으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06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⑤**

'일각'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이르고, '여삼추'는 3년과 같이 길게 기다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에는 마귀의 병이 낫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수고대는 '몹시 애타게 기다림.'을 뜻하므로, 공주들의 심리를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② '다사다난'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의 뜻이다.

③ '임전무퇴'는 '세속 오계의 하나로 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의 뜻이다.

07 [작품 간 비교 감상]

[A]에서 무사는 공주들을 이끌고 통로 밖으로 나오는 역할만 하고, 정작 직접 마귀를 처단하는 주역은 무사가 아니라 공주들이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마귀를 처단하는 주역이 무사이고, 공주들은 마귀를 죽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A]의 공주들이 〈보기〉의 공주들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9강 산성일기(山城日記)

본문 203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③
08.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군사들이 죽음에 이르자 그 책임을 원두표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아, 김류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야비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09.**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글쓴이가 남한산성에서 겪었던 일을 담담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이 글은 글쓴이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하루하루 겪었던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체 수필이다. 날짜별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일기체 형식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남한산성이라는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진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인물의 내면적인 고백은 드러나지 않고 실제 사건을 간략하고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당시의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큰비로 얼어 죽은 군사와 백성이 많아 임금과 세자가 하늘에 비니 비가 그치고 기후가 온화해져서 성안 사람들이 감읍한 것이다. 즉, 성안 사람들이 감읍한 이유는 임금의 간절한 기원에 하늘이 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3 [관련된 속담 이해] **정답 ④**

㉡은 산성 위의 군사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청나라 군사들에게 죽고, 그냥 있으면 김류의 재촉에 죽게 생긴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처지에 있음을 이르는 말.'인 ④가 이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이다.

[오답 풀이]

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다.

0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12월 28일 싸움에서 3백여 명이 죽었는데 김류는 실상을 고하기를 꺼려 사십여 명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따라서 사십여 명이 죽은 일을 3백여 명이 죽었다고 고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2월 '27일에 날마다 성안에서 구원하러 오는 군사를 바랐으나 한 사람도 오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② 12월 28일에 체찰사 김류는 우리 군사를 유인하는 도적의 꾀를 헤아리지 못하고 '군사를 독촉하여 내려가서 치라'고 하였다.

④ 1월 18일에 홍서봉 등을 통해 적진에 보낸 국서는 용골대가 "마부대가 다른 데에 나갔으니 받지 못하노라."라며 거절하였다.

⑤ '이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것이다. 예조 판서 김청음(김상헌)이 비국(비변사)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찢고 실성통곡하니'라고 하였다.

Q 병자호란 때 주화파와 주전파의 대립은 뭔가요?

A 조선 중기 중국의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청나라의 요구에 조선에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주화론과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척화론)으로 국론이 분열되었지요. 주화론은 현실적으로 청과의 전쟁이 불가하다는 생각에서 후일을 도모해 화친을 하자는 주장이고, 주전론은 유교적 명분에 입각해서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와 결사 항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당시에 조선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왔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으나 결국 항복하게 되었어요.

0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④**

[A]에서는 임금이 음식을 보내자 '너희 나라 군신이 돌구멍에서 굶은 지가 오래니 가히 스스로 쓰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조선을 비하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조선을 비하하는 내용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와 〈보기〉는 모두 음식을 가지고 가는 목적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② [A]와 〈보기〉는 모두 새해 음식을 가져간다는 것으로 명분이 유사하다.

③ [A]는 자신들의 진영에 음식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보기〉는 황제가 왔다는 이유를 들어 음식을 받지 않고 있다.

⑤ [A]에서는 이경직과 김신국이, 〈보기〉는 위산보가 청나라에 보내는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

0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는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 군사들이 퇴각을 알리는 기를 어떻게 보고 달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한탄이다. 즉, 김류의 잘못된 처사로 많은 우리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판단이 개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는 모두 사실적인 전달과 기록에 해당하는 서술이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용기를 우러러보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하'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청나라의 요구대로 성 밖을 나갔다가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특별히 국서의 작성 서식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을 '조선 국왕 모'라 하며 낮추고 상대를 '대청국 관온 인성 황제'라고 높여 호칭하여 당대의 우리와 청나라의 위계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사례해야' 한다는 데에서 청나라의 업적과 위엄을 치켜세우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④ 소방을 '온전히 살려 주고 관대하게 길러 주는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데에서 화친을 해서 청나라가 관대함을 베풀어 목숨을 살려 달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황제의 덕'을 언급하며 '공손히 은혜를 기다'린다고 하여 청나라에 화친을 청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매우 공손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8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김류는 우리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하는 청나라 군사들의 계략에 빠져 결국 수백 명의 우리 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물이다. 김류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명령을 받은 초관을 죽이고 원두표가 구원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한다. 이를 볼 때 김류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 전가하는 야비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이 글은 날짜별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며 버티다 결국 화친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용, 전달하고 있다. 즉,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은 가급적 배제한 채 실제로 겪고 보고 들었던 내용만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0강 수오재기(守吾齋記)

본문 20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① **07.** ④ **08.** 글쓴이는 '나'를 잃지 않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9.** 천하 만물을 지키는 일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잃기 쉬운 '나'를 굳건한 마음으로 살펴서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01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②**

이 글은 글쓴이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호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연을 적고, 그에 대한 글쓴이의 체험과 사색을 통한 깨달음을 기록한 수필이다.

[오답 풀이]

① 상연을 목적으로 인물 간의 대화를 구성하는 것은 희곡과 같은 극이다.
③ 압축과 생략의 방법은 주로 시가 양식에 나타난다.
④ 인물과 사건을 창조해 허구적 사건을 구성하는 글은 소설이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글은 소설, 극 등이 있다.

02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④**

㉮에서는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 관련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사색과 성찰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내용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②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를 성찰하여 ㉯에서 본질적인 자신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글쓴이는 ㉮를 붙인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해답을 얻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에 제시되어 있다.
⑤ ㉯에서는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과 비교해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⑤**

큰형님은 아버지께서 지어 주신 태현이라는 자를 지키려고 자신의 집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거실 자체를 물려받았다는 점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흔해서 없애기 어려워 지킬 필요가 없는 만물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조정에 나아가 벼슬에 골몰하다가 유배를 당해서야 '나'를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③ 글쓴이는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 즉 벼슬길에 얽매여 있어서 돌아가야 할 가정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깨달았다.
④ 둘째 형님도 벼슬에 얽매여 있다가 남해 지방으로 와서야 '나'를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0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보기〉는 힘과 권세를 오래 지니고 있으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힘이나 권세에 취해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힘과 권세를 자기 것처럼 착각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충고를 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라고 말한 것은 '나'를 잃는 행위의 일반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수오재라고 이름 붙인 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큰형님의 명명 행동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②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생각은, 형님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데 대해 글쓴이가 나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굳이 지키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다.
③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만물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잃기 쉬우니 잘 지켜야 한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제시한 것이다.
⑤ 스스로 말한 내용을 '수오재의 기(記)로 삼는다.'라고 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를 지켜 나가야겠다는 글쓴이의 다짐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Q '기(記)'는 어떤 양식의 글인가요?

A '기(記)'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자기의 감정이나 주제와 관계 있는 글을 기록한 산문으로 잡기(雜記)라고도 해요. 갈래로 따지면 '수필'인데 어떤 주제나 주장, 정서 등을 자유자재로 특정한 형식 없이 써 내려간 글인 셈이지요.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계나 충고를 나타낼 때 이 양식을 많이 활용해서 글을 썼어요.

06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은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한다며 '나'를 잃어버리기 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서처럼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은 추진해야 하지만 ㉠은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③ ㉠은 배격해야 할 사항이고, ㉡은 견지해야 할 사항이다.
④ ㉠을 이겨 내고 ㉡에 이르러야 한다.
⑤ ㉠과 ㉡은 하나를 택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07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④**

ⓐ는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일에 의문을 품으며 정밀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깊이 잘 생각함.'을 뜻하는 '심사숙고'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선견지명'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뜻한다.
②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한다.
③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뜻한다.
⑤ '허심탄회'는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을 뜻한다.

08 [서술상의 특징 파악]

글쓴이는 '나'를 잃지 않아서 편안히 계신 큰형님의 삶을 보며 '나'를 지키고 잃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현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몸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자기 깨달음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9 [감상의 적절성 평가]

글쓴이는 천하 만물 즉 '밭', '집', '정원의 꽃나무와 과일나

무', '책', '의복', '식량' 등은 지고 달아날 자가 없으므로 모두 지킬 필요가 없는데 오직 '나'는 잘 달아나서 잃어버리기 쉽다고 한다. 그러니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천하 만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잃기 쉬운 '나'를 굳건히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1강

포화옥기(匏花屋記)

본문 211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8.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며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탄식해서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이 사는 것. **09.** A에서 나그네는 '나'의 처지에 공감하는 듯했으나, B에서는 '나'에게 충고하는 태도로 바뀐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이 글은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던 '나'에게 어떤 나그네가 여관집 노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여관집 노비는 자기가 사는 곳을 잠깐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수긍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즉,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두 인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2 [관련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⑤**

㉠에서 '나'는 10여 개 심은 박에서 넝쿨이 자라 창문을 뜨겁게 달구던 햇빛으로부터 집을 가려 주었으나,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 떼들이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어 또다른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라는 뜻으로, 같은 정도로 공존하는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일장일단'이다.

[오답 풀이]

①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다.
② '구우일모'는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이다.
③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의 뜻이다.
④ '등하불명'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03 [사건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②**

㉡은 나그네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글쓴이에게 보내는 위로이다. [A]는 나그네가 나루터, 정자, 역정, 여관, 작은 주막 등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없이 다니며 나쁜 환경에서 지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그네는 '나'에게 자신도 열악한 처지에서 고생했음을 말하여 위로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나그네는 여관을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있다가 떠나는 곳인 셈이다. 노비는 현재의 괴로운 처지에 대해 이러한 여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며 운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세상에 나아갈 자세와 태도를 다듬는 곳은 아니다.
② ㉢은 삶의 교훈을 나누는 곳은 아니다.
④ ㉢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지만 여관집 노비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은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지지만 여관집 노비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0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②**

이 글에서 노비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을 여관, 즉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기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보기〉의 화자도 가난한 생활이지만 떳떳하게 받아들이며 괴로웠지만 그런대로 산 인생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 글의 노비와 〈보기〉의 화자는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는 우거진 그늘 때문에 서식하는 모기와 파리 떼, 뱀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하는 소재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는 양반들이 쓰는 모자인데 앞에서 방 안의 높이가 한 길이 되지 않아 갓이 닿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대부임을 나타낸다.
③ ⓒ는 나그네가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 여관 등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을 정도로 했던 일에 관련되므로, 세상을 두루 다녀 삶의 지혜가 뛰어나게 된 이유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④ ⓓ는 노비가 분주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⑤ ⓔ는 노비가 생활하는 데 계절적으로 괴로움을 주거나 해칠 수 있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07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이 글에서 여관집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노비가 성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포화옥'은 '박꽃이 피는 집'이라는 뜻으로, 박 넝쿨을 심어 더

위로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일을 막으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② ㉮에서 글쓴이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신의 열악한 집의 상황에 대해 불만스러운 사정을 자세히 말하였다.

③ ㉯에서 '뜨거운 구들과 뜨뜻한 침상'에서 자지 못하고 잠자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좁은 집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글쓴이의 상황과 유사한 처지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⑤ ㉰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집을 '포화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노비가 살아온 삶을 들려준 나그네의 의도를 깨닫는 일과 관련 있다.

08 [세부 내용 파악]

ⓕ는 여관집 노비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나타내는 것인데, 노비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운명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걱정과 근심에 빠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탄식으로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이 없어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즉, ⓕ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순응함으로써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일을 가리킨다.

09 [감상의 적절성 파악]

이 글은 유배지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고통을 호소하는 '나'에게 어떤 나그네가 위로와 충고를 전달하고 있다. 즉, 나그네는 처음에는 '나'의 처지를 듣고 그 열악함에 대해 자신이 겪은 바를 말하여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런데'를 기점으로 여관집 노비의 삶의 태도를 말하며 운명에 순종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충고를 전달하고 있다.

42강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본문 215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① **06.** ④ **07.** 깨달음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글쓴이의 태도에서 정확한 고증과 증명을 통해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은 글쓴이가 청나라 밀운성에서 요하를 만나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넜던 경험을 통해 감정 등에 휩쓸리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글쓴이가 여정 중에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일대기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다.

② 당대의 시대적 상황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③ 공간의 이동 양상은 나타나 있으나, 화자의 경험과 사색이 드러나 있을 뿐 인물들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거센 강물이 흐르는 현상은 나타나 있으나 예찬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A]는 거세게 흐르는 강의 모습과 요란한 물소리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 부분이다. 그러나 대화체를 활용하지 않았고,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풀이]

①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에서 소재를 의인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치며 거세게 다툰다'에서 시각적 심상을,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등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체 뽐내는 듯하고' 등에서 직유를, '전거 만 채, 전기 만 대, 전포 만 문, 전고 만 개'에서 과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에서 상상 속의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0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은 글쓴이가 소리를 견주어 보고 들은 일을 가리키는데, 흥분해서 들으면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로 들리고, 분노하면서 들으면 만 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다. 또 깜짝 놀라서 들으면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으로 이는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들리게 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물을 건널 때 눈이나 귀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가상한 바가 있다는 것으로, 편견이나 편벽에 사로잡힌 경우를 나타낸다.

③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은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람을 나타낸다.

④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은 눈이나 귀 등 감각에 의존해서 현상을 판단하여 지식을 얻는 사람을 나타낸다.

⑤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한 것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편견과 그릇된 관념을 배제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을 나타낸다.

0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은 강을 건너면서 얻은 깨달음, 즉 외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통해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외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을 환기하고 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06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④**

㉮는 글쓴이의 현재 경험에, ㉯는 글쓴이가 중국으로 오기 전의 과거 경험에, ㉰는 글쓴이가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과거 경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서 글쓴이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글쓴이는 강물이 거세고 사납게 흘러가는 형세와 백사장, 강둑 등의 주변 경관을 제시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위엄을 전달하고 있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산중에 머물 때 집 앞을 흐르는 물소리가 다르게 들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원인이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③ ㉰에서 글쓴이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병폐가 되는 법이라며,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 글쓴이는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겠다고 밝혀 조선의 산중으로 돌아간 후 자신이 취할 행동을 언급하고 이 작품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다.

07 [글쓴이의 태도 파악]

글쓴이는 요하를 건너면서 외물에 현혹되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를 단순히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다시 검증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정확한 고증과 증명을 바탕으로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강 꼭두각시놀음

본문 219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 인형, ㉯ 막 **08.** 웃음과 춤을 통해 자신의 설움과 한을 승화시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01 [갈래별 특징, 성격] **정답 ②**

ㄱ. 이 글은 인형극의 대본으로 무대에 사람 대신 인형이 등장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을 표현한다.

ㄷ. 인형극이 진행되는 무대는 가설 무대로, 객석과는 분리되어 있다.

[오답 풀이]

ㄴ. 극의 전개에 춤과 음악의 요소가 활용되고 있지만 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할 때마다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아니다.

ㄹ. 총 8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막이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막과 막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이 글에서 공간적 배경은 한 장소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어리빗 사이, 참빗 사이 틈틈이 찾아다니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유희를 통해 골계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작은집'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활용해 꼭두각시가 표 생원의 발화 의도를 오해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④ 박 첨지는 판결 내용을 말로 하다 중간에 창으로 내용을 부르고, 이에 대해 꼭두각시도 창으로 답한다.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

⑤ '해고망측스런 년 요사스런 계집도 많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⑤**

돌모리집은 표 생원이 꼭두각시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자, '인사도 싫고 나는 갈 터이니 큰마누라하고 잘 사소.'라고 한다. 따라서 돌모리집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떠올리며 표 생원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표 생원은 자신의 나이가 연로한 데다 슬하에 자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첩을 얻은 사실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② '날더러 작은집이라 업신여겨 큰부인에게 인사를 하여라, 절을 하여라 하니 잣골 내시댁 문 앞인가 절은 웬 절이여?'라는 말을 볼 때, 돌모리집은 자신을 아랫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러나저러나 적어도 큰마누라요, 커도 작은마누라니 인사나 시키오.'라는 말을 볼 때, 꼭두각시는 상하 질서를 강조하여 자신의 권위와 체통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인사도 싫으니 세간을 나눠 주오.'라는 말을 볼 때, 꼭두각시는 가정 파탄에 대한 보상으로 남편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주제 의식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꼭두각시와 돌모리집, 즉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을 꼬집으며 이러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직적 질서 때문에 생긴 갈등은 다루어지고 있으나,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②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과거 제도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③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재산 분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양반 중심 사회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0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은 세상의 법도에 따라 소실인 돌모리집이 본부인인 꼭두각시에게 예를 갖추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반론을 미리 차단한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꼭두각시가 앞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들어 말한 것이다.

② ㉡은 꼭두각시가 아무리 못났어도 본부인으로서의 위신은 세워 주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③ ㉢은 작은집(첩)을 들였다는 자신의 말을 진짜 집을 마련한 것으로 오해하고 좋아하는 꼭두각시에게 핀잔을 주기 위해 한 말이다.

⑤ ㉤은 자신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꼭두각시에게 분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말이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④**

〈보기〉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강화하고 있지만, [A]에서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창을 활용한 노래의 형식으로 대사를 전달하고 있다.

② [A]와 달리 〈보기〉는 '일원산 가 하루 찾고, 이강 이틀 찾고, 삼주에 가 사흘 찾고, 사법성 가 나흘 찾고, 오강에 닷새를 찾아도'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대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③ [A]와 달리 〈보기〉는 '어디서 영감 소리가 나는 듯 나는 듯 하구려. 여보 영감 영감.' 하는 꼭두각시의 대사와 '거기 누가 날 찾나, 여보게 할멈 할멈.' 하는 표 생원의 대사가 조응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⑤ [A]와 〈보기〉는 모두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하여 꼭두각시가 남편을 찾기 위해 다녔던 행적을 보여 주고 있다.

07 [갈래별 특징, 성격]

「봉산 탈춤」은 탈춤으로 탈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꼭두각시놀음」은 인형극으로 인형을 도구로 사용한다. 또한 「봉산 탈춤」은 과장을 단위로 여러 개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만, 「꼭두각시놀음」에서는 막을 단위로 여러 개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08 [한국 문학의 전통 이해]

박 첨지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렸는데도 꼭두각시가 ⓐ와 같이 말하고 춤을 추며 퇴장하는 것은, 자신의 설움과 한을 웃음과 춤으로 승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문학 작품에는 이처럼 신명을 통해 한과 고통을 승화시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나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44강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본문 224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양반과 선비의 무지와 허위의식 **07.** ⑤ **08.** 계략을 꾸며 양반과 선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익살스러운 대사를 통해 양반이나 선비도 민중의 수준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드러낸다.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이 글이 양반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진지한 형태의 성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안을 모색했다는 것도 이 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춤, 노래, 대사 등의 요소로 어우러져 있는 가면극의 일종이다.

② 양반들의 허위에 대한 신랄하고 유쾌한 풍자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③ 이 글에는 개성 넘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구수한 입담을 선보인다.

④ 이 글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연행된 것으로 이 지역의 사투리가 사용된다.

0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③**

인물의 행동이 시작하고 멈추어야 하는 시점을 악기의 연주를 통해 상쇠가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 시작하고 멈추는 시점에 맞춰 악기가 연주되고 멈추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초랭이는 양반의 하인으로 익살스럽게 행동한다. 이를 통해 극 전반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② 부네는 양반과 선비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을 모두 유혹한다. 이로써 양반과 선비 사이에는 갈등이 유발된다.

④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를 속여 선비가 객석을 돌아다니는 동안 부네를 독차지하게 됨으로써 선비와의 갈등이 심화된다.

⑤ 선비는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지체와 학식에 있어 자신이 양반보다 우위에 있음을 뽐낸다.

03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④**

[A]에서 선비가 사용한 말하기 방식은 일부 단어가 가진 음을 이용해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언어유희의 일종이다. '열녀(烈女)'의 '열'을 '십(十)'으로 간주하고 이것보다 큰 '백(百)'으로 확장하여 '백녀(百女)'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이것이 열녀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말하기 방식과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재수'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② '시다'와 '시큰둥하다'라는 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③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의 의미(외연)를 '닭장'까지 확

장한 언어유희이다.

⑤ '사시절', '단절', '박절', '속절', '정절', '수절' 등 각운의 반복적인 효과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Q 언어유희가 뭔가요?

A 언어유희는 소리의 유사성이나 의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언어유희는 작중 상황의 분위기를 해학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과 같은 고전 문학에서 자주 쓰여요. 우리는 이에 대해 해당 표현이 언어유희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과 그러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두어야 해요.

04 [무대 형상화 방안 파악] **정답 ④**

㉣에서 초랭이가 하는 행동과 말은 양반과 선비를 모두 조롱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부네는 '요염한 춤을 추며'에 어울리도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춤을 추어야 한다. 이로써 부네가 양반과 선비를 유혹하고 있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② ㉡에서 양반은 초랭이의 말을 귀담아듣는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양반은 초랭이가 자신과 선비의 다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에서 선비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연기해야 한다. 이것은 가면극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불분명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⑤ ㉤에서 악공은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의 가락을 연주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갈등이 해소된 극의 분위기와 음악이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05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④**

극에서 상쇠는 장단을 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상쇠의 등장이 마을 사람들이 주도하는 굿의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하회'는 안동의 하회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글이 연행되는 공간을 말해 준다.

② 탈을 쓰고 연행하는 것은 풍자의 주체로서 극 중 역할을 수행하는 민중의 모습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은 보다 자유롭게 풍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③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즐기는 대동적 축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극 중 인물들이 갈등을 멈추고 다 같이 춤을 추는 것은 이러한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장단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배가하고 양반과 선비의 행동을 희화화하는 것은 즐거움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축제가 되는 행사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주제 의식 파악]

이 글에서는 양반과 선비의 다툼이 계속 이어지며 이를 통해 이들의 허위의식과 무식함이 드러나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07 [갈등의 양상 파악] **정답 ⑤**

초랭이가 개입한 이후에 양반과 선비가 함께 춤을 추며 화해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초랭이의 중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 초랭이는 두 사람의 갈등을 조장한 인물일 뿐, 두 사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초랭이의 계략에 의해 부네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양반과 선비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 모두를 유혹하는 부네의 행동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 긴장감을 고조한다.

③ 부네를 둘러싼 두 사람 사이의 대립은 결국 지체와 학식의 우열을 다투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④ 지체와 우열을 다투는 갈등은 양반과 선비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여 결국 스스로 풍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08 [인물의 역할 파악]

이 글에서 초랭이는 계략을 꾸며 양반과 선비가 부네를 두고 다투도록 유도한다. 또한 지체와 학식의 우열을 두고 다투는 양반과 선비 사이에 끼어들어 '육경'에 대한 익살스러운 대사를 함으로써 양반이나 선비가 다투는 내용이 민중의 한 사람인 자신의 수준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Ⅳ 복합

45강

금령전(金鈴傳) | 심청전(沈淸傳)

본문 232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뱃길의 안전과 뱃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민간 신앙의 풍습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혼으로 남은 심청에 대해 뱃사람들은 연민을 느끼고 있다.

01 [인물의 심리 및 상황 파악] **정답 ②**

(가)에서 해룡은 집안과 해룡의 결혼을 위해 밭을 일궈야 한다는 변 씨의 부탁을 수용하고 있을 뿐 스스로 밭을 일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해룡이 '인명은 재천'이라고 말하면서 변 씨의 계략대로 구호동을 향해 가는 것에서 해룡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여인들은 "우리 팔자가~볼고 하여"라고 말하며 짐승의 사환이 된 것을 팔자가 좋지 못한 탓으로 여긴다. 이후 여인들은 "아까 공자께~금선 공주 낭랑이로소이다."와 같이 공주를 해룡에게 소개하고 있다.

④ (가)에서 '그 계집들이~신기하기 그지없는지라.'의 모습을 여인들이 보이는 것은 해룡이 등장한 것과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공주가 꾼 꿈을 신기하게 여긴다는 것으로부터 공주의 꿈이 자신들을 구해 줄 존재가 나타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에서 해룡이 도착한 구호동은 '날이 서산에 저물고자 하거늘'과 같이 어둠이 찾아오는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이후에 갈범이 등장해 위기에 처하는 부정적 상황과 어울린다는 점에서 위기감의 고조와 호응되는 풍경으로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나)의 "가다가 도화동에~알아보고 가오리다."에 따르면, 도화동은 심청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청의 아버지가 살아 있는지 알아보러 가겠다고 한 것이지 심청의 영혼이 아버지의 평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옥황상제가 사해용왕에게 전하는 말인 "심 소저 혼약할~잃지 말게 하라."를 고려할 때 '좋은 때'는 '혼약할 기한'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내용에서 심청은 환생 후 천자와 혼인하게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나)에서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시녀를 곁에서 모시게 하여'를 통해 꽃 안에는 심청뿐만 아니라 시녀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청이 죽은 줄 알고 제를 올리며 눈물을 쏟던 뱃사람들이 꽃봉을 발견하고 '마음이 감동'했다는 것은 꽃을 발견한 일을 계기로 다시금 심청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나)에서 '비단 보배'는 심청이 인당수로 올라가는 꽃송이에 사해용왕이 넣어 주는 소재이다. 이는 심청이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나)에서 심청은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저승의 세계와 자신이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승의 세계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심청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ㄴ. 금방울은 구호동의 범을 해룡 대신 물리쳐 주는데 이 과정은 작은 방울이 큰 호랑이를 한 번씩 받아 쉽게 달아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기 1〉에 제시된 금방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주요 독자였던 여성들의 흥미를 끌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금방울은 요괴의 배 속에 들어가 요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해룡이 요괴를 최종적으로 처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보기 1〉에 따르면, 금방울이 요괴를 물리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해룡을 조력하는 정도로만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여성 의식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변 씨에게 학대를 당하던 해룡이 구호동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악인의 계략에 빠진 인물이 위기에 처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는 〈보기 1〉에 제시된 남성 중심의 편향된 인식이나 이를 해소하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ㄹ. 짐승이 피를 토하며 거꾸러지는 것은 금방울이 짐승에게 먹힌 후 금방울의 활약에 따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 1〉에 제시된 막강한 힘을 지닌 금방울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짐승이 고통스럽게 된 것에는 남성, 즉 해룡의 역할이나 활약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Q 고전 소설에서 남성 중심의 편향된 인식이 뭔가요?

A 고전 소설에서 말하는 '남성 중심의 편향된 인식'은 남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영웅 소설이나 가정 소설 등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가부장적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의 공을 세우는 활약이 남성에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처첩 제도하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남성 중심의 봉건적 가족 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편 이러한 편향된 인식을 극복하려는 고전 소설도 있어요. 「박씨전」, 「홍계월전」, 「금방울전」과 같은 작품들은 뛰어난 능력과 비범성을 갖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활약을 펼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패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성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성 영웅 소설의 이러한 특성은 해당 작품을 파악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기도 하고, 〈보기〉를 통한 감상의 외적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잘 알아 두어야 해요.

04 [구절의 형식적, 내용적 요소 파악] **정답 ④**

㉣에서는 심청이 '하직하고 돌아서'는 행동을 보인 후에 '순식간에 인당수에 번듯 떠'오르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흐름은 인과 관계가 아니라 선후 관계에 해당한다. 심청이 기존에 머물던 환상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진입하는 모습은 심청이 보이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신의 조화'나 '용왕의 신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초월적 힘의 작용에 있어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사면이 절벽', '초목이 가장 무성', '호표 시랑의 자취뿐', '인적은 아주 없었으니'와 같이 구호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속성을 열거하여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해룡은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고 쉬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에서는 '서편에서 또다시 큰 호랑이'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른다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룡이 자신을 위협하는 호랑이와 맞닥뜨림으로써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산상에서 갈범이 등장한 이후 연달아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의 고조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에서는 '한 미인'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보이는 행동을 '칠보 홍군으로 몸도 가볍게 걸어오'는 모습과 '보검을 가져다가 급히 해룡에게 주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특히 보검을 해룡에게 주는 것은 '몸에 촌철이 없어 할 수 없이 방황하'며 적대적 존재인 짐승을 처단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짐승을 물리칠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단초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에서는 '둥덩실'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바다 위에 꽃봉이 떠 있는 작중 상황에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뱃사람들이 '괴이히 여'긴다는 것과 같이 인물들의 심리적 반응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Q 개연성이 뭔가요?

A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소설과 같이 허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문학 작품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건의 흐름이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참고로 '필연성'과 '우연성'의 개념도 함께 알아 두는 게 좋아요. '필연성'이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상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연성'은 필연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관련성이 없음에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해요.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나)에서 꽃봉을 통해 심청이 인당수에 환생하게 되는 것은 뱃사람들이 제를 올린다는 현실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옥황상제와 사해용왕 등 비현실적 존재들의 조력에 의한 것이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현실적 요소가 확대된 소설사의 흐름 속에서도 비현실성에 기반을 둔 기이성이 심청의 환생이라는 극적 사건 구성에서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기이성에 현실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방울이 번개같이~그 넓을 밭을 다 갈더라.'와 같이 금방울이 순식간에 밭을 일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해룡이 할 일을 대신 해 주는 과정에서 금방울에 의해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기〉에서 말하는 사건 전개에 있어 기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에서 해룡이 요괴를 무찌르고 위험에 처한 공주와 여인들을 구하는 장면은 요괴라는 환상적 존재의 등장과 금방울의 환상적 활약을 통해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비현실성에 바탕을 둔 기이성이 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심 소저, 즉 심청이 수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효성을 지닌 심청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을 겪었다는 점에서 기이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꽃봉을 본 뱃사람들은 그것이 심 소저의 영혼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심청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상황과 관련된다. 따라서 뱃사람들은 기이성에 따른 사건을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보기〉에 따르면 기이성이 극적인 사건 구성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답 ③**

[A]에서는 꽃봉이 떠오른 모습에 대해 "아마도 심 소저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와 같이 추측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보기〉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분에서 "금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이란 말이 당치 않소.", "해당화란 말이 당치 않소."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꽃봉오리의 정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한 잔 술로 위로하니 만일 아시거든 영혼은 이를 받으소서."와 같이 심청의 영혼에 대해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도 '넋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을 하옵소서.'와 같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제를 올리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는 심청의 효행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효심과 관련된 심청의 일화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보기〉 모두 뱃사람들이 심청의 안위와 관련된 안부를 묻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에서는 꽃봉의 정체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옛날 진평'과 같이 역사적 인물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저희들끼리 의논하기를'과 같이 이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07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 특징과 인물의 심리 파악]

(나)의 ㉢는 뱃사람들이 심청의 희생 덕분에 큰 이익을 얻어 돌아오게 된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민간 신앙과 연결지어 보면 뱃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사람을 제

물로 바치는 풍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희생의 대상인 심청을 가엾게 여기는 연민의 심리를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6강

우리 나라 전기(傳奇) 소설 |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본문 238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④ **07.** ④ **08.** ① **09.** (나) 처녀가 자결함으로써 김현과 처녀는 인연을 이어 가지 못하게 되었다. (다) 최낭의 환신이 이승을 떠나자 두어 달 후에 이생도 죽음으로써 두 사람은 함께 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 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전기 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제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 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Q 기이성이 뭔가요?

A '기묘하고 이상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이성'은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성격을 띠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인물, 사건, 구성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①도술과 같은 비범한 인물의 능력, ②옥황상제나 선녀 등 인간 세계를 벗어난 존재의 등장에 따른 사건 전개, ③천상계나 저승 세계 등 현실 세계와 이원적 양상을 이루는 공간 설정에 따른 구성 등으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기이성은 사전적 의미나 정의된 개념 자체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①~③과 같이 그것이 어떻게 작품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해요.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나)에서 김현은 범을 잡은 후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김현은 처녀와의 인연을 이용하여 벼슬을 바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② (나)에서 처녀는 자신이 죽으면 다섯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김현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 중 자신이 죽으면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호랑이와 인간 모두에 이로움이 됨을 말한 것이다.

④ (다)에서 이생은 최낭이 아니었으면 부모님의 유골을 찾아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해 장례를 지낸 데 최낭의 공이 크다고 이생이 생각했음을 보여 준다.

⑤ (다)에서 최낭은 이생에게 이별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다)에서 이생은 최낭과의 이별을 거부하지만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그 죄가 이생에게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떠난다. 이러한 이생과 최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김현은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는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이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현은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범(처녀)은 자신이 죽은 후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요청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은 종교적 차원에서 갈등의 해결을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다)의 이생은 최낭이 환신해 돌아오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지낸다. 이는 (가)에서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이 사랑에 몰두해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여 준다는 것에 해당한다.

④ (다)에서 최낭은 횡액을 당해 죽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 원통해하다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인연을 맺고 시간을 보낸다. 이는 (가)에 따르면, 외로운 존재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이한 방식으로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①**

(나)의 김현은 처녀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처녀와 헤어지고 있다. 또한, [A]에서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자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처녀는 자신이 죽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김현에게 말하고 있다. 한편 [A]의 최낭은 자신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승에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처녀는 김현에게 불법을 얻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은 하고 있지 않다. 한편 [A]의 최낭은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며 이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나,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은 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김현은 범을 죽인 공로로 벼슬에 올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호원사를 지어 범의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A]의 이생은 최낭이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준 후에 병을 얻어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절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 않으며, [A]의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지도 않다.

⑤ (나)의 김현은 범을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올랐으므로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의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다.

0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가)의 3문단에서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러한 범의 희생을 기린다는 이야기라고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한 것은 김현이 벼슬에 대한 욕망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신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부처의 응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사나운 범'이 성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김현은 처녀와의 대화를 통해 처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에서 김현은 임금에게서 벼슬을 얻고 있다. 이는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임금은 범을 잡기 위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이는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최낭은 죽은 후 환신으로 나타나 이생과 몇 년을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최낭은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이생이 만류하자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며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로 볼 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는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횡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구렁'은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이생과 최낭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음을 나타낸다.

② 최낭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짝 잃은 새'에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낭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최낭이 이생에게 옛날의 '굳은 맹세'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생은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는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최낭은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이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최낭의 사랑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다)에서 이생과 최낭은 최낭이 홍건적에 의해 죽음으로써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가 생긴다. 그런데 최낭은 죽은 후 환신으로 나타나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간다. 이것은 ㉮에서 말하는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즉, 개인들이 전쟁으로 형상화된 부정적 세계에 맞서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고자 함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이생이 환신으로 나타난 최낭과 살면서 세상을 등진 것은 이생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생과 최낭이 횡액을 만나기 전에 백년해로를 서로 약속한 것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한 것일 뿐 세계와의 대립을 대비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③ 최낭은 홍건적에게 정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은 최낭이 이생과의 못다한 인연을 이어 가기 위해 환신이 되어 나타나 이생과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⑤ 최낭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이미 저승의 명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과 세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08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①

(다)에서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사건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이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다)에서 횡액을 만나 죽은 최낭은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능동적 여인상을 나타낸다.

③ (다)에서 최낭은 이미 죽었으나 '환신'으로 이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정'을 누리고 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최낭은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최낭이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다)가 저승과 이승의 이원적 공간 구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다)에서 이생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나타낸다.

09 [서사 전개 과정의 이해]

(나)에서 김현과 처녀는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이후에 처녀가 자결해 죽게 됨으로써 두 사람의 인연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다)에서 최낭이 홍건적에 의해 죽음으로써 현실에서 이생과 최낭은 인연을 이어 가지 못한다. 이에 최낭이 환신이 되어 나타나 이생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고 최낭은 이생과 이별해 자취를 감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생도 죽게 된다. 이는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여 준다.

47강

임진록(壬辰錄) | 명량(鳴梁)

본문 246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나)에서는 이순신의 내레이션(NA)을 통해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죽을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이순신의 의지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극 갈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시문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적 배경을 보여 준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인물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없다. (나)는 극 갈래로, 서술자가 없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병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작품 내용 파악] **정답 ①**

일본의 행장이 화친하고자 하였으나 청정이 홀로 싸움을 주장하였다는 요시라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행장이 이순신을 해치기 위해 마련한 계책이다.

[오답 풀이]

② 권율은 이순신에게 '요시라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권율은 요시라의 말을 믿고 요시라의 말대로 청정을 공격하는 것이 조선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③ 백성들은 이순신이 통제사로 임명되어 내려오자 길을 메우고 이순신을 따랐다. 이에 십여 명이었던 군관이 백여 명이 넘게 되었다.

④ 원균이 칠천도에서 패한 뒤 남은 배는 십여 척에 지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이 가진 배가 적어 도적을 막지 못할까 걱정하여 이순신에게 육지에 올라 싸우라고 명하였다.

⑤ 적선이 안위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여 안위가 거의 죽게 되자 이순신은 안위를 구원하러 갔다. 이때 적선 수백 척이 이순신을 공격하여 이순신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03 [외적 준거를 통한 작품 이해] **정답 ④**

이순신은 적선을 보고 도망하려 하는 안위를 향해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고 하며 '이제 달아나'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다. 이는 군법을 중시하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이순신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요시라의 말을 믿고 바다에 나아가 청정을 쳐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순신은 요시라의 말이 간사한 계략인 것을 간파하고 출전하지 않았다. 이는 이순신의 남다른 판단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통제사로 임명되어 전라도로 내려온 이순신은 장수들을 모아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으'라고 말한다. 이는 이순신의 적극적인 자세와 기개, 의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③ 이순신은 임금께 자신이 죽기 전에는 도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군으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순신의 씩씩한 기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안위를 구원하러 갔다가 위기에 처한 이순신은 적이 당황하여 잠깐 물러난 틈을 타 적을 많이 죽였다. 이는 이순신이 뛰어난 전투력을 지닌 수장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작품 내용 파악] **정답 ⑤**

S# 51에서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라는 장수 일동의 호소를 들은 이순신이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라 하고, S# 52에서 김돌손으로 하여금 '횃불을 던져 넣'게 하여 우수영 본채를 불태운 후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우수영을 불태운다!'라며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S# 51에서 이순신이 숙연한 얼굴로 장계를 쓰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이순신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S# 52에서 장수들이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이순신이 장계를 쓴 것 때문이 아니라, 이순신이 군사들을 마당에 모으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된다.

② S# 51에서 안위가 이순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울돌목에서의 전투를 계획하고 있는 이순신의 뜻을 만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은 S# 52에서 우수영 본채를 불태움으로써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S# 52에서 이순신이 망설이고 있지는 않다.

③ S# 51에서 안위는 울돌목에서의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군사 한 명도 귀하다고 말한 것이다. 안위의 말로 S# 52에서 군사들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S# 51에서 이순신이 군사들을 모으라 명령한 것은 군사들에게 전투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S# 51에서 구선이 이미 없다고 하였으므로, S# 52에서 군사들이 구선에 불을 지르는 것은 아니다.

05 [대화의 특성 파악] **정답 ④**

[A]에서 요시라는 '오래지 않아 청정이 다시 바다에 나'올 것이라며 벌어질 상황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에서 이순신은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죽을힘을 다하여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요시라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이순신이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임금을 질책하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 요시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요시라가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이순신은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임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요시라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이순신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A]에서 요시라는 평행장과 청정의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이순신이 문제가 해결된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순신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06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④**

이순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우수영 마당에 군사들을 모으고 우수영 본채에 불을 질렀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의 화광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순신이 아니라 여러 군사들이다.

[오답 풀이]

① '한 획… 한 획… 혼이 담기는 글씨.', '글씨를 쓰던 오른손이 경련으로 파르르 떨린다.'를 볼 때 장계를 쓰는 이순신의 손을 근접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울돌목에서의 싸움은 불가하다는 안위의 대사에 이어 '다른 장수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친다.'가 나온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은 여러 장수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장수들이 울돌목 전투가 불가하다고 외치고 난 뒤에 안위는 눈물을 흘리며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 주십쇼.'라고 말한다. 따라서 안위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눈물을 흘리며 충언하는 연기를 하도록 주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김돌손이 횃불을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본채.', '불타는 본채를 뒤로하고 선 이순신' 등으로 볼 때 불길에 휩싸이는 본채의 모습이 극적으로 표현되도록 우수영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Q 알아 두어야 하는 시나리오 용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A 시나리오에는 장면의 촬영, 편집 등과 관련된 용어가 등장해요. 이 용어를 이해하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시나리오 용어는 다음과 같아요.

S#(신 넘버)	장면 번호
shot(숏)	카메라의 회전을 중단하지 않고 촬영한 장면
NA(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
C.U(클로즈업)	어떤 인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대함.
E(이펙트)	효과음
insert(인서트)	장면과 장면 사이의 장면 삽입
O.L(오버랩)	화면이 겹치면서 장면을 바꿈.
F.I(페이드인)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것
F.O(페이드아웃)	밝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0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가)의 순신이 '장수들을 모아'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엄하게 주의를 주어' 말했다는 부분과, 이 말을 듣고 '장수들 중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는 부분을 통해 '마땅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말을 한 것은 순신이며 '감동'한 것은 장수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수들의 결심에 순신이 감동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순신이 군관 십여 명과~보성에 가서 보니'에서 이순신이 진주에서 보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나)의 '장군! 소장~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귀한 때입니다!'에서 안위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며 이순신을 설득하는 과정이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③ (가)의 이순신이 '십여 척 전선으로 맞아 싸우라.'라고 '다급하게 명령하'는 부분으로 보아, 인물의 태도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의외로 담담하게) 그대들의 뜻이 정히 그러하다면'에서 인물의 태도를 지시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순신을 둘러싸고~사방을 둘러싸는지라.'에서 이순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바람에 흔들리는~긴장된 분위기다.'에서 긴장된 상황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전선을 휘몰아~물러나게 되었다.'에서 '적을 공격하'는 장수들의 행동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글씨를 쓰던~글씨를 이어 가는 이순신.'에서 장계를 쓰는 이순신의 행동이 지시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보기〉에 따르면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는 각오를 표현하였고, 이것이 이순신을 등장인물로 하는 여러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가)에서 이순신의 말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는 이순신의 나라를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잘 보여 준다. (나)의 이순신의 대사 중에 '우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또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순신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48강

우화 소설의 세계 | 서대주전 | 별주부전

본문 252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② **07.** ②
08. (1) Ⓐ 소송을 당함. Ⓑ 서대주가 도적질을 함. Ⓒ 죽을 위기에 처함. Ⓓ 토끼가 허욕을 부렸고 용왕이 병이 들었음. (2) (나)는 양반이 자신의 권세만 믿고 평민을 수탈하는 행태를 풍자하고, (다)는 분수에 넘치는 헛된 욕심을 경계하고, 지배자의 횡포를 풍자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가)에서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인간에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교훈의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을 모색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에서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가 우화 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라고 진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동물을 인격화'(의인화)한 이야기이며, 그 유형은 크게 송사형과 쟁론형이 있다고 하였다.
② 둘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구어나 비속어~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였다.
③ 넷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나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다.라고 하였다.
④ 첫째 문단에서 쟁론형 우화 소설은 '시비를 가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고, 둘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라고 하였다.

Q 해학적 표현이 뭔가요?

A 힘들거나 슬픈 상황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익살스러운 태도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재치 있게 극복하는 것을 해학적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해학적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흥보가」에서 가난에 찌든 흥보 가족들이 급하게 배를 채우는 장면에서 '음식을 먹고 나니 콧물이 댕강댕강 매달려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그 장면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고통이 아닌 웃음을 통한 극복의 대상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청천벽력이 머리를 깨치는듯 정신이 아득하여'에서는 비유법으로, '어이없고 정신이 산란하며~'에서는 직접 서술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는 배경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에서는 용궁으로 간 토끼가 꾀를 내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장면 하나만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삽화적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인 토끼나 용왕의 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다)에서 토끼는 꾀를 내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용궁이라는 초월적 공간(전기적 요소)이 등장하지만 토끼가 이미 용궁에 도착한 뒷부분 내용이므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의 전환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용왕이 토끼의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전환이 암시된다.

03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②**

(나)와 (다)는 모두 동물을 인격화하여 관료의 부정부패나 권력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으므로, 우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부당한 사회 현실을 풍자하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작품 모두 고도의 상징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③ (나)와 (다)는 대체로 풍자적 어조로 작품이 전개되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회한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서 서대주의 후손이 화를 입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관련이 있으나, 인과응보, 권선징악적 결말이 유교적 사상에 기반한 것은 아니며, (다)에서는 인간의 도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나)와 (다) 모두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Q 현학적 표현이 뭔가요?

A 현학적 표현은 필요 이상으로 한문 구절을 많이 사용하여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하는 표현을 말해요. 시험에서는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등과 같은 선지로 출제되고 있어요.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다)에서 세상 사람들이 토끼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은 토끼가 용왕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므로, 빈부의 갈등과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서대주는 옥의 수졸에게 뇌물을 주고 옥에서도 편하게 지낸 것이므로, 뇌물로 인한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서대주가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양반들의 권위 의식과 관련이 있다.
③ (나)에서 서대주의 후손들이 도적질로 화를 입는 설정은 권선징악이라는 고유의 윤리 의식을 옹호하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⑤ (다)에서 자라는 토끼를 용궁으로 유인하여 토끼의 간으로 용왕의 목숨을 구하려한 인물로, 충(忠)이라는 봉건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나)에서 타남주가 섬으로 귀양을 간 것은 원님이 서대주의 말솜씨에 넘어가 무능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므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서대주는 '쥐'를 인격화한 것으로,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쭉거린다고 한 묘사는 쥐의 모습과 관련된다. 이는 (가)의 둘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동물의 외형이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물을 형상화'한다고 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③ (나)에서 서대주의 후손들은 도적질로 생활하다가 사람들의 앙갚음을 받는다. 이는 (가)의 네 번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은 올바른 삶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다고 한 내용과 관련된다.

④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우화 소설에서 '대립 구도는 소설의 갈등을~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라고 하였다.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는 인물 간의 대립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토끼는 간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는 (가)에서 우화 소설은 '기지나 재치 있는 언술을 활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기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나)의 서대주는 도적질로 생활을 하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 송사에서 이기는 인물이다. 그런데 (나)에서는 서대주가 타인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옥의 수졸은 서대주에게 뇌물을 받고 서대주의 편안한 감옥 생활을 돕는 인물이므로 부패한 관리에 해당한다.

③ (나)의 원님은 서대주의 말솜씨에 넘어가 도적질한 서대주를 풀어 주고, 피해자인 타남주를 귀양 보내는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무능한 관리에 해당한다.

④ (다)의 토끼는 '무단히 허욕을 내어 자라를 쫓아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허황된 꿈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다)의 용왕은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는 인물로, 민중을 위협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권력자, 즉 지배층에 해당한다.

07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②**

[B]는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용왕을 속이고 있는 부분으로, 간을 배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배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남다른 면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서대주는 타남주가 '사리에 맞지 아니한~송사를 꾀했으니'라며 도리에 어긋나게 송사를 했음을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③ [A]에서 서대주는 타남주를 맹랑하고 무뢰한 인물로 몰아가며 타남주가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B]에서 토끼는 자신의 간이 영약이 된다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④ [A]에서 서대주는 풀려나기 위해서, [B]에서 토끼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각 원님과 용왕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말을 하고 있다.

⑤ [A]는 서대주가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라고 말하는 데서 자신을 낮추어 '저', 상대를 높이어 '원님'이라 하며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B]는 '대왕은 천승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고 언급하는 데서 청자를 '천승의 임금'으로 높이고 자신을 '소토'로 낮추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8 [작품 내용의 이해]

(나)의 서대주는 권세를 믿고 타남주의 밤을 훔쳐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양반이 자신의 권세를 믿고 평민을 수탈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다)의 토끼는 허욕을 부려 간을 빼앗길 위험에 처했는데 이는 토끼의 허욕도 원인이지만 병든 용왕이 토끼의 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원인이 된다. 이를 통해 분수에 넘치는 헛된 욕심을 경계하고 지배자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49강

태산이 높다 하되~ | 사청사우 | 이옥설

본문 257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④ **07.** ① **08.**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해가 되고,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다시 쓰일 수 있다. **09.** ② **10.** 집을 수리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몸에 유추하여 의미를 적용한 후, 정치에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 확장을 시키고 있다.

01 [표현상의 특징 이해] **정답 ④**

(나)는 '나를 기리다가'에서 보듯 화자가 작품 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가)에서는 화자가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오르고'가 반복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나)는 '봄'의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③ (다)는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며 설의적 의문으로 마무리하여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는 변덕스러운 자연 현상과 변덕스러운 세상 인정의 유사성에, (다)는 집의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가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경험과 사람의 몸, 정치 등과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02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③**

(가)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나)는 '봄'

이나 '산'처럼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다)는 잘못을 알았을 때는 서둘러 고쳐 나가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 모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한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에서 집의 문제를 알고도 수리를 미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② (가)~(다) 모두 고난과 시련의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다) 모두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따른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다) 모두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면 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②**

(가)는 초장에서 태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임을 단정적으로 언급한다. 중장에서는 오르고 또 오르면 태산에 오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높다는 핑계만 대며 태산에 오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하늘의 도'는 쉽게 변하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 시에서 '봄'은 변하지 않는 대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늘의 도'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인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변덕스러운 자연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
③ '나를 기리'던 사람이 '나를 헐뜯'는 것은 변덕이 심한 세상 인심을 나타낸 것이다.
④ '공명을 피하더니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는 것은 세상 변화에 따라 공명에 대한 자세를 달리하는, 즉 처세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반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생에 누릴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도가 담긴 말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변덕스러운 세태에 따라 처세를 달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05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다)에서는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깨우쳐 서둘러 바로잡아야만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나라의 피해가 없고 나라의 인재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행랑채의 두 칸은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는 데서 대조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②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된 일에서 유추해서 글쓴이는 사람의 몸도 잘못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④ 몸을 고치는 일이나 정치를 바로잡는 일 모두 잘못을 알았을 때 서둘러서 고칠 때 더 큰 병폐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어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과 나라에 큰 위태로움을 가져다주어 나중에는 고치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은 집을 고치는 일이라는 사실적 상황을 제시한 부분으로, 집을 고칠 때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은 ㉠의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으로, ㉠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사람의 몸, 정치 등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글쓴이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가지 해결책이 나타난다.
② ㉠으로부터 ㉡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는 아니다.
③ ㉠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의 깨달음에 이르므로 ㉠이 사건의 결과이고 ㉡이 원인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얻은 깨달음을 ㉡에서 유추 적용하고 있다.

Q 설(說)은 정확히 뭔가요?

A 한문 양식에서 '설'은 어떤 일을 '해설한다'는 뜻을 지니는 논변류의 글을 말해요. 대개 설은 우언과 주장의 두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언은 구체적인 경험이나 체험 등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이를 바탕으로 후반부에서 글쓴이의 본격적인 주장이 제시되는 게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설은 『장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중국 유종원의 「포사자설」, 한유의 「잡설」, 「사설 등에 이르러 그 형식이 구체화되었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소식의 「강설」, 소순의 「명이자설」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규보의 「경설」, 권근의 「밀봉설」, 강희맹 「도자설」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지요.

07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 ①**

ⓐ는 사람들이 오르고 또 올라야 하는 일정한 목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 바람 등을 의미한다. ⓑ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변적인 존재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불변의 가치를 표상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08 [사건 전개 양상 파악]

㉮는 뒤에 도치법을 통해 제시한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에 해당한다. ㉮ 이후 글쓴이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고,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0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위태

롭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때가 늦어 고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나타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④ '남이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 [감상의 적절성 파악]

이 글은 1문단에서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된 집을 수리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1문단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몸에 유추하여 의미를 적용시켰고, 3문단에서는 이를 정치로 의미 확장하여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없애서 나라와 백성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50강

한의 문학 | 별사미인곡 | 봉산 탈춤

본문 263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⑤ **07.** ㉠ 말뚝이의 조롱, ㉡ 말뚝이의 변명 **08.** (다)와 같은 전통극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이 무대(극 중 장소)와 객석(공연 장소)의 구분이 없는 반면, 〈보기〉와 같은 현대극은 작품의 배경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적인 무대 장치로 설치되어 있어 무대(극 중 장소)와 객석이 구분된다.

01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 **정답 ④**

(가)에서 유배 가사와 같은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 경우에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설정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 대부분이 임금을 이별한 임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러한 설정을 통해 지배층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한은 정과 함께 수많은 한국 문학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 중 하나라고 하였다.

②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한은 응어리진 감정의 일종으로 역사의 비운,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③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탈춤은 서민들이 겪었던 현실의 억눌림과 고통을 웃음이라는 장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한을 풀어내었다고 하였다.

⑤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유배 가사에 주로 나타나는 한은 임금과의 어긋난 관계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0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④**

'목란'으로 만든 꽃신은 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소재로, 임에 대한 정성이나 애정을 나타낸다. '한여름 청음'은 화자가 바람이 되어 가고자 하는 임이 계신 곳으로,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화자는 임을 모신 적이 없으므로 이들 소재를 통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광한전 백옥경'은 '저 각시'가 임을 모셔 본 적이 있는 곳이자, 화자가 임이 있는 그곳을 알지 못해 임을 모셔 보지 못하게 만든 곳이다. 이곳은 천상계와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임과 함께 언급함으로써 임이 계신 곳을 천상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뫼셔 본 적 전혀 없네'는 임의 곁에서 임을 모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가)의 [A]를 볼 때, 벼슬을 하지 못했던 작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의 내용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③ (나)에서 화자는 이생(차생)에서 임을 모셔 보지 못하는 상황에 한탄하며 차라리 죽어서 구름이 되어 임이 계신 데를 덮거나 바람이 되어 임이 계신 데에 불고 싶다고 한다. 따라서 '구름', '바람'은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함축한다. 이것은 ㉢과 같은 것이다.

⑤ '이보소 저 각시님'은 '저 각시'를 청자로 설정하여 ㉤과 같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것이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 하오',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같을손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에는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부분에 이어받으며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⑤ (나)에는 화자가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이나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에서 '무량대각'은 취발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비호'는 취발이가 날랜 것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에서는 취발이의 힘과 날램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익살스럽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서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노생원님'과 '노새 원님'의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양반을 짐승인 노새로 표현하는 희화화가 나타나 있다.

② ⓑ에서는 '샌님 비뚝한 놈'에서 양반을 얕잡아 보는 '놈'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④ ⓓ에서는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통해 양반을 무시하고 조롱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에서는 취발이에게 돈이나 받고 풀어 주자고 하는데, 이를 통해 돈

을 받고 죄를 눈감아 주던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드러내어 부패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05 [소재의 함축적 의미 비교] **정답 ⑤**

㉮는 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한편, ㉯는 취발이를 잡아 오라고 양반이 말뚝이에게 준 것인데, 말뚝이가 전령을 보여 주자 취발이가 말뚝이에게 순순히 잡힌다. 따라서 ㉯는 말뚝이가 상대인 취발이를 제압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는 화자의 과거 상황을 상징하는 소재가 아니고, ㉯도 말뚝이의 앞날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가 아니다.

② ㉮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가 아니고, ㉯도 말뚝이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소재가 아니다.

③ ㉮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고, ㉯도 말뚝이의 해소된 갈등을 나타내는 소재가 아니다.

④ ㉯는 말뚝이가 양반에게 위임받은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나, ㉮는 화자와 임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재가 아니다.

06 [시적 화자의 심리 파악] **정답 ⑤**

화자는 현재 임과 헤어져 임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화자는 '차라리 ᄉᆡ어져 구름이나 되어 이셔~님 계신 데 덮었으면,' '바람이나 되어 이셔~님 계신 데 불고지고'라며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머무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작가가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갔을 때 지은 가사이기는 하지만, [C]에 자신의 누명이나 억울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임의 신뢰 회복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② [C]는 임의 곁에 가고 싶은 심정을 노래한 것이지, 속박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심정을 말한 것은 아니다.

③ [C]는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 임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④ [C]에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담겨 있지만, 후생에서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07 [재담 구조에 대한 이해]

「봉산 탈춤」의 양반 과장에서는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일시적 화해'와 같은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양반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이어진다. [D]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가 두 번 반복된다.

08 [갈래상의 특징 파악]

(다)는 무대 장치가 없어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따라서 악공이나 관객의 무대 진입과 이동이 쉽다. 또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이 없어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반면에 〈보기〉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집이 사실적인 무대 장치로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분리된 무대 위에서 극이 상연되도록 하고 있다.